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03

오늘의 마켓 지수
(오전 10시 30분 현재)

KOSPI	1,806.53 ▲	40.09
코스닥	461.89 ▲	7.98
환율		
· 달러	1,163.30원 ▼	8.10
· 엔	1,516.29원 ▼	7.61
· 유로	1,597.93원 ▲	3.86

KDB대우증권

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제256호

富의 소외…다수의 좌절 금융권만 잇속 '빈곤의 늪'

창간 1주년 특별기획 5

도전받는 자본주의 ⑤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의 근원지인 뉴욕 주코티 공원에서 10일(현지시간) 한 시위 참가자가 입에 달러 지폐를 붙인 채 금융권을 비난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15일 전세계 시위의 날
국내서도 '행동' 움직임
시장 공정성 회복 요구
안철수 현상도 일맥상통

자본주의의 상징 월가 한 복판에서 발생한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에 이어 유럽, 아시아 등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권의 탐욕에 반하는 시위의 움직임이 증권가 여의도를 중심 등에서 감지되고 있다.

당초 미 청년 실직자들을 중심으로 지난달 17일(현지시각) 시작된 월가 시위는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시위의 물결은 세대, 지역에 구분 없이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일 뉴욕에서는 최대 규모인 2만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열렸으며 이들은 금융권 개혁과 과도한 빈부격차 해소를 요구했다. 미 CBS 방송 인터넷판 등은 9일 뉴욕에서 시작된 이번 시위가 수도 워싱턴 D.C.는 물론 남부 앨라배마주(州) 헌츠빌과 서부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 전국 25개 도시로 확산했다고 보도했다.

월가 시위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됨에 따라 글로벌 시위 동조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전세계 시위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다 함께 점령하라'(Occupy Together)는 15일을 '전세계 시위의 날'로 정하고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등 캐나다 주요도시에서 가두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 단체의 페이스북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830명이 토론토 시위에 참가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태평양 건너 일본에서는'도쿄를 점령하라'는 페이스북이 열렸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럽 등에서도 유사 사이트가 속속 개설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과도한 이익 추구와 소득 불평등에 항의하는 반(反) 월가 시위는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시민단체 금융소비자협회가 주축이 돼 월가의 탐욕을 규탄하는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했다. 오는 12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계획을 밝히고 15일을 행동의 날로 정해 집회를 개시할 계획이다. 현재 이들 단체들은 향후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와 노동계, 금융 피해자 단체 등과 접촉해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시민단체들도 국내 금융권의 문제점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금융 공공성 회복'과 '금융 독립' 등 2가지 포괄적 주제 아래 금융 피해자와 금융권 노동조합원, 대학생 피해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최근 부실 대출로 논란이 된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해 파생상품 키코(KIKO),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문제 등을 지적하고 금융권 임원들의 고액 연봉과 성과급 등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영 기자 mint@

▶2면에 계속

오늘의 이투데이

창간 1주년 특별기획 1 富를 다시 생각하자 4면
창간 1주년 특별기획 2 한국경제 해법을 찾는다 6·7면
창간 1주년 특별기획 3 팍스시니카, 축복인가 재앙인가 5면

특별기고
저축은행중앙회 주용식 회장
22면



코스피 19일만에 1800 회복



코스피 지수가 유럽 재정위기 해소의 기대감으로 19일만에 1800선을 돌파했다. 11일 오전 소공동 외환은행 딜링룸에서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38.29 포인트 상승한 1804.73을 나타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기름값 37일연속 상승 사상최고치와 '2원 差'

환율상승…두바이유값도 들썩

국내 기름값이 37일째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정유사들의 공급가가 인상된 때문이다.

1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69.13원으로 전날보다 0.23원 올랐다. 전국 기름값은 지난달 4일 1933.21원을 기록한 뒤 37일째 연속 상승세다. 역대 최고치인 지난 4월 5일의 1971.37원과도 불과 2.24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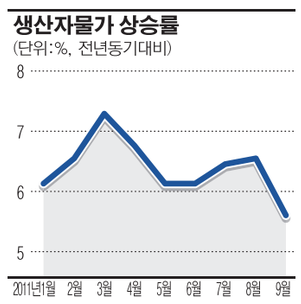
서울지역 기름값도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지역 보통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43.21원이다. 지난달 14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2043.76원에 불과 0.5원이 모자란다. 특히 여의도 경일주유소의 경우 리터당 2295원으로 보통 휘발유 가격이 2300원대 진입을 예고했다.

이 같은 기름값 고공행진은 원·달러 환율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다. 환율이 오르면 정유사가 수입하는 원유와 석유제품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동안 내림세를 보였던 두바이유 국제 현물가격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한 것도 향후 기름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0일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전일보다 0.96달러 오른 배럴당 101.31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4일째 상승세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당분간 국내 석유가격은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기에 두바이유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섬으로써 국내 유가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생산자물가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아이폰4S 美 예약 첫날 100만대 돌파

잡스의 선물? 애플의 전략?

"스마트폰 보유하지 않은 고객 노림수" 분석

애플이 시장의 실망을 예상하고도 아이폰5를 출시하지 않은 것은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애플은 2년 약정에 묶여 있는 아이폰4 고객은 물론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을 사지 않은 고객을 노렸으며 이는 결국 성공적인 '쇼'가 됐다고 10일(현지시간) 미국 투자전문지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분석했다.

아심코의 호레이스 데디우 애널리스트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타깃은 아이폰4를 갖고 있는 고객이 아니다"라며 "이들 대부분은 통신사 약정에 묶여 있어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길 꺼려할 것이며 아이폰4에 대한 만족도도 90% 이상이어서 제품 교체 수요도 약하다"라고 설명했다.

7000만명에 달하는 아이폰4 이전 버전인 아이폰3G와 아이폰3GS 보유 고객만으로도 아이폰4S 수요는 상당할 것이라고 데디우 애널리스트는 평가했다.

아이폰4 이전 고객은 대부분 통신사 약정이 끝나 추가 비용 부담이 없고 아이폰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보유 제품이 출시된 지 2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기 교체 욕구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아이폰을 써본 소비자는 아이폰4S로 넘어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애플의 이런 전략은 들어맞았다. 아이폰4S를 판매하는 버라이즌와이어리스와 AT&T 등 이동통신사들은 아이폰4S 사전 예약주문을 받은 첫날인 지난 7일 하루 주문이 100만대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아이폰4의 60만대를 뛰어넘는 최고 기록이다.

스티브 잡스 애플 설립자가 아이폰4S 발표 직후인 지난 5일 사망한 것도 심리적으로 예약주문 증가에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생산자물가 상승률 올들어 최저치 기록

9월 5.7%…채소값 떨어져

채소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11일 9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5.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5.3%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줄곧 6%대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 3월에는 7.3%로 정점을 찍은 뒤 하향세로 접어드는 듯 했으나 지난 8월 6.6%를 기록해 7월(6.5%) 대비 상승 반전했다.

하지만 9월 들어 기후가 개선되면서 채소값이 하락으로 돌아서고 원재자가격이 내리면서 5%대로 상승률이 둔화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공정위, 결국 백화점에 칼 뺐다

판매수수료 인하 거부에 보복 조치
유명 브랜드와 거래실태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판매수수료 인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백화점업계를 대상으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하를 강행하려는 공정위와 자율에 맡기라는 업계간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과 11일 루이뷔통과 샤넬, 구찌, 까르띠에, 아모레퍼시픽, 제일모직, LG패션, MCM 등 8개업체 사무실로 조사관을 파견해 백화점 계약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등 집중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해당 업체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대면 조사를 벌이고 컴퓨터 파일과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백화점 입점 업체와 백화점 간의 판매수수료와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과 관련된 내용의 자료들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오늘 계속 공정위 조사관이 회사를 방문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아직 조사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제일모직 관계자도 "공정위 조사원들이 백화점 계약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본사로 방문해 조사를 현재 진행중"이라며 "언제까지 조사가 계속될지는 모르겠으나 공정위 요구대로 조사에 응하겠다"고 전했다.

명품업체 한 관계자도 "어제 공정위 조사관들이 사무실로 찾아와 조사를 벌인 것은 맞다"며 "무슨 조사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명품업체와 국내 빅 브랜드를 소유한 대기업 입점 업체들의 실태 파악에 나선 뒤 중소업체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 판매수수료 등 백화점과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전격 조사와 관련 업계에서는 개선된 판매수수료 인하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빅3 백화점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백화점 '빅3' 대표들은 판매수수료 인하에 대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 15회 아시아태평양소비업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두 출국했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데드라인까지 정하고 명품업체와 중소업체를 비교하며 경고한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결국 예상대로 실태조사가 끝나면 곧장 직권조사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윤철규·이선애 기자 yoonck@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토머스 사전트 교수(오른쪽)와 크리스토퍼 심스교수가 10일(현지시간) 프린스턴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프린스턴/AP연합뉴스



용산역세권개발(주)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소재 수도권 철도차량관리단에서 용산업무지구 기공식을 가졌다. 임영무 기자 darkroom519@

용산개발 4년만에 첫삽

오늘 기공식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뜬다. 지난 2007년 코레일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30개 출자사들이 모여 사업협약을 맺은지 4년여만 이다.

11일 용산역세권개발(주)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설 용산구 한강로 3가 용산정비창(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철거·토목공사에 들어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광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비롯, 허준영 코레일 사장 등 사업 관련 국내외 인사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 공연과 출자사 대표 30명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성공을 기원하는 다짐선언문 낭독, 용(龍)이 승천하는 기공 세리머니 연출 등 1시간여에 걸쳐 축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그 동안 자금난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었던 용산역세권개발은 랜드마크빌딩 매각으로 사업자금 4조원을 확보하고 5조3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대금을 준공 시점으로 연기하는 등의 조치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졌다.

자금 유동성이 확보된 만큼 패스트 트랙방식을 통해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5일 코레일 소유 모든 토지가 PFV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로 등기이전 완료됨에 따라 지난 6일자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했다.

김성배 기자 sbkim@

기자수첩

F1 티켓강매 중단하라



김 준 형
산업1부
junior@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준공검사조차 마치지 않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러 안전불감증과 운영 미숙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조직위원회가 올해는 부대시설 확충과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고 저변 확대도 또 다시 실패했다. 조직위는 '티켓이 매진됐다'며 사전 붐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뒤로는 지방 공기업과 공공기관, 인근지역 입주기업에게 티켓을 강매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지자체와 조직위원회가 F1 티켓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어치를 강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흥행에 실패하면서 멍드는 것은 지방 재정이다.

최근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지난해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운영적자는 962억원이었다. 전남도가 2016년까지 7년간 대회를 치를 경우 재정부담액이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갖가지 운영손실액 역시 4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F1 개최를 위해 매년 지불해야하는 300억원이 넘는 개최권료 역시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됐다.

감사원이 전남도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상황에서 전남도는 경주장 인수를 위해 198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했다. 늘어나는 부담이 F1 개최는 물론 전라남도의 재정까지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다.

올해마저 흥행이 실패한다면 향후 대회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자체가 절박한 심정으로 티켓 강매에 나선 것으로 이해는 된다. 그러나 정확한 시장조사 없이 일단 벌이고 보자는 지자체의 한탕주의식 행사 유치가 지방재정을 거덜낸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민들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쏟아붓는 지자체의 행태가 더 이상 방치돼선 안된다.

노벨경제학상 심스·사전트 기자회견

"유로화 중앙 재정기구 만들어야"

재정·통화정책 조화
통합기구 없어 힘들어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크리스토퍼 심스(68) 프린스턴대 교수와 토머스 사전트(69) 뉴욕대 교수는 유로화의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심스와 사전트 교수는 10일(현지시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발표 이후 가진 프린스턴대 알렉산더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프린스턴대에 교환교수로 재직 중인 심스 교수는 "유럽경제통화연맹(EMU) 체제에서 만들어진 단일 통화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면서 "여러 나라에서 함께 사용하는 공동 통화는 중앙 재정기구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유로화는 중앙은행이 있지만 통일된 재정 기구가 없고 이는 흔치 않은 경우"라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가 필요할 때 의문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국의 재정위기를 겪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은 재정부담을 나누고 회원국 재정기구와 유럽중앙은행(ECB)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이러한 연결이 없어서 유로의 전망은 우울하다"고 덧붙였다. 사전트 교수는 "유로존의 문제는 조세권이 있는 연방정부와 중앙은행이 설립되기 전인 초기 미국에서 나타났던 문제를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1780년대 미국은 통화를 발행할 수 있었지만 세금은 올릴 수 없는 허약한 중앙 체제를 갖고 있었다"면서 "연방 정부에 세금을 올릴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주는 등의 헌법을 만든 이후부터 문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들 교수는 이날 스웨덴 왕립과학원으로부터 거시경제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 실증적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됐다. 사전트 교수는 한국은행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학회와 세미나에 자주 참석하는 '지한파'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상금 1000만스웨덴크로네(약 17억3000만원)을 나눠 갖게 된다.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사망일인 12월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도전받는 자본주의

▶1면서 계속

한국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미국과 상황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양극화, 취업난, 높은 대학 등록금, 전세난, 고공행진하는 물가 등 월가 분노의 근원인 '부의 소외'와 맞닿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한국 중산층의 구조적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비중이 1997년 74.1%에서 2010년에는 67.5%로 오히려 6.6%포인트 줄고 가계수지는 악화되는 등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와 무관한 안철수 교수의 갑작스런'안풍'(安風)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다. 사회 양극화와 실업대란 등 사회 현실의 불만이 안풍을 만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안 원장은 성공한 사업자임에도 대기업을 비판하며 산업 생태계를 강조하는 시장의 공정성을 강조했으며 젊은 세대의 좌절을 이해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대중들이 정치에 몸담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는 안 원장에게 환호한 것이 이 때문이다.

1% 부자를 위해 99%가 희생되는 분노와 좌절감은 곧바로 정치적 선택으로 표출된 것이다.

범야권통합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원순 변호사는 '안철수 바람'을 업고 한달 만에 야권 단일후보로 올라섰다.

내년 총선과 대선 정치일정을 앞두고 식지 않는 '안철수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현 자본주의가 직면한 모순들에 대한 변화의 요구의 목소리 때문으로 풀이된다.



"갤럭시S2론 계란프라이나 하라"… LG, 옵티머스 LTE 공개하며 선전포고

삼성-LG, 이번엔 휴대폰 화면 전쟁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LG전자 스마트폰 위에 버터를 올려놓는다. 20~30분 만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위에 있던 버터가 완전히 녹아내리자 "계란프라이를 하려면 AMOLED를 이용하라"는 자막이 나온다.

LG 측이 자사 IPS에 비해 삼성의 AMOLED 발열이 배 이상 높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10일 열린 LG전자 옵티머스 LTE폰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상영한 유튜브 동영상 내용이다.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전쟁이 TV에서 모바일로 옮겨 붙었다. 올초 3D TV 구현 방식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인 양사의 감정대립이 이번에도 재현되는 양상이다.

LG전자가 10일 연 '옵티머스 LTE폰' 발표 행사장은 휴대폰 출시 발표회라기 보다 디스플레이 비교전시장이 더 어울릴 법한 분위기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LG디스플레이 임원들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AMOLED와 옵티머스 LTE폰에 탑재된 자사 디스플레이(IPS 트루 HD) 비교에 열을 올렸다. 곳곳에 IPS와 AM OLED의 화질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블라인드 테스트 부스를 마련했고 삼성을 겨냥한 말을 쏟아냈다.

3D TV 이어 디스플레이 격돌 2라운드

IPS LCD 쓴 LG ▶ ◀ AMOLED 쓴 삼성

"해상도와 색 정확성 경쟁제품 압도한다"





"기술력 이미 입증 맞대응할 가치없다"

김원 LG디스플레이 모바일·OLED 상품기획1담당(상무)은 "디스플레이의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에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며 제조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실제 가치를 줘야지 바이럴로 왜곡된 가치를 전달하면 안된다"고 삼성 측을 겨냥했다.

김 상무는 "AMOLED는 전략마케팅으로 천문학적 비용을 쓰고 전달한 메시지는 그다지 의미가 크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우리가 경쟁사와 같은 전략을 쓰지 않는 이유이고,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 더욱 가치있는 지를 받아들인 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IPS LCD가 AMOLED처럼 대규모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진 않지만, LG디스플레이 고유의 가치가 고객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의 AMOLED가 펜타일(Pentile)방식을 이용해 화소 수를 부풀린 데 비해 IPS 트루 HD는 규칙적인 화소 배열을 사용해 실제 화소 수가 더 높다고도 주장했다.

또 사용자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해상도와 색 정확성 면에서 눈에 편한 디스플레이라는 평가와 함께 경쟁사 제품보다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는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차병원 임상미술치료학과 의과대학 주임교수 김선현 박사가 밝힌 "AMOLED의 과장된 색감은 청소년 정서에 치명적인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도 곁들였다.

이에 대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관계자는 "LGD가 AMOLED를 하다가 포기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할수 없이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AMOLED는 갤럭시S2는 물론, 노키아 스마트폰과 12월에 발표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비타에도 채용됐다"며 "이처럼 많은 제조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수성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감정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양사. 소비자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지에 따라 양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송영록 기자 syr@

온실가스 감축량도 할당 또 기업현실 무시한 官治

"선진국도 앞장서지 않는데…" 산업계 불만 목소리 높아

정부가 10일 내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세부 목표치를 제시한 데 대한 비난이 거세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정확한 합의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만 과도하게 앞서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만하는 등 또 다른 관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은 2020년 온실가스 30% 감축을 위해 내년 배출 허용량을 5억 9760만 톤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스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10개 대기업이 내년에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는 총 250만 톤. 전체 산업 부문 감축량(470만t)의 54.1%에 달한다. 기업별 감축량은 포스코가 96만3000 톤으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 42만9000 톤, LG디스플레이 32만7000 톤의 순이다.

특히 배출량이 많은 주요 업종의 대기업들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 환경부담까지 안게 돼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적인 철강업체 포스코의 연간 조강을 생산량은 3400만 톤. 이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국내 산업계 전체 배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포스코는 이날 정부의 발표에 대해 "폐열회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등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유업계의 감축 역량과 비교해 다소 과도하다"며 "선진국도 아직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한국 만큼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주 진행된 파나마 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은 포괄적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온실가스 의무감축 체제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단일한 법적 문서 채택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을 통한 선진국의 의무감축과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체제를 희망하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제조 공정상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시멘트 업체들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녹색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동조하면서도 배출량을 줄일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민 중이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불만이 적지않지만 가야할 길이라면 서둘러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리즈 테일러의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세기의 연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소장했던 보석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0일(현지시간) 언론에 공개됐다. 전남편인 리처드 버튼이 지난 1964년 그녀에게 결혼선물로 준 목걸이 가격은 최대 150만달러로 추정된다. 로스앤젤레스/AFP연합

유로존 불씨 아직 꺼지지 않았다

獨·佛 은행권구제 합의로 글로벌 증시는 훈풍
재정부담 가중·자금조달 이견 등 새 뇌관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은행권 구제 합의로 재정위기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가 고조됐지만 불안은 여전하다.

미국과 유럽증시는 10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 마련에 합의한 것을 호재로 급등했다.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은 전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달 말까지 유로존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의 부채 해결을 위한 견고한 구제 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그리스 내에서는 회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이날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 실사팀의 점검이 11일 종료될 전망"이라며 정상회의가 회원국 간 이견으로 23일로 연기된 것도 사태 해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헤르만 반 롬퍼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EU 정상들이 위기 극복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상회의를 오는 23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유로존은 그리스에 대한 6차분 구제금융 집행과 은행 자본확충의 윤곽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미래도 불확실하다. 몰타 의회가 이날 EFSF의 확대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유로존 17개국 가운데 슬로바키아의 승인만 남게 됐다.

슬로바키아에서는 반 유럽통합 성향의 연정 파트너인 '자유와연대(SaS)'가 EFSF 증액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슬로바키아 의회는 11일 EFSF 확대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유로존·IMF 등의 1차 구제금융 6회분인 80억유로(약 12조6740억원) 승인을 확신했다.

시장은 이달 EU 정상회의에서 은행권 자본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은행권에 직접 자금을 투입할 경우 유로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행권 자본확충에 따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 위기국들의 국채 손실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노무라증권의 존 피스 애널리스트는 "유럽 은행들의 자본재확충은 필수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라면서 "이탈리아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해 시장을 안심시키지 못하면 현재 재정위기 사태의 뇌관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7~18일 열릴 예정이던 EU 정정 정정 정정

富

〈3〉 그대 부자되고 싶은가

㉢ 노후 위한 재테크

사회 초년생 때부터 '재무설계'로 '100세 인생' 대비

유교의 창시자 공자(孔子)는 만년에 '위정편(爲政篇)'에서 50세는 지천명(知天命), 즉 하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한다고 말했다. 당나라의 시성(詩聖) 두보는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 古來稀)'라며 예로부터 사람이 70살을 살기는 드문 일이라고 노래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세에는 하늘의 뜻을 알기보다는 자신의 노후를 알아야 하고, 70세까지 사는 것은 이미 일반적이 됐다.



◇일할 나이는 줄어들고 수명은 길어지고 = 올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11 세계보건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평균 80세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의 기대수명인 79.4세보다 1년여 만에 0.6세 늘어난 것이다. 평균 수명은 이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기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이력서의 스펙을 위해 어학연수는 필수고 재취업자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회 초년생의 평균 나이가 늘어났다.

평균적으로 30~50세까지 직장생활을 한다면 이 기간동안 퇴직 후 노년생활을 준비할 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미리 노후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과거 70살까지 살기보다 더 힘겨운 남은 노년이 될 수 있다.

> 지출 줄이고 저축 늘리는 것이 '돈 모으기' 첫걸음
> 젊어서부터 다양한 상품 분산 투자로 노후 대비
> 정년의 덫에 빠지지 말고 제2의 직업 위한 투자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노후 준비 = 노후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돈'이다. 가능한 이른 시기에 종자돈을 마련해서 투자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가능한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은 재무설계에 대한 개념부터가 생소하다. 알고 있더라도 재무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외식, 여행, 쇼핑 등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명품과 유행 상품을 사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저축을 하고, 노후를 대비해 보험에 들지만 경우에 따라 중도해약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은퇴 후 필요자금을 3억원으로 보고 투자수익률을 6%로 가정해보자. 30세부터 노후자금을 모은다면 연 379만원을 저축하면 되지만, 40세부터 시작할 경우 연 816만원, 50세부터 시작하면 연 2276만원을 저축해야 한다.

이성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올바른 소비 습관으로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은 늘려야 하고 이때가 저축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가 돼야 한다"라며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급급한 젊은이들에게 은퇴 후 미래를 준비하라는 충고는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노후 준비를 늦출 수록 노후 생활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 유리 = 노후기간이 과거보다 30년 정도 늘어난 데다 금리가 연 4% 대로 낮기 때문에 적금 외에 물가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을 고려한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연금 등 보험상품을 기본으로 수익형 부동산과 펀드, 주식, 예금 순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기본적으로 6개월 분의 생활비를 수시 입·출금할 수 있는 CMA나 MMF 통장을 마련해 두자.

3년 이내 단기적인 재무 이벤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20~30%를 은행 예금이나 채권에 묶어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노후를 생각한다면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금융 자산의 20% 정도를 성장주 펀드 등 공격적인 투자 상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머니옥션의 강대호 투자관리본부장은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투자는 50대 이상 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연구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소득수준과 운용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40~50대에도 100세 준비 시작하라 = 영국 더 타임스가 세계 50대 경영 스승 가운데 한 명으로 꼽은 타마라 에릭슨 콘코스컨설팅 리서치헤드는 "은퇴를 은퇴시켜라"고 주문할 정도다.

그러나 한국 직장인들은 56세 정년의 덫에 갇혀 강제로 일자리를 떠나야 한다. 정년 퇴직 후에는 과거의 경력을 전혀 살릴 수 없는 허드렛일을 하며 개인으로서 자존감을 잃고 추락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선진국 기업들은 정년의 덫에 빠지지 않는다. 미국 기업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기업 경영에 위험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다.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은 "은퇴까지 얼마를 모아야 한다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며 "제2, 제3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자기 계발에 계속 투자하라"고 말했다. 계속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게 최고의 노후 대비책이라는 뜻이다.

이재현 기자 nfs0118@

■ 전문가가 전하는 '부자의 노년 대처법'



이정걸 KB국민은행 WM사업부 재테크팀장

> ① 작더라도 꾸준히 '나만의 일' 하며
> ② 임대형부동산 등으로 자산 재분배
> ③ 상속·증여 등 대물림 준비도 철저

최근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무설계'가 자산관리시장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부자들 역시 단순히 '부(富)'를 모으는 것에서 벗어나 어떻게 노년을 보낼 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부자들의 노년 대처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간 관리에 중점을 둔 자신의 일을 하고 △임대형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분배 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에 어떻게 부를 이전할 지 준비하는 시점이라고 꼽았다.

KB국민은행 이정걸 WM사업부 재테크팀장은 "50~60대까지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60대 이후에는 자신의 노년을 어떻게 보낼 지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기"라며 "부자들은 미리 은퇴시점을 예측하고 (은퇴 이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접근한다"고 말했다.

우선 부자들은 은퇴 이후에라도 자신의 일을 손에 쥐고 있다. 이는 부를 축적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건물관리 등과 같은 은퇴 이후 (상대적으로) 남는 시간을 보낼 자신 만의 일을 찾는다"면서 "00원장, 명예회장 등 직함을 유지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돈이 많아도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싫어한다"면서 "작은 일이라도 지속하면 돈 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자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해 노년을 대처한다. 60세 이후에는 모인 자금을 사용하면서 운용하는 시대라는 것. 이는 30~40대는 공격적 성향이 강해 자금을 확대하는데 집중하는 시기라면 50~60대는 공격적 성향을 유지하면서도 부동산 자산에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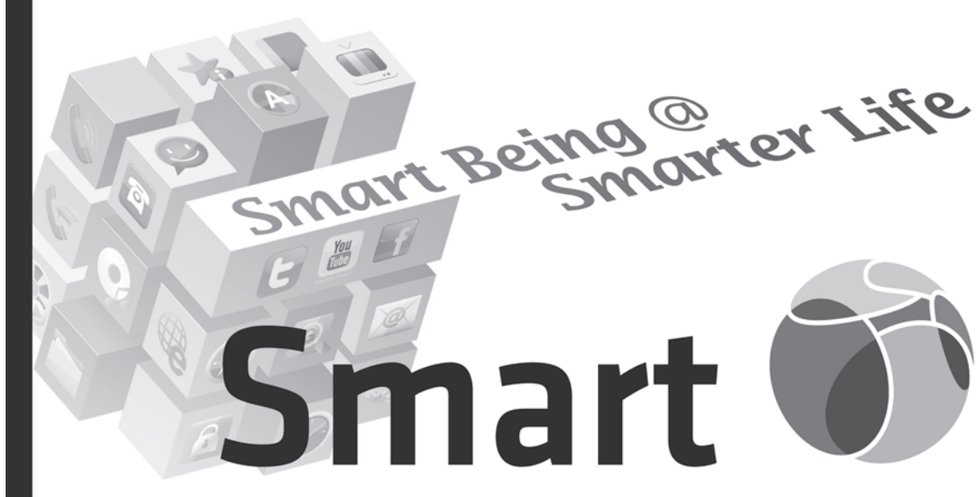
이 팀장은 "60대 이상의 부자들은 자산 포트폴리오 중 부동산의 비중이 높다"면서 "일정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임대형 부동산으로 많이 전환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도시 역세권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주 구매층이 50대 이상의 자산가들"이라며 "목돈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고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속 등 '부의 이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부자들이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이 팀장은 "(부자들은) 지금까지 돈을 모았다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에 부를 빨리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부의 이전에 대한 부자들의 고민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자들도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선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이 팀장은 "노년에 대처하기 위해선 전체 자산에서 투자자산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면서 "욕심을 버리고 은퇴시점, 성향 등의 변수에 맞춰 투자자산 등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주 기자 ahnkj@



Smart Content 2011
Awards & Conference

2011. 11. 2~3 / COEX

스마트콘텐츠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본 행사를 통해 우수 스마트콘텐츠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워드 공모 안내

공모마감 2011. 9. 29(목) 24:00 (GMT +9:00 Seoul)
공모대상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를 기반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모든 콘텐츠 (2011. 1. 1. 이후 출시)
공모방법 행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www.smartcontent2011.org)
수상혜택 분야별 상금 USD5,000, 트로피, 우승 앰블럼, 홍보 • 마케팅지원
문의사항 Smart Content 2011 Awards 사무국
02)3153-1483 / smartcontent2011@kocca.kr

공모분야 2개 부문, 7개 분야/ 각 분야별 1개씩 총 7개 콘텐츠 시상

부 문	선정분야	대상 콘텐츠	비 고
본 상	게임	게임	상용화 완료 (시장 출시) 콘텐츠 지원 가능
	엔터테인먼트	영상, 음악, 만화, 스포츠 등	
	인포메이션	공공 및 생활정보, 위치 및 교통정보, 뉴스, 검색 등	
	소셜네트워킹	SNS 등	
	에듀케이션	교육, e-book 등	
특별상	창의혁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활용하여 신규 시장을 창출한 콘텐츠	개발 완료된 콘텐츠 지원 가능
	스마트TV *	스마트TV 보급과 확산에 기여한 콘텐츠로 LG 스마트TV 출시를 전제로 해야 지원 가능	프로토타입(prototype) 수준으로 제출해야 함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주관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미디어파트너 SBS SBS CNBC 후원 LG전자 SK communications

안으론 '거품' 밖에선 '견제'…'新中華' 꽃 못 필 수도

팍스시니카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축복인가 재앙인가

1부 중국 버블을 막아라

2부 중화시대 긴급 점검

① 팍스시니카 시대, 어디까지 왔나
②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③ 성난 군중…경기 과열이 부른 위기
④ 변방의 절규…소수민족의 눈물
⑤ 기로에 선 중국 경제
⑥ 새로운 불씨…테크노 내셔널리즘
⑦ 끝없는 영토 야욕
⑧ 세계인의 지갑 노리는 위안화
⑨ 중국, 경쟁상대인가 동반자인가

3부 중국 경제 제대로 보자

4부 7대 신흥 전략산업

대중화(大中華) 제국이 주도하는 '팍스 시니카' 시대는 도래와 함께 종말을 고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국 자리에 오르면 중국 고유의 사상 체계인 중화사상을 앞세워 세계 질서의 재편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가 이어지면서 중국의 야망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앞서 1300년 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제국이 멸망한 이후 세계 패권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 세계는 로마가 지배한 '팍스 로마나'가 막을 내린 이래 영국 주도의 '팍스 브리태니카', 독일이 이끄는 '팍스 게르마니카' 시대를 겪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는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

세계는 지금 중국이 주도하는 팍스 시니카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은행의 전망대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2020년에 팍스 시니카가 정점을 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멸할 것만 같았던 로마제국도 정치·종교의 타락과 부패로 찬란한 역사의 막을 내렸다. 팍스 시니카 시대도 영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팍스 시니카 시대의 출발점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인 '선부론(先富論)'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선부론은 능력있는 자가 먼저 부자가 되고, 그 효과를 확대해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당시 질곡에 빠져있던 중국 경제를 일으켰고, 중국이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발돋움하는 근간이 됐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세계의 공장 역할에서 고성장에 힘입은 내수 증가로 중국은 세계의 시장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두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G2'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

덩샤오핑 '先富論'·2001년 WTO 가입
美 GDP 넘어설 2020년 '정점' 예상
세계경제 구원투수 역할 기대하지만
물가·부동산 등 산적한 문제에 시름

수위를 높였다. 미국이 글로벌 2강 체제를 의미하는 G2를 강조하는 것은 국제 무역, 국제 금융, 지구온난화 대책 등에서 중국에 책임있는 태도를 취하라는 의도가 강하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G2라는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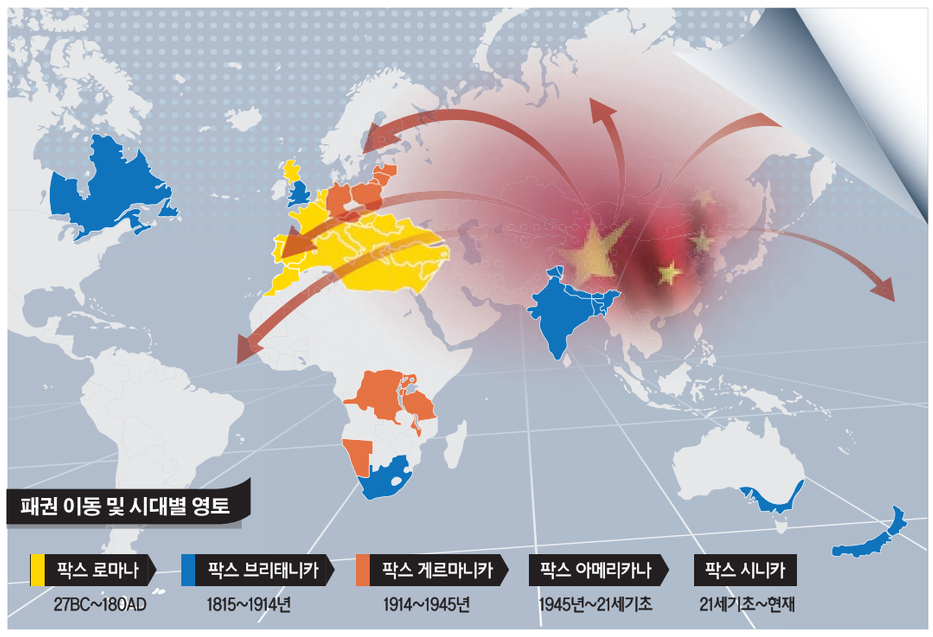
G2는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구체화하는 등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무역마찰이 심화하면서 양국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은 대량의 중국 제품이 자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불만이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겼고, 중국이 이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맞서고 있다. 미국은 수위를 더 높여 환율조작국 운운하며 위안화 절상도 요구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절하시켜 무역을 늘린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G2의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동안 세계 경제는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더블딥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기 당시 중국이 선진국의 침체를 막아냈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물가와 거품을 잡기 위해 긴축정책을 펼치는 중국에게 세계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은 버겁다.

전문가들은 자칫 팍스 시니카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기도 전에 중국 경제가 몰락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 일부 신중론자들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품이 일시에 꺼질 경우 중국이 세계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G1 리더십 없다" 국제사회 거센 비난

자원 식민지 야욕…환경파괴 일으키며 자국 이익 좇기

팍스 시니카 시대를 맞았지만 중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만한 리더십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중국발 자원전쟁을 주도하는 등 자국 이익 좇기에만 급급한 채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는 중국의 자원 식민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현재 수단 북부에서 이뤄지는 원유 채굴 프로젝트가 자원 식민지화의 대표적 예다. 이 프로젝트에는 중국인 노동자가 대거 투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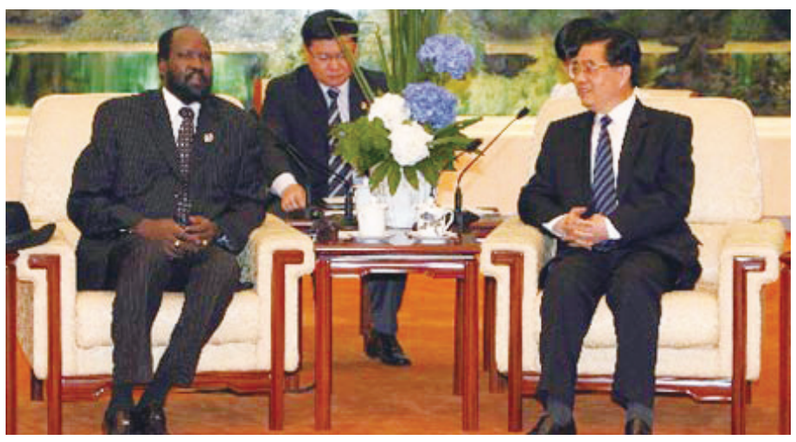
수단 서부 다르푸르 지방에서는 반정부조직과 정부 지원을 받은 아랍계 민병대 '장자위드'와의 내전이 한창이다. 민병대가 민간인까지 무차별 살상하면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중국은 석유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대량의 무기를 수단에 제공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비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말하지 않겠다"며 원조를 고수하고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적극적인 경제 원조를 약속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철도를 깔고 도로를 건설해, 대규모 농장을 만드는 등 선심성 지원으로 현지의 환심을 사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원조하는 프로젝트는 중국 기업들이 도맡고 있으며 현지인이 아닌 중국인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중국의 원조 프로젝트가 결국 현대판 자원 식민지라는 비난은 이래서 나온다.

중국은 환경 파괴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중국은 지난 2006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가가 됐다. 선진국들은 중국 정부에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게만 적용을 의무화한 것으로 자국에는 감축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07년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수단을 방문해 살바키르 마야르디트 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신화통신

'G2 기싸움'… 미국과 사사건건 마찰

美 국채 최대 보유국으로 위안 VS 달러 기축통화 다툼

세계 경제의 양대축인 미국과 중국은 다방면에서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달러를 밀어내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행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든 무역 결제는 현재 미국 달러로 통용되고 있지만 이것이 위안화로 실시되면 환율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반환된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이미 위안화가 통용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연합(ASEAN) 지역에선 2008년 12월부터 위안화 결제가 시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또 러시아, 몽골, 베트남, 미얀마 등 8개국과도 위안화 결제 협정을 맺는 등 위안화의 국제화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이기도 하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지난 2006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다. 2011년 6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3조1975억달러로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이는 1년 전보다 30.3% 늘어난 수준이다. 중국이 미 국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면서 미·중 관계는 한층 더 미묘해졌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고는 2011년 7월 현재 1조1700억달러로 사상 최고다.

미국 달러는 장기적으로 약세 경향에 있어 거액의 달러 기준 자산을 갖고 있으면 자산이 줄어들 위험을 안게 된다. 중국 입장에선 미 국채를 팔아 다른 통화 기준 자산으로 분산시켜야 하지만 미 국채를 팔면 미 국채 가격이 폭락,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가격도 폭락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된다. 미·중 관계가 악화해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손해를 무릅쓰고 매각하면 미국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협찬 : GS



연기금·기관자금 확충 외국인 투자 대항마 키워야

기로에 선 한국 경제
해법을 찾는다

⑬주권 잃은 국내 증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감에 국내증시가 '갈 지(之)'자 행보를 걷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경제공조 정책을 마련하며 사태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불안심리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국내 증시가 탄탄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 변수에 과도하게 휘둘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35%에 달하는 물량을 들고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증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들도 실제 지난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소식에 5조원이 넘는 한국기업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에 코스피지수의 8월 한달간 변동성은 2.69%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불안의 진원지인 미국(2.26%)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외풍에 국내증시가 취약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방형 시장과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 때문이라고 말한다. 외국인들의 '팔자'를 막아낼 만한 세력이 없다는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형주 중심 압축매매 패턴 보여= 2001년 이후 10년간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가총액 평균 보유비중은 35.6%를 기록하고 있다. 여타 신흥국이 평균 10% 후반대를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다. 한국 증시의 높은 수익률이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실제 2000년 이후 한국증시에서 외국인들의 1년 투자수익률은 15%, 2년 투자수익률은 31%에 달하는데 반해 인도, 홍콩, 브라질 등은 5~1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한국 증시에서 고수익을 얻은 만큼 경기불안감이 확산될 경우 제일 먼저 차익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인 코스피 시가총액 보유비중 36% 기록
개방형시장·수출주도형사업 대외악재에 민감
세제 혜택 통해 개인 장기투자자금 유인 필요



특히 외국인들은 주도주를 중심으로 압축매매한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했던 2003년 5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외국인들은 운수창고, 운수장비, 화학업종을 대거 사들였다. 2009년 4월부터 2011년 1월에는 운수장비, 운수창고, 기계, 전기전자업종에 대한 외국인 보유비중이 급증했다. 이익모멘텀과 주가 상승률이 높은 주도주를 압축해서 사들였던 것이다. 즉 순매도할 여지도 대형주에 쏠려있단 얘기다.

정유정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증시가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저평가·소외업종 매수를 하는 모습도 관찰됐기는 하나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은 주도·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수출주 중심의 산업구조도 주요인으로 꼽고 있다. 우리 경제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비중이 52%에 달할 만큼 수출주도형 체제를 갖추고 있어 세계경기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외시장 개방도가 높아 매매가 자유롭다는 점도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 증시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글로벌 기업, 유동성, 빠른 매매시스템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권영선 노무라금융투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경기 하방기에는 글로벌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좋아질 때는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 증시 안전판 마련 시급= 외국인의 힘을 규제로 무력화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내 기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황성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연기금이나 기관 자금을 확충해 하락장세를 방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학자금 펀드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개인의 장기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기관의 매수 역량을 강화시켜 외국인에 대한 수급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업계에서는 학자금펀드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추가 확대와 10년 이상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세제지원이라는 '당근'으로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해 증시 안정을 꾀하자는 계산에서다. 당초 이같은 업계의 요구에 시큰둥한 반응이었던 금융당국도 국내 증시 불안이 계속되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한 공식석상에서 외국인 비중이 과다한 탓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높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국내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연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국내 투자자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개인의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를 통해 학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동안 금융 당국이나 업계에서 장기펀드 세제 혜택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금융 당국 수장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금융 당국의 증시 자생력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기금 비중 확대와 펀드 자금 유입을 통한 간접투자 확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선현·문선영 기자 sunhyun@

운용사, 연기금 등 눈치보며 단기성 투자 조장

묻지마 투자 열풍에 증시 '피멍'

국내증시가 건전한 '투자'가 아닌 초단타에 집중한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내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는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들이 위탁운용사에 대한 단기평가로 단기 수익률게임을 조장하고 있고 개미투자자들도 '묻지마 투자'로 단기매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국내증시는 외국인투자자들에 허약한 모습을 보이며 '먹튀'를 당하는 사례도 허다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11월11일 장 마감 10분 전 도이치은행 창구로부터 2조4000억원 규모의 매물이 쏟아지며 코스피지수가 단숨에 53포인트 급락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물론 이 사건은 도이치뱅크의 시세차익을 노린 매물폭탄이 문제였지만 업계에서는 이 사건의 주 원인 중 하나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증권 거래세를 꼽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를 종료하고 주식을 사고팔때마다 매매자금의 0.3%의 거래세를 부과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관이 대거 빠져나간 프로그램 차익거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투자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위탁운용사에 대한 평가기간은 보통 3개월(분기평가) 혹은 6개월(반기평가)에 이뤄진다. 운용사들은 이들의 평가기간 동안 운용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최근과 같은 폭락장에서 투매를 일삼으며 증시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이자 국내 대형운용사들은 주식 편입비중을 5%포인트 내외로 모두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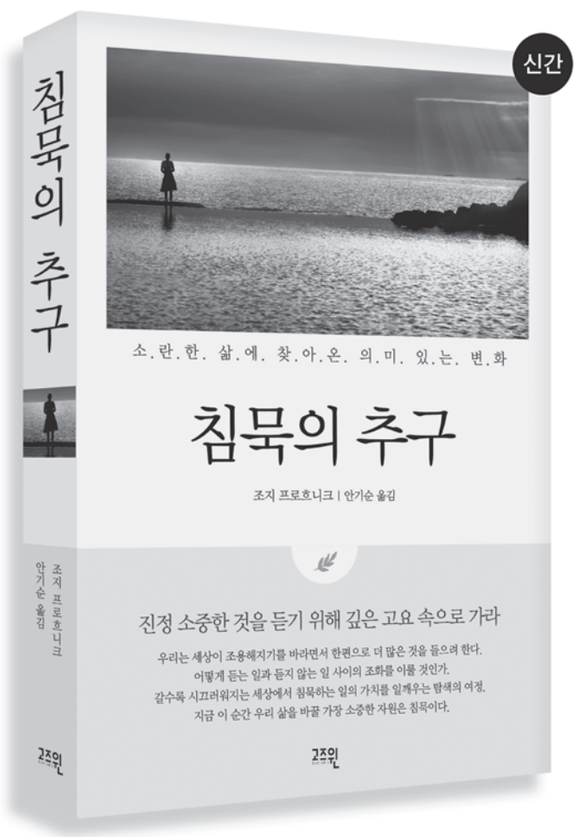
업계 한 관계자는 "몇몇 운용사가 수익률 관리를 위해 최근 급락장에서 대거 주식을 팔아 시장에 부담을 줬다"며 "이들 운용사들도 문제지만 연기금이 적어도 이들을 6개월마다 평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체 주식거래량을 상장주식수로 나눈 주식회전율 역시 최근 연중 최고치에 달하면서 단타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폭락장세가 나타났던 8월 한달간 일평균 상장주식 회전율은 27.77%로 작년 4월 이후 1년 6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관투자자는 물론 개인들도 최근 정치테마주와 같은 묻지마 투자열풍에 합류하고 있는 탓이다.

동부자산운용 기호삼 주식운용 본부장은 "운용사들이 자신들만의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연기금 등의 눈치를 보면서 단기성투자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건전한 장기 투자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기덕 기자 kiduk@

진정 소중한 것을 듣기 위해 깊은 고요 속으로 가라



소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의미를 듣자
불필요한 소음에서 벗어나 침묵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

우리는 세상이 조용해지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 더 많은 것을 들으려 한다.
어떻게 듣는 일과 듣지 않는 일 사이의 조화를 이룰 것인가.
갈수록 시끄러워지는 세상에서 침묵하는 일의 가치를 일깨우는 탐색의 여정.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을 바꿀 가장 소중한 자원은 침묵이다.

"지적인 책이다. … 침묵은 잠에 빠지는 데 좋다. 하지만 저자는 소음에 초점을 맞추어 독자를 활짝 깨어 있게 만든다." _퍼블리셔스 위클리
"우리가 일상에서 무시해 왔던 측면을 다루면서 현대인들이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_북리스트
"현대 생활의 소음에 대한 자세하고 유익한 연구이다." _뉴리퍼블릭
"명쾌하고 유려하다!" _뉴욕타임스

소란한 삶에 찾아온 의미 있는 변화

침묵의 추구

조지 프로흐니크 | 안기순 옮김 | 360쪽 | 13,800원

당신을 닮은 좋은책 고즈윈 TEL 02)325-5676

선진 IB와 합병·노하우 교류로 글로벌 IB 도약을

기로에 선 한국 경제 해법을 찾는다

⑭ 과당경쟁에 빠진 증권업계

증권업계가 글로벌 투자은행(IB)도약을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정부가 자본규모를 기준으로 신성장 동력인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운용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 되는 양상이다.



국내 증권사 해외 네트워크 부재로 제역할 못해
자금조달 능력 부족… 해외 IB와 경쟁서 뒤처져
정부, 헤지펀드 운용 허용 땐 규제완화 선행돼야

전문가들은 헤지펀드가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IB로 도약하기까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투자자들의 투자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계기관인 IB들이 주목받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증권사들은 글로벌IB에 한참 뒤져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영세성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그 자리를 해외 IB에게 내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IB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보니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투자자들도 금융자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있어 해외 투자처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이 경우에도 IB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네트워크와 경쟁력, 자본력 등이 취약하다보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용회 현대증권 IB본부장은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 뛰어드는 국내 증권사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외국계IB들과의 경쟁이 하루아침에 이뤄질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자본금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홍콩, 싱가폴 등에서 트랙레코드를 쌓은 후 단계를 밟아 준비하거나 노무라가 리먼브러더스의 유럽과 아시아 부문을 인수했듯이 글로벌 경험이 있는 선진IB들과 합병하거나 노하우를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무라는 국내 증권사보다 자본규모나 노하우면에서 앞서지만 글로벌 IB로 불리지는 않는다며 노무라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리먼을 인수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경완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헤지펀드 설립은 시장초기 단계에 해당하고 최소투자 한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을만한 트랙레코드 축적이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헤지펀드 전략 수행이 가능한 시장 요건 조성과 헤지펀드 운용관련 투자기법, 프라임브로커 산업 노하우 등 헤지펀드와 관련한 전반적인 자본시장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민 연구원은 또 "헤지펀드 성장과 정부규제 강도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시 정부의 헤지펀드 육성의지에 따른 규제 완화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증권사들의 자본확충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민경완 연구원은 "국내 증권사는 현재 자본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유휴자본이 많은 상황에서 대규모 증자까지 할 경우 자본효율성이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민 연구원은 "국내 증권사는 거래중개자(Agency)사업 모델에서 투자주체(Principal investor)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는데 정부는 PI부분을 양성하려는 목적이 커 보인다"며 "하지만 국내 증권사는 상품운용 등에서 리스크 테이킹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보성 실장은 "과거처럼 브로커리지 중심으로 운용된다면 증자는 낭비겠지만 업계와 정부의 지향점이 글로벌 IB이기 때문에 자본확충은 꼭 필요하다"며 "해외의 경우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는 자본규모 제한이 없음에도 대형사들의 과점시장일 정도로 IB업무는 돈이 없으면 참여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증자보다는 증권사들 간의 합병"이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그룹사 소속이다보니 합병요인이 없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희나 기자 hnoh@

금융당국 획일화된 규정·도 넘는 규제로
출혈경쟁 부추기고 다양성 해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획일화된 규정과 정량평가에 치우진 규제가 업계의 다양성을 해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투자회사간 차별화된 발전을 제한하고 과당경쟁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펀드판매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판매보수 제도인 이연판매보수(CDCS) 개선을 통해 펀드투자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CDCS는 투자자들의 투자비용 경감 및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다.

금감원에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CDCS를 적용하지 않은 펀드는 1% 이내에서 판매보수를 책정해야 하며 CDCS 적용펀드는 1.5% 이내에서 판매보수를 적용하되 매년 판매보수를 낮춰 3년차부터는 1%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맥락에서 정책방향이 흐르다보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국내 자산운용사 상무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일정 규모 이상, 일정기간 이상의 운용성과 등 획일화된 정량적 평가에만 치우치도록 돼 있다보니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도 사장되기 일쑤"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딜러들이 최근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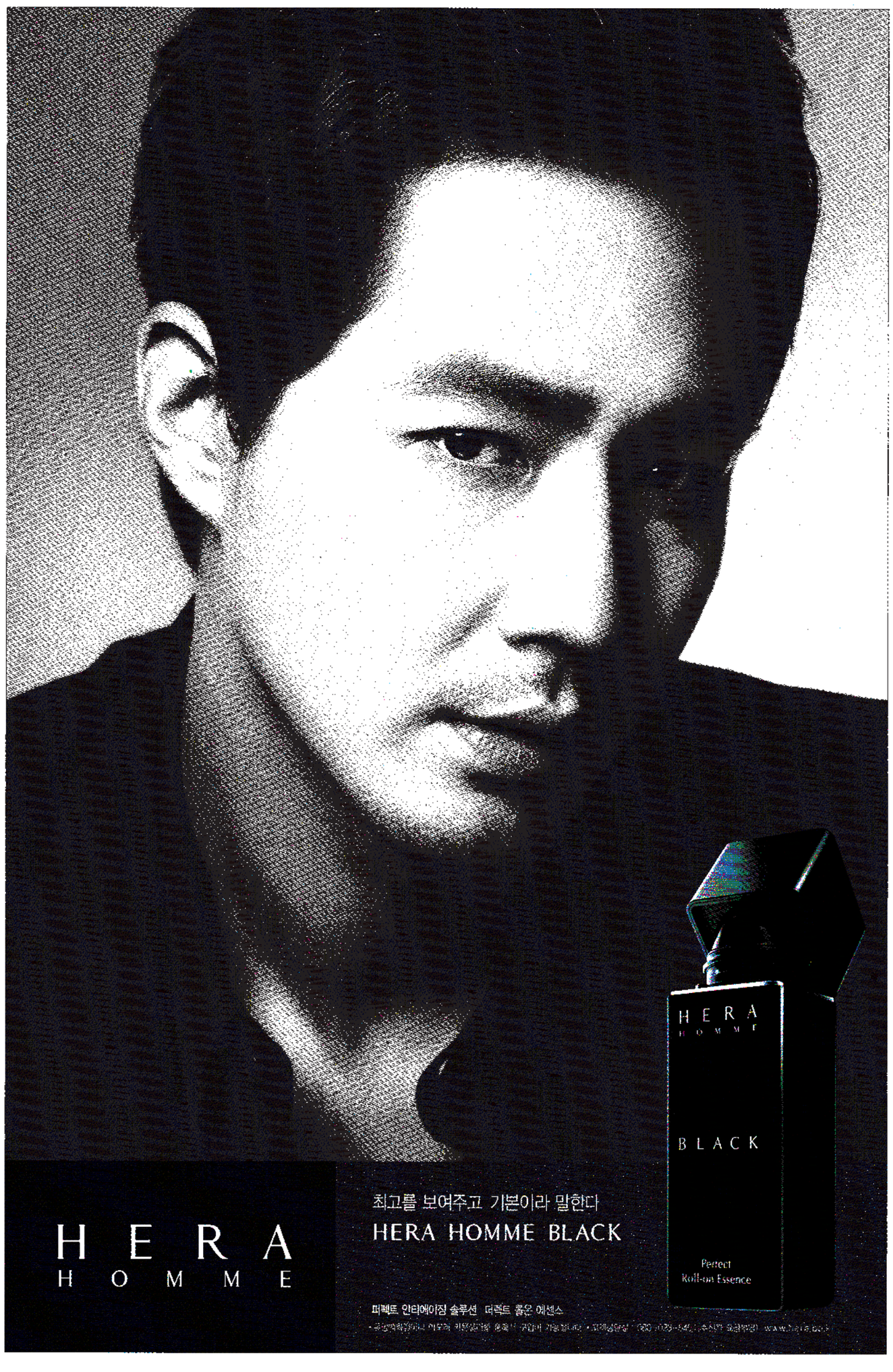
이어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밖에서 양적 잣대로만 평가하다보니 특히 신설사들의 경우에는 시장 진입의 기회조차 잡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형 증권사 리테일담당 임원은 "제한된 비용과 일률적 규제 안에서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점 때문에 국내에서는 특정 시장이나 상품에 대한 선점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경쟁도 치열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경쟁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자산운용사 고위 임원은 "투자자보호가 중요하지만 위험이 발생할 것 같다고 해서 무조건 다 틀어막자는 식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느 정도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이 최대한 보장되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보규 기자 jbk@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금융그룹

KB의 사랑은 가을에 더 짙게 물들어갑니다

가을이 오면 더욱 풍성해지는 KB국민은행에서
당신만의 더욱 특별한 가을을 만들어보세요



'첫 거래를 환영합니다'

KB국민은행 **신규거래** 고객

Welcome 이벤트

- 대상 : 2011년 6월말 현재 KB국민은행 계좌 미보유 고객
  2011년 6월 기준 월평균잔액 30만원 미만 고객
- 내용 : 대상고객 중 이벤트 응모 고객 전원에게
  금리우대쿠폰 제공 및 iPad2 등 경품 제공
- 기간 : 2011. 7. 18 ~ 11. 30

※경품응모 : 당행 홈페이지 응모 (11. 30 까지)

'평생사랑을 약속드립니다'

2011 KB 평생사랑

- 대상 : 30년 이상 거래고객 / 20년거래 도래 고객
  (대상 고객 중 KB스타클럽 또는 급여이체 고객)
- 내용 : 행사기간 내 대상상품 신규 시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 우대서비스 기간 : 2011. 9. 1 ~ 12. 31
- 경품행사 : 2011. 9.1~11.30 (상품 신규시 자동응모)

※경품 : 여행상품권 최대 500만원권 (3명)
Gift 카드 최대 10만원권 (100명) 등 총 218명

'가을, 정오의 문화산책~'

KB 국민은행 **문화 브런치** TICKET

- 내용 : 사커퍼포먼스〈하이킥〉 정오공연 티켓이
  전석 5천원
- 공연일시 : 10월 12, 19, 26일 / 11월 2일 수요일 12시
- 예매 : 2011. 9. 20(화)오픈 (문의:1577-3363)
- 장소 : 영등포 타임스퀘어 내 CGV 팝아트홀

'여기는 KB 안의 색다른 문화공간'

컬처인 KB
KB안의 특별한 문화공간

- KB국민은행 거래고객 대상 공연/영화 할인, 초대,
  매거진제공 등 온라인상 문화서비스 공간
- 만원의 초대, 이만원의 행복, 우수고객특별할인,
  이달의 추천영화, 무료초대이벤트 등
- 웹주소 : kbculture.clipservice.co.kr

※ 상기 경품행사의 제세공과금은 당행이 부담합니다.
※ 본 이벤트 및 행사는 KB국민은행 및 제휴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창구직원 또는 콜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807호 (2011.9.28)

KB 국민은행

■ 국회 한미FTA 이달 비준 가능할까

與野 내부조율 안돼 '오락가락'

한나라, 18일 외통위·28일 본회의 처리 목표

민주 "강행처리땐 물리적 대응도 불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중대 기로에 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처음으로 국회에 협조를 공식 요청한데 이어 미 의회가 12일 처리키로 하면서 우리 국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당장은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다만 이런 와중에도 여야 모두 당내 온건-강경파가 맞서며 주장이 엇갈려 내부 교통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나라당은 외통위에 계류 중인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 13일 전체회의 논의를 시작으로 14일과 17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8일 상임위 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어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상임위 차원의 구체적 일정을 짜놨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미 FTA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일정이 빠듯하다"고 밝혔다.

반면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런 일정은 유기준 개인 의원의 주장일 뿐"이라며 "조속히 처리해야 한는 건 맞지만 야당과의 협상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해야지 날짜를 미리 못 박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10+2 재재협상안'을 요구한 민주당 사정도 마찬가지다. 손학규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 등은 무조건 반대보다는 다소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미 의회가 우선 처리할 경우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반해 정동영 최고위원 등 비주류 측에선 '노선갈등'까지 촉발시키며 한미 FTA의 '전면적 재협상'을 요구 중이다.

양당 논의 테이블의 창구단일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비준안 자체는 외통위가 처리하지만 여야 합의로 구성한 '여야정 합의체'가 별도로 가동 중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까지 제안했다.

한미 FTA 피해대책과 관련해 일부 중재안이 제시되는 등 협상이 진척되는 듯 보이면서도 난항이 거듭되는 배경에는 이 같은 오락가락 행보도 한 몫 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야당의 재재협상안 항목 10개 중 3개에 대해선 우회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 무효화 등에 대해선 미 정부에 서한협조를 검토하고,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으로 예산이나 기금마련책도 제시를 검토 중이다. 국내 문제로 통상절차법 제정과 무역조정지원 제도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대안을 들고 온 적이 없다"며 공식제안을 먼저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처리할 경우 물리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미FTA 전면 무효를 주장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미 물리적 대응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만약 물리력을 동원하려 한다면 국회가 허용하는 절차를 통해 단호히 막겠다"고 강력대응을 천명, 여야간 대규모 충돌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의중 기자 zerg@



"선거지원 합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연락이 와 상의했다" 면서 10·26 재보선 지원과 관련해 "(선거운동) 첫날에는 서울에 가고, (이후에) 지방도 가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책 돋보기 민주당 조경태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전기료 폭탄 없게 누진단계 축소

지난 9월15일 우리는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늦더위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과 발전소 정비로 인한 전력공급 능력 감소에 따른 전력수급 조절에 실패한 것이 주 원인이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그동안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많이 올리지 못했던 전기요금이 다시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전력수요를 감소시키고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한전의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싸다.

특히 전체 전력사용량의 54%나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우리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도 많이 싸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일수록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의 공장이나



시설까지 국내에 들어와 값싼 전기요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전체 전력사용량의 15%인 주택용 전기요금은 다른 요금제와 달리 전기사용량에 따라 1~6단계의 누진제로 운영되고 누진제를 적용하면 국제적으로 싼 편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1kWh당 1단계와 6단계의 차이는 무려 11배에 이른다.

단계별 누진요금제를 적용하면 특히 혹한기나 혹서기에 난방용 전기제품이나 에어컨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전기사용량에 추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다음단계의 누진요금을 적용받게 되면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실제 사례로 일반적인 가정에서 월 300KWh 정도의 전력을 소비하면 이때 전력요금은 월 4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만약 100KWh의 전력을 더 쓰게 되면 누진제 때문에 전력요금은 7만원대로 껑충 뛰어 오른다.

당초 이런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었던 배경은 과거 개발경제체제에서 부족한 전기에너지를 산업용으로 더 많이 배분하고 가정용 소비는 억제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사상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에게 아직도 원가이하로 전기를 공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지난 4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택용에 적용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6단계 누진단계의 전기요금을 3단계로 낮추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더라도 일반 국민에게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李대통령, 오늘 미국 국빈 방문

오바마와 10시간 이상 대화



이 명 박 〈사진〉 대통령은 11일 국빈 자격으로 엿새간의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FTA 비준과 대북문제 등 동북아 정세 전반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굳건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국 정상은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포함, 10시간 이상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이를 통한 양국 동맹 강화를 역설할 예정이다. 앞서 12일 미 상원은 한미 FTA를 처리한다.

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3년 만이며 역대 5번째다. 합동연설 직후엔 미 유력 정·재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14일 자동차 산업의 본산인 디트로이트를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길엔 오바마 미 대통령도 동행한다. 특히 양 정상은 이 자리에서 한미 FTA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양국 경제 이익에 대해 간단한 연설을 진행한다.

이어 시카고로 이동, 랍 이매뉴얼 시장 주최의 경제인 만찬 간담회, 동포 간담회에 각각 참석한 뒤 16일 귀국길에 오른다.

김기성 기자 kisung0123@

측근비리·시장후보 자질 비판

대정부질문 첫날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열었다.

대정부 질문 첫날인 이날 여야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해 집중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권력화 문제, 박원순 야권단일후보의 병역의혹 등을 적극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나경원 후보 및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최근 불거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건립용 내곡동 부지 매입의 적절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른바 '안철수 돌풍'으로 나타난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시민단체의 정치 참여에 대한 발언도 쏟아졌다.

이밖에 여야는 남북정상회담, 중수부 폐지 및 특별수사청 설치 등에 대해 관련 부처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이성규 기자 sklee@

김진표 "측근비리 밝힐 것"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이날 열릴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 낙하산 인사 등 국정의 난맥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오늘 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데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 때문에 대정부 질문 일정이 8월 20일 여야 합의에서 변경됐다"며 "이 정부는 가능하면 국회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성규 기자 sklee@

선진당·국중련 통합 마무리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이 10일 통합을 마무리했다.

양당은 이날 수임기구 합동회의를 열어 양당간 신설합당 방식의 통합을 공식 의결하고 중앙선관위에 합당 신고를 했다.

통합정당의 명칭은 '자유선진당'이며 당 대표엔 심대평 국중련 대표가 추대됐다.

최고위원에는 변웅전, 이진삼, 류근찬, 권선택, 이흥주, 황인자 의원을 선출했다. 또 무소속 이인제 의원도 이날 선진당에 입당, 충청권 맹주로서의 도약에 힘을 보탰다. 교섭단체 요건에 2석이 모자라는 18석이다.

전당대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기를 조율키로 한 가운데 내년 총선 이후가 유력시된다.

새 통합정당을 이끌 신임 지도부는 11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최고위원·주요 당직자 연석회의를 열어 당무에 돌입했다.

김기성 기자 kisung0123@

글로벌 FTTH 광통신 솔루션 기업
Optical Closure, Optical Connectivity Solution, Optical Passive Device, Optical Distribution Solution
빛으로 여는 세상
빛으로 통하는 마음
㈜씨티네트웍스 가 함께 합니다.
ctnetworks

중국도 대형銀 살리기 나섰다

공상銀 등 4대은행 주가 평균 25% 하락
CIC 금융위기 이후 3년 만에 공개 매입

중국이 대형은행 살리기에 나섰다. 주요 은행의 주식 매입을 통해서다.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의 투자 전문 자회사인 중앙회금투자공사는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뱅크오브차이나(BoC), 농업은행 등 중국 4대은행 주식을 중국과 홍콩증시에서 매입했으며 지분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은행주 매입에 나선 것은 긴축정책으로 인한 경기둔화, 지방정부 대출에 대한 부실채권화 우려 등으로 특히 은행주가 올 들어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BoC와 농업은행의 최근 주가는 기업공개(IPO) 당시 공모가를 밑도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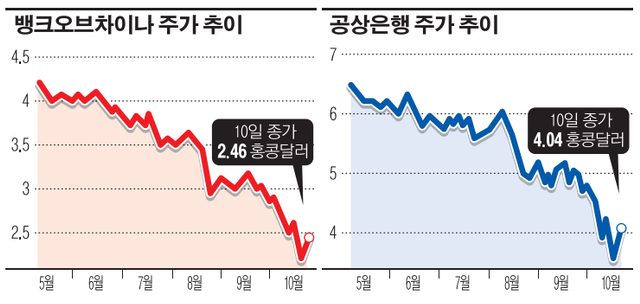
홍콩증시에서 중국 4대 은행 평균 주가는 지난달 초 이후 평균 25% 하락했다.

중앙회금투자공사가 시장에 개입한 것은 3년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공사는 주식매입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주요 국영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은 물론 이들 은행의 주가 안정을 지원하는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시장도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발표는 홍콩증시 마감을 1시간도 채 안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뤄졌으며 이들 은행의 주가는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다 막판에 수직 상승하면서 마감했다.

공상은행 주가는 장중 3.85 홍콩달러까지 떨어졌으나 막판 매수세 유입으로 전일보다 1.0% 오른 4.04 홍콩달러로 장을 마쳤다.



BoC 주가는 장중 2.37 홍콩달러까지 하락한 뒤 2.1% 급등한 2.46 홍콩달러로 반등하며 마감했다.

건설은행이 0.2%, 농업은행은 1.9% 각각 상승했다.

홍콩증시 항셍지수도 금융주의 반등에 힘입어 장중 1.5% 이상 하락했다가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산제이 자인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는 (은행권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면서 "이들 은행의 가치는 매우 떨어진 상태이나 전략적인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수준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 대한 신중론도 여전하다. 션인왕궈증권의 우다중 애널리스트는 "대형은행 주식을 매입한다고 해서 최근 수개월간 이어진 은행주 약세의 근본 원인이 해결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MF글로벌의 스티븐 챈 애널리스트는 앞서 지난 8일 부실대출의 증가 가능성과 유럽 재정위기 위험 노출로 인한 손실 등을 이유로 중국 은행주 투자의견을 종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이집트 기독교도 유혈시위…24명 사망 이집트 콥트교도들이 11일(현지시간) 카이로에서 유혈사태 사망자들의 관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콥트교 교회의 방화로 불거진 이번 시위로 9일에만 최소 24명이 사망했다. 카이로/AFP연합뉴스

경기침체에도 럭셔리車는 '쌩쌩'

BMW 등 3분기 판매 증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도 럭셔리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9월 판매는 증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의 BMW·다임러·폭스바겐은 지난 9월 마감한 3분기에 판매 증가에 힘입어 탄탄한 순익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안 로버슨 BMW 세일즈마케팅 총괄사장은 이날 "우리는 전세계 판매 증가에 힘입어 9월 최고 판매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BMW의 9월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해 12만8446대를 기록했다.

아우디 역시 이날 "아우디는 중국 수요 증가로 9월 총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해 12만200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임러의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주 9월 판매가 12만982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정은 기자 Hailey.jeoungeun@

최대 곡물업체 카길 순이익 66%↓

1분기 2억3600만달러 기록

글로벌 불확실성에 세계 최대 곡물 거래업체 카길의 순이익이 대폭 줄었다.

카길은 10일(현지시간) 지난 8월 마감한 회계 1분기 순익이 전년 대비 66% 급감한 2억36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카길 대변인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둔화 등 거시경제 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자재 시장에서 자본이 유출됨에 따라 순익이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 양측의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헤지펀드그룹 블랙리버에셋매니지먼트 등 카길의 리스크 관리 및 금융 담당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기간 매출은 346억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34% 늘었다. 카길의 전분기 순익은 42억4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美 은퇴 후 최고 직업 '톱10'

연봉 4만달러 '보조금 코디네이터' 1위

개인 트레이너 2위·에너지 측정사 3위

미국에서 50대 이후 최고의 직업으로 1위에 보조금 코디네이터가 올랐다.

보조금 코디네이터는 개인 만족도와 스트레스·직업의 유연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CNN머니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 경제 불안한 상황에서 보조금 코디네이터는 1500만 이상의 기관들이 의존하고 있는 직업으로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학교와 정부기관 등 비영리단체의 보조금을 조정하는 보조금 코디네이터의 보수는 연 4만7800달러(약 4740만원) 정도다.

개인 트레이너는 2위, 에너지 측정사는 3위를 기록했다. 개인 트레이너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추천되는 직업으로 전문 트레이닝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에너지 측정사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에너지 비용을 삭감하려는 대중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마케터가 4위, 5위에는 개인교사, 6위에는 검색엔진최적화(SEO)전문가가 선정됐다.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가 인기를 얻으면서 온라인 콘텐츠 마케팅의 인기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정에서 아이를 1대1 방식으로 가르치는 개인 교사에 대한 수요는 자녀 교육 열풍과 함께 늘고있다.

SEO전문가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2억5000만개가 넘는 웹사이트를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한다.

필라테스·요가 강사는 7위, 마케팅 책임자는 8위를 차지했다.

테크니컬라이터가 9위, 보건 교육사가 10위에 올랐다. 테크니컬라이터는 인터넷이 성장하면서 고소득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테크니컬라이터는 정보기술(IT) 등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기술을 습득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직업이다.

보건교육사는 학교부터 대중, 개인단체까지 보건에 관한 교육을 전담한다.

조정은 기자 Hailey.jeoungeun@

은퇴 후 최고 직업 '톱10'

직업	연봉	10년 뒤 고용증가율
보조금 코디네이터	4만7800달러	12%
개인 트레이너	5만2600달러	29%
에너지측정사	4만1200달러	12%
온라인콘텐츠마케팅	5만1900달러	13%
개인 교사	5만2400달러	15%
SEO전문가	5만2100달러	13%
필라테스·요가강사	6만2400달러	29%
마케팅 책임자	5만2500달러	7%
테크리컬라이터	6만8100달러	18%
보건교육사	6만3300달러	18%

日 편의점도 프리미엄 바람

세븐일레븐·로손 등 PB상품 고급화로 소비자 유혹

일본의 편의점업계에 프리미엄 바람이 불고 있다.

일본 편의점들이 저가·저질로 인식되던 자체상표(PB) 제품을 고급화해 까다로운 일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편의점 업계 1, 2위인 세븐일레븐과 로손은 프리미엄 비프카레와 햄버거 등 3개 PB 제품으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작년 9월 세븐일레븐이 선보인 제품이 좋은 반응을 보이자 로손과 패미리마트까지 프리미엄 전략에 나섰다고 신문은 전했다.

닛케이산업지역연구소가 지난 달 중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PB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맛과 영향을 고루 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븐일레븐과 로손의 프리미엄 비프카레 가격은 1인분에 각각 348엔과 358엔으로, 일반 PB 제품의 2배 수준.

닛케이 조사에서는 이들 편의점의 프리미엄 제품을 사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맛있어서'라는 응답률이 80%대에 이르렀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세븐앤아이그룹은 "전문점 수준의 맛을 내는 데 비해 적당한 가격이 비결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들 제품의 맛은 고급 슈퍼마켓·백화점 슈퍼마켓과 같은 수준임에도 5~20% 싼 가격에 내놔 직장에 다니는 주부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독신세대가 많아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조리된 식품을 사는 사람이 많다.

특히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PB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닛케이의 6월 조사에서는 "유명 브랜드 제품에 비해 싸니까"라는 응답률이 80%를 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PB 제품이어도 독특한 매력이 있으면 유명 브랜드 제품보다 비싸도 된다"는 응답률이 40%대에 이르러 소비자들의 달라진 인식을 반영했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수렴해 프리미엄 PB 제품을 주력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편의점 업계 전반에 확산돼 프리미엄 PB 제품이 대세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배수경 기자 sue6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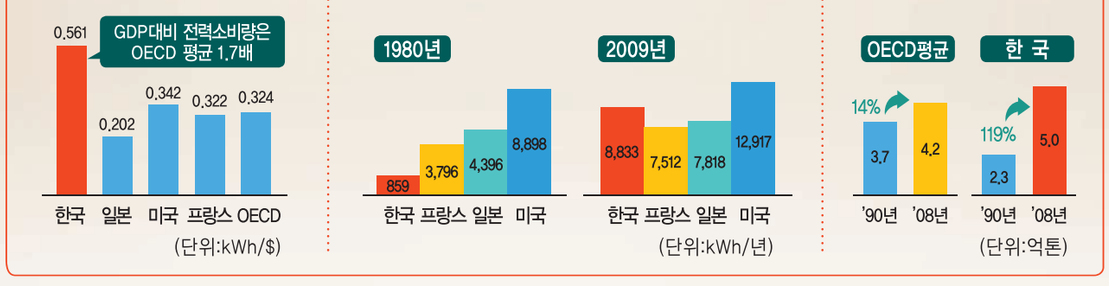


50th
국민과 함께한 50년, 세계로 향하는 KEPCO

전기에너지 절약
녹색성장의 시작입니다

전기는 수입되는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만드는 비싼 에너지입니다.
불필요한 전력 소비는 연료 수입을 증가시키며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집니다.
전기절약과 녹색성장,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소비의 진실



한국전력 KEPCO

유화업계, PX가격 폭등에 '함박웃음'

〈화학섬유 원료〉

작년 7월보다 114% 올라… 中·印 수요 증가 예상
에쓰오일 지난 6월 세계 최대 PX공장 가동 수혜
SK종합화학·삼성토탈 등도 공장 증설 검토 중



에쓰오일이 지난 6월 본격 가동한 '제2 아로마틱 콤플렉스'. 이로써 에쓰오일은 연간 160만톤의 파라자일렌(PX)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화학섬유 원료인 파라자일렌(PX) 가격 상승으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이달 들어 가격 상승폭이 다소 주춤한 상태지만 장기적인 수요 증가가 전망되면서 일부 업체는 PX공장 증설까지 검토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톤당 700달러 초반 수준이던 PX가격이 올해 7월부터 급등하더니 이달 초 1500달러대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평균가 1675달러에 비하면 다소 하락했지만 지난해 7월에 비해 약 114%가 오른 셈이다.

PX는 화학섬유를 만드는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제조와 물을 담는 페트병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기초원료다. 원유를 정제해 나오는 납사를 통해 생산된다.

국내에서는 에쓰오일이 연산 160만톤으로 생산능력 1위 업체며, GS칼텍스가 120만톤으로 뒤를 잇고 있다. 또 삼성토탈이 80만톤, SK종합화학이 75만8000톤의 PX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특히 에쓰오일은 지난 6월 초 단일공장 세계 최대 규모의 PX를 생산할 수 있는 '제2 아로마틱 콤플렉스'를 본격 가동하면서 그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PX가격이 보합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선 게 지난 7월부터 임을 감안하면 가동 시점이 적절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지난 2007년 프로젝트 기획 단계서부터 PX가격 상승 전망에 대해 철저히 분석했다"며 "이를 통한 제2 아로마틱 콤플렉스의 시기적절한 증설로 최근 PX호황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업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SK종합화학은 일본 JX에너지와 조인트벤처 형태로 울산에 100만톤 규모의 PX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총 1조원이 투자되며 오는 2013년 완공 예정이다.

삼성토탈도 최근 충남 대산에 연산 100만톤 규모의 PX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토탈은 총 2조원을 투자, 2012년 3월 착공해 2014년 9월 완공한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삼성토탈 관계자는 "PX공장 증설에 대해 검토 단계일 뿐 확실하게 정해진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화업체의 PX 영업마진은 2분기 기준 톤당 500달러 수준이었으나 최근 가격 상승에 힘입어 3분기엔 70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PX생산업체인 에쓰오일의 경우 PX 영업마진이 100달러 오르면 연간 1700억원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의 PX가격 상승은 지난해 이상기후로 면화 주요 생산지인 중앙아시아 지역의 생산량이 크게 줄고, 파키스탄과 인도에서도 면화 공급에 차질을 빚어 화학섬유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PX공급이 급감한 이유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인도의 화학섬유 수요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인 PX수요 증가가 전망된다"며 "하지만 최근의 환율 상승과 유럽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PX가격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LG U+ LTE전용 요금제 최대 150분 1GB 더 준다

SKT보다 음성통화·데이터 늘려… 무제한은 폐지

LG유플러스가 4세대(G) LTE(롱텀에볼루션) 스마트폰 요금제를 공개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SK텔레콤의 LTE 요금제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같은 가격에 좀 더 많은 음성통화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폐지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3만4000~12만원대로 구성된 총 8종류의 LTE 요금제를 발표했다. 이 요금제는 월 기본료 3만4000~12만원을 내면 음성통화 160~1500분, 데이터 이용량 500MB~13GB를 기본 제공한다. 이는 SK텔레콤의 LTE 요금제와 월 기본료는 똑같지만 음성통화의 경우 20~150분, 데이터 이용량 150MB~1GB를 더 주는 셈이다.

LG유플러스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제외된 데 따른 조치로 'LTE 안심 옵션'를 도입했다. 월정액 9000원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면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초과해도 웹서핑, 이메일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파격적인 할인서비스를 함께 내놨다. 내년 2월까지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3만원의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데이터를 1.5배 더 준다.

LG U+ LTE폰 요금제

요금제명	기본료	음 성	문 자	데이터
LTE34	3만4000원	160분	200건	500MB
LTE42	4만2000원	200분	200건	1GB
LTE52	5만2000원	250분	250건	1.5GB
LTE62	6만2000원	350분	350건	4GB
LTE72	7만2000원	500분	450건	6GB
LTE85	8만5000원	700분	650건	8GB
LTE100	10만원	1200분	1000건	11GB
LTE120	12만원	1500분	1000건	13GB

또 데이터 추가 사용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원래 요금보다 70% 싼 KB당 0.015원의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영상통화 역시 40%를 할인해 준다.

특히 월정액 6만2000원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안심옵션을 무료로 가입시켜 주고 내년 2월까지인 프로모션 기간에 한해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LTE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매할 경우 비용 부담을 최소하기 위해 요금제에 따라 월 7000~2만4000원의 요금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LTE 요금제가 확정됨에 따라 전국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10월 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 6대 광역시에서 LTE 서비스를 확대 개시한다.

안철우 기자 acw@

르노삼성 디자인총괄 알랭 로네 상무 임명



르노삼성자동차는 디자인총괄 담당자로 알랭 로네(Alain Lonay·사진) 상무를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로네 상무는 지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닛산 유럽 기술센터 디자인 스튜디오 총괄을 역임한 후 2000년 9월 르노그룹에 합류했으며 이후 11년 동안 파리와 루마니아에서 QM5, 로간 등 글로벌 디자인 프로젝트를 지휘했다. 이 기간 중 르노의 라구나, 트윙고, 트래픽 등 10여종의 디자인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9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전기 컨셉트카'프렌지'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큰 찬사를 받았다.

김준형 기자 junior@



'갤럭시S 2' 유럽 휴대폰 어워드 6관왕 싹쓸이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 2'가 유럽의 휴대폰 어워드에서 '올해의 휴대폰' 등 5개 부문을 휩쓸었다. 삼성전자는 11일 영국 IT전문매체 모바일 초이스가 선정한 '모바일 초이스 컨슈머 어워드 2011'에서 갤럭시S 2가 10개 부문 중 5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갤럭시S 2는 '올해의 휴대폰'을 수상한 것은 물론 '베스트 안드로이드폰' '베스트 비디오폰' '베스트 카메라폰' '베스트 미디어폰'을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또 '올해의 휴대폰 제조사'로도 선정돼 총 6관왕에 올랐다. 삼성전자 영국법인 관계자들이 7일(현지시각) 런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STX그룹 印尼 석탄광 개발 속도

연간 500만톤 규모로 확대

STX그룹이 인도네시아 석탄광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STX는 인도네시아 낀탑 광산에서 지난 3분기 총 100만톤에 달하는 유연탄을 생산했으며 오는 2013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500만톤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김대유 STX 사업부문 사장은 최근 현지에서의 첫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낀탑 광산의 추가적인 개발·투자를 통해 현재 연간 180만톤 규모의 유연탄 생산량을 500만톤 이상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STX는 이를 통해 낀탑 광산에서만 내년 2억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TX는 올 초 3000만달러를 투자해 IAC(PT Indoasia Cemerlang)로부터 인도네시아 남부 칼리만탄 낀탑 지역의 석탄광 지분 40%와 판매·운영 독점권을 인수했다. 낀탑 광산의 초기 단계 개발·투자를 통해 현재 190만m2 규모의 광산에서 유연탄을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말 추가로 710만m2의 탐사를 마친 상태다. 내년부터는 총 900만m2 규모의 광산에서 생산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STX는 내년 낀탑 광산에서 월 40만톤 이상의 유연탄을 생산하게 되며 내년 말 현지의 석탄 선적시설이 완공되면 주변 광산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해 오는 2013년 연간 생산량을 50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게 된다.

STX는 석탄 무역 사업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내년 말 이후 연간 총 800만톤 이상의 유연탄을 트레이딩하게 되며 석탄사업 관련 매출규모는 6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된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STX가 투자한 낀탑 석탄광은 현재 생산중인 190만m2에서만 확정매장량이 최소 2000만톤"이라며 "STX가 올해 말 추가 개발 예정인 710만m2 광산에서는 6000~7000만톤 이상의 매장량이 예상돼 15년 이상의 장기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뉴스브리핑

LS산전, 전기車 충전기 인증 획득

LS산전은 전기자동차 완속 교류충전기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전기용품안전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전기차 충전기 중 인증을 받은 것은 LS산전 제품이 처음이다.

이 인증은 정격전류를 연결했을 때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으로, 충전기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증이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완속 충전기는 가격이 급속충전기의 6분의 1 수준이며, 부피가 작아 주택이나 빌딩 인근에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LS산전은 지난 7월 기술표준원이 전기차 충전기를 전기용품안전기준 제품으로 고시한 직후 인증시험을 신청, 2개월여 만에 인증을 획득했다.

효성, 기업 블로그 통해 책나눔 이벤트

효성은 오는 30일까지 기업 블로그인 '마이프렌드 효성(www.hyosungblog.com)'을 통해 책을 선물·기증하는 이벤트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마이프렌드 효성에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이름과 이유를 남기면 30명을 선정해 해당 책 2권을 선물한다.

또 당첨되지 않은 참가자 100명을 뽑아 기프티콘을 주는 경품 행사도 마련했다.

효성은 '사랑의 책 나눔' 행사도 벌여 기업 블로그와 사내게시판을 통해 책을 기증받고, 기증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도서상품권을 제공한다. 기증받은 책은 어린이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며, 일부는 사내 경매로 판매해 연말 이웃돕기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허리띠 조인 대기업 "판매관리비도 줄였다"

CXO연구소 조사 100대 상장사 3곳중 2곳 감소 긴축경영

올 상반기 국내 100대 상장사 3곳 중 2곳이 판매관리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본비용인 판관비를 최소화한다는 의미로, 긴축경영을 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기업분석기관인 한국CXO연구소는 매출액순 국내 100대 상장사(금융사 제외)의 올 상반기 판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64개 기업이 작년 동기에 비해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관비는 인건비, 광고비, 전산운영비, 임차료, 접대비 등 기업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매출총액에서 판관비를 제외하면 통상 영업이익이 된다.

기업들이 통상 이익을 늘리려면 매출 실적을 크게 올리거나, 판관비를 줄이는 방식을 사용한다.

상반기 대기업들이 판관비를 줄인 것은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매출 실적을 늘리기 쉽지 않자 비용을 감축해서 이익을 더 내거나 손실을 줄이려는 자구책으로 분석된다.

특히 삼성 계열사들과 항공업체 등 12개 기업은 매출이 올랐는 데도 판관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판관비가 5조202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조8141억원에 비해 10.5% 감소했다. 매출액에서 판관비의 비율을 나타내는 판관비율도 11.2%에서 9.3%로 1.9%포인트 하락했다.

삼성SDI와 삼성전기도 상반기 판관비가 각각 9.7%와 8.7% 감소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의 판관비도 감소했다.

대한항공은 올 상반기 판관비로 6017억원을 지출, 작년 동기의 6187억원보다 2.8% 줄였다. 아시아나항공도 3095억원에서 2998억원으로 3.1% 감소했다.

올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LG전자는 판관비가 1조7852억원에서 1조6361억원으로 8.4%가 줄었다.

삼성전자 등 수출주도형 대기업들의 이러한 비상 경영 기조는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우건설, KCC건설, GS건설, 쌍용건설 등 8개 기업은 매출액이 줄었지만 판관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업종 특성상 마케팅 비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 건설업계가 주로 이에 해당됐다.

특히 KT&G의 상반기 판관비율은 24.4%로 작년 동기의 14.0%에 비해 무려 10.4%포인트가 늘었고, 두산건설은 7.2%에서 14.5%로 배 이상 증가했다.

홍석조 기자 joe613@

대우조선, 印尼에 잠수함 첫 수출

1조2000억 규모 계약만 남아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국방부 및 해군과 잠수함 계약 체결을 위한 단독 협상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세계적인 잠수함 건조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등을 제치고 사실상 수주를 확정지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수출용으로 독자 개발한 1400톤 규모의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역대 방산수출 단일계약 중 최대 규모다.

이번 잠수함은 특히 각종 어뢰, 기뢰, 유도탄 등을 발사할 수 있다.

향후 대우조선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양측은 잠수함의 세부적인 기술사양과 계약내용 등에 관한 실무적인 조율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우조선은 지난 2003년 12월과 2009년 4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잠수함 2척의 성능 개량 및 정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동남아 지역 잠수함 시장에 중요한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추가 수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헤셀로스 공장 준공을 기념해 주요 인사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삼성정밀화학 박흥열 셀룰로스사업부장, 이동훈 노조위원장, 삼성정밀화학 성인희 사장, KCI 윤재구 회장, 페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등 해외거래처 관계자.

삼성정밀화학 헤셀로스 상업생산 시작

삼성정밀화학이 지난 10일 울산사업장에서 '헤셀로스(HECELLOSE™)' 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상업생산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헤셀로스는 도료 및 생활용품용 안정제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삼성정밀화학은 이번 양산 이후 연산 1만톤으로 생산규모를 확대 할 예정이다.

이번 헤셀로스 출시를 통해 삼성정밀화학은 건축용, 식·의약용, 도료 및 생활용품용 등 셀룰로스계 제품 주요 3대 시장에 대응하는 제품 풀 라인업을 확보하게 됐다.

성인희 사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셀룰로스 사업은 1994년 메셀로스(Mecellose) 발매를 시작으로 애니코트(AnyCoat), 애니애디(AnyAddy)를 개발하며 회사의 근간이 돼 왔다"며 "셀룰로스 사업부문의 축적된 생산 및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톱3 수준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정밀화학은 이와 함께 메셀로스 신공장 증설 등을 통한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 셀룰로스 제품들간의 시너지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2년 3분기까지 연산 7000톤 규모의 메셀로스 신공장을 추가 증설하고, 지속적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Process Innovation) 활동도 병행해 셀룰로스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유 기자 thec98@

잿더미서 일군 글로벌기업… 청년 최종건 꿈이 깃든 곳

재계 뿌리를 찾아서 ② SK그룹 - 수원 권선동 선경직물 터

뿌리 깊은 나무는 강한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지만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기업들도 이 같은 모습을 보였다. 조그만 외풍에도 흔들리다 꺾여버리는 수많은 기업들 가운데에서 단단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기업에게는 모두 '뿌리'가 있다. 뿌리는 기업의 '전통'이자, 하나의 '정신'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화학, 통신사업을 이끌고 있는 SK그룹도 온갖 외풍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냈다. SK그룹은 2002년 이른바 '소버린사태'를 겪으면서 경영권 위협을 받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SK그룹의 뿌리 깊은 기업정신이 없었다면 소버린사태 당시 쉽게 침몰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故) 최종건 창업주에서 시작해 고 최종현 명예회장, 지금의 최태원 회장까지 2대에 걸쳐 내려온 SK그룹. 조그만 직물회사로 시작한 최종건 회장이 뿌린 씨앗이 이제 울창한 숲이 됐다. 그렇기에 SK그룹의 모태인 수원시 평동 선경직물 터는 의미가 더더욱 남다르다. 선경직물 터는 SK그룹의 정신과 뿌리가 한 곳에 응축돼 있는 곳이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1-1번지에 위치한 SK그룹의 발상지 선경직물 터.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전쟁의 폐허속에서 직물회사 설립
섬유에서 석유까지 비전 제시
1973년 한창 나이 폐암으로 별세
동생 최종현 회장에게 바통 넘겨
'제2창업'통해 인간중심 기업문화 이뤄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청년 최종건의 '선경직물'= 평동 선경직물 터 인근엔 창업주인 최종건 명예회장의 사택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이곳엔 관리인 2명이 상주하며 사택을 지키고 있다. 사택엔 과거 선경직물 때의 물품들이 보관돼 있다고 한다.

최종건 회장은 약관 18세의 나이로 조선 선만주단과 일본 교토직물이 합작한 선경직물에 입사했다. 최종건 회장은 어린 나이와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입사 4개월만에 생산2부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조선인이 여공 100여명을 통솔하는 자리에 올랐다는 건 파격적인 조치였다.

최종건 회장에게 직접적인 경영의 기회가 찾아온 건 1945년 광복 이후다. 한-일 합작사인 선경직물은 미군정의 관리를 받다가 정부 수립 이후 국가에 귀속됐다.

이후 한국전쟁이 터졌다. 전쟁 동안 선경직물 공장은 크게 파손됐다. 하지만 최종건 회장에겐 하나의 기회였다. 당시 최종건 회장은 잿더미였던 공장 부지와 귀속 재산을 매수, 직기 15대를 두고 '선경직물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것이 SK그룹의 시작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파고를 넘어 기어코 자신의 직물회사를 설립한 최 회장의 집념이 빛을 발했다.

최종건 회장은 선경직물을 국내 제일의 직물공장으로 키우길 원했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 때부터 최종건 회장의 품질제일주의가 시작됐다. 이는 1955년 10월 열린 '해방 10주년기념 산업박람회'에서 빛을 발했다. 선경직물의 '닭표' 인견직물은 이 산업박람회에서 부통령상(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선경직물 터 인근인 수원시 권선구 평동 7번지에 위치한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사택. 현재 관리인 2명이 거주하며 보존하고 있다.

1960~70년대 최종건 회장은 섬유산업에 주력, 1962년 인견직물을 해외로 수출했고, 이어 선경잔디공업(1965년), 선경화섬(1966년), 선산섬유(1970년), 선경산업(1962년)을 설립하며 사세를 넓혀나갔다. 1973년에도 선경유화를 설립해 석유화학 및 정유 사업에 진출하며 '석유에서 섬유까지'라는 그룹의 큰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늘은 이 젊은 사업가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잿더미 속에서 SK그룹을 일군 최종건 회장은 1973년 폐암으로 세상을 뜨게 된다. 당시 최종건 회장의 나이 47세였다.

하지만 최종건 회장의 꿈은 동생인 최종현 회장에게 이어진다. 1975년 최종현 회장은 '제2창업'을 선언, 수직계열화를 천명하며 형의 꿈을 이어나간다.

1980년엔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하며 정유사업의 기틀을 단단히 잡았고, 1994년엔 현재의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의 대주주로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는 등 현재 SK그룹 주력사업의 윤곽을 잡았다는 평가다.

선경직물로부터 시작된 최종건 회장의 꿈은 2대를 걸쳐 '현재진행중'이다. 형제인 최종현 회장은 1998년 사망했지만, 2세인 최태원 현 회장이 그룹의 키를 잡고 순항 중이다. 정유, 화학, 이동통신사업은 물론 최근엔 자원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며 '자원부국'이라는 새로운 꿈도 키워나가고 있다.

◇SK그룹 발상지, 이제는 불 꺼진 '폐공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1-1번지.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잿더미 속에서 시작된 SK그룹의 발상지다. 당시 상호는 '선경직물(鮮京織物)'. 창업주 최종건 회장이 청운의 꿈이 서려있는 곳이다.

평동 지역은 지난 1960~70년대 선경직물의 수혜를 많이 받았던 곳이다. 70년대는 선경직물의 직원만 해도 2000여명이 넘는 등 수원시 최대의 고용창출기업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야말로 선경직물의 '황금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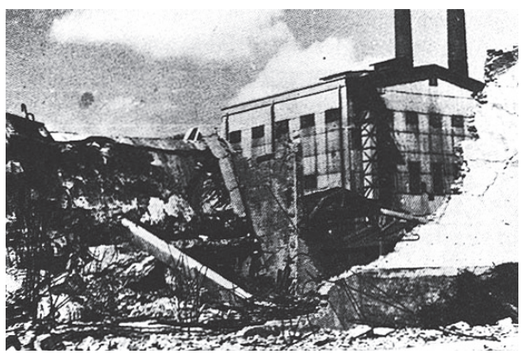
평동 주민 이 모씨는 "60~70년대 선경직물 때문에 평동 전체가 먹고 살았을 정도로 호황이었다"면서 "현재 SK그룹이 이렇게까지 성장한 것은 모태인 선경직물의 덕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평동 1-1번지는 싸늘한 폐공장으로 남아있다. 낮은 담장 위에 보이는 공장들의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고, 거미줄로 인해 공장 내부는 육안으로 관찰이 불가능할 정도다. 당연히 SK그룹 발상지임을 기념하는 그 어떤 구조물도 볼 수 없었다. 현재 이곳 선경직물 터는 관리인 한명이 정문을 지키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선경직물 터가 폐공장으로 바뀐 건 2003년 이곳에서 공장을 운영 중이었던 SK케미칼이 직물사업 철수를 결정하면서부터다. 1990년대 들어 SK케미칼은 사업구조를 화학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직물사업을 계속 축소해왔다. 이로 인해 평동 직물공장은 이후 명맥만 유지해오다 2003년 9월 끝내 문을 닫게 됐다.

SK그룹 측은 향후 선경직물 터 처리를 두고 여러 검토를 해왔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몇 년 전엔 SK건설이 이곳에 대형쇼핑몰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인근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으로 인한 고도제한 등의 이유로 이 조차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SK그룹의 발상지인 선경직물 터가 아직까지 폐공장으로 남아있는 이유다.

SK그룹 측도 모태인 선경직물 터에 대한 처리를 두고 고심이 깊다. SK그룹 관계자는 "최근 몇 년전부터 옛 선경직물터에 기업 발상지를 기념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검토해왔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폐허가 된 선경직물 평동공장의 모습.

◇SK 기업정신 대대로 계승한다= "인간은 석유와 비교도 되지 않는 무한한 자원이며, 경영은 결국 인간을 어떻게 활용해 가치를 극대화하는가에 달려있다."

최종현 회장이 생전에 강조했던 말이다. SK그룹은 이 같은 최종현 회장의 인간중심경영을 체계화시켜 계승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SKMS(SK Management System)'다. 최종현 회장이 1979년 정립한 SK의 인간중심 기업문화다. 최종현 회장은 생전에도 기업가로서 한평생 동안 이룬 것 중 최고업적을 "SKMS를 만든 것"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

SK그룹은 최종현 회장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2008년 'SKMS연구소'를 경기도 이천에 개관했다. 이곳은 최종현 회장이 30여년 전 직접 밤나무를 심어 '계원율림'이란 숲을 만든 곳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개관식 때 "SK의 사업과 시장이 어떻게 변화, 성장해 갈지라도 우리를 유지, 존속,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은 결국 SK문화, 그 중에서도 SKMS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SK그룹은 2007년 충북 충주 인등산에 인재양성 및 기업문화 전시시설인 '수펙스 센터(SUPEX Center)'를 개관했다. 수펙스 센터는 최종현 회장의 인재양성 기업문화를 확산,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돼 SK그룹의 기업문화와 경영철학을 확산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정유 기자 thec98@



품질도 가격도 별로… 일본車의 굴욕

국내 수입차시장 판매 부진

일본 수입차 업계가 최근 빠르게 몰락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출범 초기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3000㏄ 이상 고급 대형차 중심으로 수입이 개방됐다. 일본 수입차는 이때부터 이른바 '프리미엄 브랜드'에 편승해 '고급차'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국산차에 비해 품질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2008년 '리먼 쇼크'로 인한 극단적인 엔고 현상까지 맞물려 빠르게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용두사미 꼴이 된 일본 7대 브랜드= 현재 국내 수입차시장에는 일본의 5개 법인의 7개 브랜드가 판매되고 있다.

국내 수입차시장에 일본차가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진 것은 지난 2001년 일본 도요타가 자사의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를 출시하면서 부터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SK를 비롯해 동양고속 등 걸출한 딜러들을 선정면서 국내 수입차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초기의 일본차는 승승장구했다. 렉서스는 단숨에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수입차시장의 베스트셀링 브랜드로 등극했다.

적절한 가격과 편의장비를 앞세워 시장을 빠르게 잠식한 렉서스의 성공은 이후 또 다른 일본차 브랜드의 국내 진출을 촉진하는 도화선이 됐다.

렉서스의 성공에 자극받은 혼다는 서둘러 한국 출시를 결정했다. 일본 본사가 98%를 투자하고 한국법인장이 2% 지분참여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한국 수입차 시장에 뛰어들었다. 혼다코리아 역시 단숨에 베스트셀러 모델에 어코드와 CR-V 등의 이름을 올렸다.

이후 한국닛산도 인피니티와 닛산 브랜드를 순차적으로 앞세워 국내 시장에 뛰어들었다.

2000년대 초 일찌감치 시장에 뛰어든 이들 브랜드와 달리 미쓰비시는 출시 3개월 만에 리먼 쇼크를 만나 브랜드 출범과 동시에 고초를 겪었다. 결국 총판권을 쥐고 있던 대우자동차판매가 워크아웃에 돌입하며 미쓰비시의 한국 판매법인인 MMSK는 현재 공중분해됐다.

지난해 부산모터쇼에 맞춰 론칭했던 스바루코리아도 위상이 급락하고 있다. 스바루 한국법인인 스바루코리아는 최근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을 감원하면서 사실상 한국시장 철수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 브랜드별 악재 도미노, 결국 셋아웃= 일본차의 몰락은 2000년대 후반부터 예고됐다. 일본 도요타의 경우 혀를 내두를 만한 품질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으나 2009년 불

> 2001년 도요타 '렉서스' 베스트셀링
> 혼다코리아·한국닛산 잇따라 진출
> 리콜로 신뢰도 뚝 엔고에 값 껑충
> 독일차 상승세 당분간 이어질 듯

거진 대규모 리콜사태로 성장세가 꺾였다.

혼다코리아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때 2개 모델을 앞세워 각각 500대씩 월 1000대 이상 판매해 온 혼다는 최근 5가지 안팎의 모델을 내놓고도 월 판매량은 150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쓰비시의 몰락 역시 예고된 일이었다. 지난 2008년 출범한 미쓰비시 한국법인 MMSK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입차 시장 전체가 극단적인 침체기에 빠져들면서 월 50여대 안팎의 판매를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스바루코리아 역시 월 20대 안팎의 저조한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닛산의 경우 럭셔리 브랜드 인피니티를 앞세워 한국시장에 진출했고 이후 빠르게 시장상황을 파악해 닛산 브랜드를 출범시켰다. 시장 상황을 적절히 파악해 최근 3세대 큐브를 적정가격에 시판하는 등 일본차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일본차의 몰락은 각 브랜드별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요타의 경우 대규모 리콜사태가 원인이 됐다. '한국 시판 모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자동차성능연구소의 계속 된 결함조사 끝에 명백한 가속페달 결함이 증명됐고 국토부가 강제리콜을 발표하기 직전 자발적 리콜을 발표했다. 이후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했다.

혼다코리아 역시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판매된 차량보다 더 많은 모델을 올 한해 리콜하면서 '제2의 도요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혼다의 품질저하로 인해 일본차는 '올 한해 수입차시장에서 가장 많이 리콜된 차'라는 오명도 안게 됐다.

◇ 앞서가는 독일차에 가려 어두운 그림자만= 일본차의 부진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독일차의 모습과 확연히 대비된다. 지난 9월 독일차 업체들은 사상 최고 판매량을 기록한 반면, 일본차들은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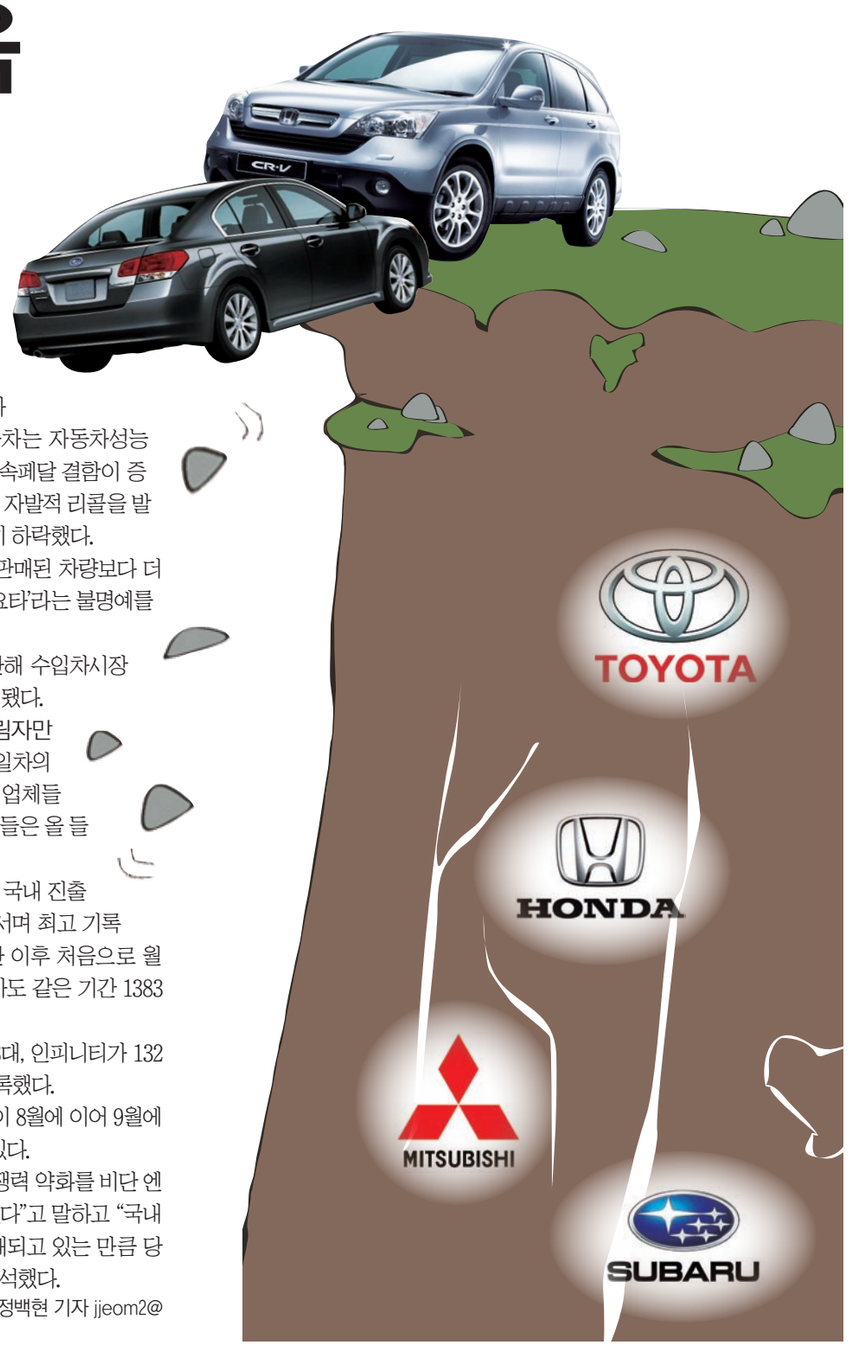
아우디코리아는 지난 9월 1174대를 판매, 국내 진출 이후 처음으로 월간 판매량 1000대를 넘어서며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벤츠코리아 역시 국내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월 판매량 2000대를 돌파했다. 폭스바겐코리아도 같은 기간 1383대를 판매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차 업체들은 혼다코리아가 153대, 인피니티가 132대, 스바루가 21대로 연중 최저 판매량을 기록했다.

신형 박스카 큐브를 앞세운 한국닛산 만이 8월에 이어 9월에도 604대 판매로 월간 판매 신기록을 잇고 있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일본 수입차의 경쟁력 약화를 비단 엔고 현상과 동일본 대지진 등에 국한할 수 없다"고 말하고 "국내 수입차시장은 독일차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같은 추이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백현 기자 jjeom2@



韓·日 하이브리드 맞수 현대 쏘나타 vs 혼다 CR-Z 살펴보니

연비
출력
편의성
CO_2 배출량
} 쏘나타 올킬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친환경차 경쟁이 시작됐다. 2006년 렉서스 GS450h에서 시작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은 도요타 프리우스가 영역을 넓혔고, 혼다의 하이브리드 전용모델 인사이트가 추가로 투입됐다.

국산·수입차 메이커들이 내수 친환경차 시장을 겨냥해 본격적인 경쟁구도를 이뤄나가는 가운데 최근 등장한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혼다 CR-Z가 비교 선상에 올랐다.

양사가 밝힌 제원을 바탕으로 우열을 가린 결과 1리터당 연비와 출력, 편의성은 물론 하이브리드카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산화탄소(CO_2) 배출량 등에서 쏘나타가 압도적 우위를 나타냈다.

하이브리드를 찾는 고객들이 생각하는 구매 포인트는 연비다. 연비의 경우 쏘나타 하이브리드가 근소하게 앞선다. 쏘나타 하이브리드가 1리터당 21.0㎞를 비롯한 반면 혼다 CR-Z는 가솔린 1리터로 20.6㎞를 달린다.

두 모델의 연비 차는 고작 0.4㎞에 불과하다. 그러나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배기량(2000㏄)이 CR-Z(1500㏄)보다 높은데다 차 무게와 콘셉트를 따졌을 때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혼다를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엔진과 전기모터의 출력을 따져보면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다.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자체 만으로 최고출력 191마력을 내고 여기에 전기모터 출력 41마력(30㎾)가 더해진다. CR-Z는 1.5리터 i-VTEC 엔진(최고출력 114마력)에 14마력(10㎾)의 소용량 전기모터를 추가해 출력 면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에 비해 크게 뒤진다.

하이브리드 카의 궁극적 목적인 CO_2 배출량에서도 배기량이 큰 쏘나타 하이브리드가 CR-Z에 앞선다.

쏘나타 하이브리드가 1㎞당 111㎏의 CO_2를 배출한 반면 상대적으로 엔진 배기량이 낮은 혼다 CR-Z는 117㎏이나 된다. 이쯤 되면 웬만한 독일 디젤차보다 CO_2 배출량이 많은 편이다.

CR-Z의 CO_2 배출량을 50리터 연료탱크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름을 한번 채울 때마다 300㎏의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하는 셈이 된다.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가격과 편의성면에서도 CR-Z를 사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프리미어와 로열이 각각 2970만원과 3320만원이다. 그러나 혼다 CR-Z는 3580만원에 이른다.

정백현 기자 jjeom2@

혼다 CR-Z



오픈마켓·홈쇼핑 해외진출 박차

인터파크, 미국서 인터넷서점·e북서비스 시작
GS홈쇼핑, 태국 현지업체 합작 '트루GS' 개국

올 하반기 주춤했던 유통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홈쇼핑 업체와 오픈 마켓들이 국내 시장의 한계를 느끼며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 해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격전지인 미국 시장에 '인터파크글로벌'을 오픈하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인터파크글로벌은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위해 설립한 업체로 국내 최초로 한국 도서를 미국 현지에서 직배송하는 인터넷 서점 서비스와 e북 서비스를 시작한다.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한국 인터넷서점의 해외 배송 서비스 보다 빠르고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 도서를 판매한다. 미국은 3일, 캐나다는 5일 이내에 고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터파크도서의 e북 서비스인 '비스킷(Biscuit)'도 함께 오픈 해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 도서를 e북으로도 공급할 방침이다.

이어 미국 인터넷 서점 진출하고 쇼핑을 비롯한 티켓과 공연 등 전자상거래 분야 글로벌 회사들과 적극적인 제휴를 추진하면서 사업을 확대한다.

서영규 인터파크도서 대표는 "미국, 캐나다에서도 인터파크도서의 다양한 혜택과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게 돼 현지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이 기대된다"며 "사업 초기에는 북미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주요 고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서사업을 바탕으로 인터파크의 서비스 플랫폼과 콘텐츠를 현지화 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S홈쇼핑은 지난 6일 한국 홈쇼핑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태국에 진출했다. 방콕에서 24시간 홈쇼핑 방송인 '트루GS'를 개국, 첫 방송에 들어갔다. 트루GS는 GS샵이 태국 최대 미디어그룹인 트루비전과 유통기업 더몰그룹, 편의점 업체인 CP올과 합작해 만든 홈쇼핑 업체로 자본금 2억4000만바트(92억원)로 지분은 트루비전 45%, GS샵 35%, 더몰그룹 10%, CP올 10% 등이다. GS샵이 홈쇼핑 운영을 총괄하고 트루비전은 방송 플랫폼,더몰그룹은 상품 소싱,CP올은 배송 역할을 맡았다.

트루GS는 GS샵에서 검증받은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과 글로벌 브랜드 상품, 현지 인기상품 등을 판매할 계획이다. 전체 상품 가운데 60%가량은 한국산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GS샵 측은 밝혔다.

롯데마트도 지난 9월 해외 전략 거점인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연이어 해외점포를 열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부 땅끄랑시에 해외 112호점인 '빈따로자야점'을, 30일에는 중국 장쑤성 난통시에 해외 113호점인 '루둥점'을 오픈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네이처 리퍼블릭 필리핀 1호점 오픈

네이처 리퍼블릭은 11일 필리핀에 1호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네이처 리퍼블릭은 일본과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을 비롯해 필리핀까지 해외 6개국에 진출하게 됐다.

필리핀 1호점은 수도 마닐라 핵심 상권에 위치한 페스티벌 슈퍼몰 1층에 입점했으며 매장 규모는 약 20평이다. 페스티벌 슈퍼몰은 마닐라 남부에서 가장 큰 쇼핑몰로 500여 개의 상가 및 영화관, 오락시설이 입점돼 주말 평균 유동인구가 약 25만 명에 달한다. 쇼핑몰이 있는 마닐라 알라방 지역은 뷰티, 패션 유행의 진원지이자 외국인들과 젊은 층이 즐겨 찾는 부촌이다.

필리핀 1호점은 전날 9일에는 임시 오픈에도 불구하고 20~30대 여성 고객으로 하루 종일 붐볐고 미백 기능성 제품과 손쉽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마스크시트, 네일 제품이 많이 팔렸다. 아시아 전역에서 모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류스타 장근석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샘플 증정 혜택이 있는 멤버십 카드를 운영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젊은층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현지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이선애 기자 lsa@



네이처 리퍼블릭 필리핀 1호점.


백화점에 비행기가 착륙했네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은 웨딩 시즌을 맞아 13일까지 '와치&주얼리 페어'를 진행한다. 최근 젊은 남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항공시계와 실제 경비행기를 함께 전시하며, 경비행기 앞에서 사진촬영도 가능하다. 경비행기 앞에서 조종사복장을 한 모델들이 해밀턴 시계를 선보이고 있다.

"대기업만 유리한 카드수수료 개선에 총력"

김용만 프랜차이즈협회장

김용만 프랜차이즈협회장〈사진〉이 현재 카드수수료가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며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회장은 지난 7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개최된 '제4회 프랜차이즈 CEO 컨벤션'에서 기자들과 만나 "생계형 프랜차이즈 점주에게 오히려 불공평한 수수료 문제를 음식업중앙회와 함께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인하가 될수 있도록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카드사의 수수료중에 대기업 브랜드는 1.5%내외지만 프랜차이즈 일반 자영업자들은 2.5~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점주가 아무리 원가절감을 해도 대기업에게 유리한 카드 수수료 제도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코자 음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 협회는 오는 1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의제매입 세제혜택 등의 자영업 음식업 소상공인들을 현안의 목소리를 모으는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생계형 점주들이 점심장사를 포기하고 나오는 것은 대단한 결의"라며 "중앙회 및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카드수수료 인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구귀 기자 kkk@

한국야쿠르트 신제품 '간 건강 쿠퍼스' 출시



한국야쿠르트는 11일 알콜성 건강에 초점을 둔 '헛개나무 프로젝트 쿠퍼스'에 이어 비알콜성 간건강 음료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 건강 프로젝트 쿠퍼스'〈사진〉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어린 복분자열매의 효능을 살린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약청 기능성 인정 원료인 어린 복분자열매 추출물이 3150mg 들어있다. 이는 식약청 인정 간 기능 개선 효과를 위한 어린 복분자 1일 섭취량이다. 여기에 산수유와 초유분말을 함유했다.

한국야쿠르트에 따르면 익지 않은 어린 복분자열매(미숙과) 추출분말은 간 건강이 염려되는 사람에게 12주 인체적용시험을 한 결과 간수치가 유의성 있게 저하됐다. 정길연 한국야쿠르트 마케팅부문 부문장은 "건강과 편의를 추구하고 기능성 제품을 선호하는 최근 시장 트렌드에 잘 부합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유통가 Key Man 정병우 인터파크 슈즈사업부 과장

"당일배송·사이즈 추천으로 온라인 신발시장 꽉 잡았죠"



인터넷쇼핑몰에서는 유독 다른 패션 카테고리에 비해 신발 부문의 매출이 적다. 상의나 하의 같은 경우 대략적인 사이즈에 맞춰서 사면 되지만 신발은 신어보지 않으면 사이즈가 맞지 않아 낭패를 보기 일쑤다. 특히 배송도 늦게 걸릴 뿐만 아니라 환불과 교환 신청은 까다롭기만 하다.

이 같은 불편을 없애며 등장한 사람이 바로 정병우 인터파크패션 슈즈사업부 과장이다.

인터파크는 신발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온라인 비중이 적은 것을 착안해 지난 7월 신발 전문몰 인터파크 슈즈몰(shoes.interpark.com)을 오픈, 월 100% 내외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 과장은 처음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현재 국내·외 상품 매입과 수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슈즈몰 성공의 숨은 공신이다.

"오프라인에서 신발을 구매하면 온라인에 비해 불만사항이 적습니다. 사이즈가 맞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구매하는 즉시 신을 수 있기 때문이죠. 소비자 불만사항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 슈즈몰의 성공 비결입니다."

정 과장이 슈즈몰 기획 단계부터 줄곧 주장한 서비스가 바로 '당일배송 서비스'와 '슈마이스터 서비스'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신발을 주문할 경우 짧게는 2~3일, 길게는 1주일이 소요된다.

반면 슈즈몰은 판매상품 90%를 직매입 상품으로 구성, 자체 물류센터를 운영해 서울과 경기 지역(일부 지역 제외)에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슈즈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직접 광주에 물류 센터를 오픈해 당일배송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었죠. 온라인몰에서 볼 수 없었던 슈즈 당일배송은 참신한 서비스로 인지됐고 배송 서비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슈마이터 서비스는 더욱 획기적이다. 고객의 발에 최적화된 제품을 추천해주는 슈마이스터는 사이트에 있는 족형 측정 시트를 출력 및 측정한 후 사이즈를 입력하면 적합한 신발 사이즈를 추천해주는 매칭 서비스다.

"반품이나 재발송 등의 과정을 줄이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 무료 사이즈 교환을 내세울 정도로 자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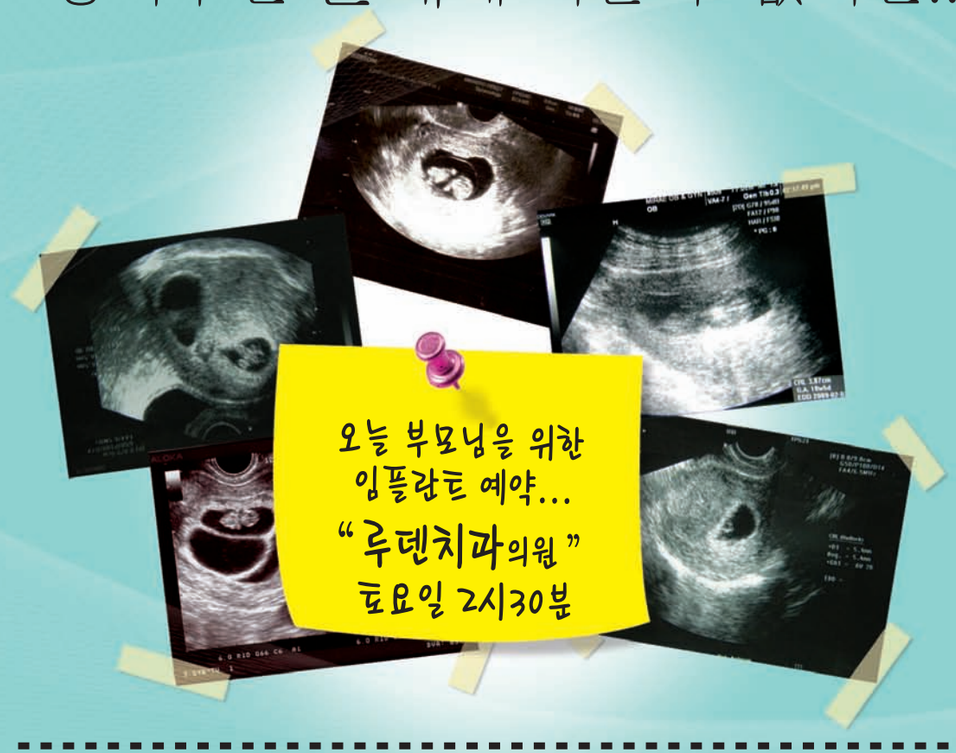
그는 평소 주말에는 시장 조사와 관련된 잡지나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월 3~4켤레 신발을 구입한다. 경험이 바탕이 돼야 제대로 된 상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신념 때문. 소유한 신발만해도 100여 족에 달한다.

"현명한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변화하는 유통 구조와 고객, 새로운 상품에 대해 파악하고 실제로 반영해야 합니다." 슈즈몰을 명실상부한 No.1 신발 전문몰로 성장시키겠다는 그의 도전이 시작됐다.

이선애 기자 lsa@

www.luden.co.kr
치아건강을 위한 최선의 노력 _ 루덴치과의원

낳아주신 은혜에 비할 수 없지만...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부족함은 많지만 부모님이 편하게 웃으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실 수 있게
루덴치과에서 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치료 받으시고 밝게 웃으세요!!!
오늘 루덴치과 예약했습니다.

루덴 치과의원
LUDEN DENTAL CLINIC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110503-중-3107호

인터넷검색창에 루덴치과의원

• 명동점 T.02 757 2879 • 강남점 T.02 2051 2875 • 강서점 T.02 2668 4477 • 미아점 T.02 981 2442
• 구로점 T.02 2632 2879 • 남부터미널점 T.02 3487 0028 • 분당점 T.031 726 0772

은행 "외화유동성 문제없다"

수요급증 대비 중장기 차입 통해 충분한 실탄 확보

유동성 비율 101%… 지도 기준 85% 웃돌아

국내 은행들이 외화수급에 고삐를 쥐고 있다.

이미 올 연말까지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지만 글로벌 경기불안이 극한으로 치달아 외화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의 경우 내년 3월까지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을 3개월 이내 외화부채로 나눈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은 101.7%로, 금융당국의 지도 기준 85%를 훨씬 웃돌고 있다.

3개월간 외화차입 없이 보유중인 외화자산만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신한·기업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들은 꾸준한 유동성 관리에 힘입어 이미 외화조달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년 3월까지 버틸 수 있는 외화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은행 자금담당 임원은 "연말까지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했지만 안심할 수 없어 은행들이 추가로 외화수급에 나서 내년 3월까지 버틸 외화자금을 확보했다"며 "특히 커미티드라인(마이너스통장 성격의 단기 외화차입) 구축에 나서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 커미티드라인 설정 현황

국민은행	3억5000만 달러
신한은행	9억 달러
우리은행	10억 달러
하나은행	3억 달러
기업은행	2억5000만 달러

※자료 : 각 은행

실제로 16개 국내 은행의 지난달 중장기 외화차입 규모가 46억1000만달러로 세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월 47억1000만달러를 기록한 이래 최대치에 이르렀다.

또 국내 은행이 외국 금융회사와 맺은 커미티드라인은 지난 8월말 8억달러에 불과했지만 9월말 현재 36억달러로 28억 달러 증가했다. 불과 한달 새 4.5배로 불어난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무역금융결제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외화대출에 지장이 없을 만치 충분한 외화를 확보하고 있다"며 "일부 여유 자금을 유럽계 은행에 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3년, 5년만기 장기 외화채권 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한 딜러는 "은행마다 달러를 쌓아놓긴 했지만 장기로 운용하기보다는 단기로 운용하고 있다"며 "장기로 갈수록 달러가 부족하고 차입 비용도 높아진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안경주 기자 ahnkj@

'제일은행' 역사속으로

SC제일은행 사명서 '제일' 빼기로

국내 은행권을 주름잡았던 '조·상·제·한·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조상제한서'란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은행을 일컫는 표현. 이들은 외환위기 전까지 5대 시중은행 체제로 국내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대열에 속했었다.

그런데 최근 SC제일은행이 'SC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키로 결정하면서 '조상제한서' 중 유일하게 이름이 사용되고 있던 '제일'마저도 사라지게 됐다.

이번 SC제일은행의 상호 변경은 세계적으로 SC그룹의 현지 은행이 'SC'이름으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희 기자 jhsseo@



부산銀, 100억엔 무담보 신디케이티드 론 차입 윤용진 부산은행 부행장(가운데)이 10일 홍콩에서 신디케이티드 론 차입서명식을 가지고 있다. 부산은행은 이번 서명식을 통해 크레디아그리콜 등 4개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100억엔(1억3000만달러)을 장기차입 하는데 성공했다.

대형저축銀 1분기 대규모 흑자

대손충당금 적립·자산매각 효과 현대스위스 300억·솔로몬 100억 예상

지난 2010회계연도(2010년 7월~2011년 6월)에 1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냈던 대형 저축은행들이 2011회계연도 1분기 대거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경영진단을 겪으며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한 데 따른 것이다.

11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회계연도 1분기에 100억원 안팎의 흑자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솔로몬저축은행이 흑자를 낸 것은 지난 2009회계연도 2분기 이후 7개 분기만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126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흑자 전환의 가장 큰 요인은 충당금 부담이 적어진 점"이라며 "빌딩 매각 이익이 2분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2분기에는 흑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올 1분기에 300억원대의 대규모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에 89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 1분기에만 연간 총 당기순이익 수준의 이익을 낼 전망이다.

한국 계열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 한국저축은행과 진흥저축은행도 80억원 수준의 이익을 낼 전망이다.

HK저축은행도 소액신용대출의 영업 호조로 200억원 가량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이익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경영진단 과정에서 당국의 요구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뒀기 때문이다.

대형 저축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억원

	2010회계연도	2011회계연도 1분기(추정치)
솔로몬	-1265	100
현대스위스	-618	300
한국	-1252	80
진흥	-921	80
HK	20	200

총 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지난 2009회계연도 5.81%에서 2010회계연도에 15.69%로 크게 뛰었다.

대출 채권 100만원에 대해 이전에는 5만8000원만 충당금을 쌓아뒀지만 불과 1년 만에 10만원 가량의 충당금을 더 적립했다는 것이다.

자산이 부실화되면 자연히 추가로 쌓아야 할 적립금 부담이 발생하지만 이번 결산에서는 추가로 적립해야 할 충당금 부담이 적고 채권 회수로 충당금 환입도 생기면서 이익이 크게 불어난 것이다.

고득관 기자 dk@

다이렉트뱅킹·F1 코리아그랑프리 성공기원 정기예금 인기몰이

소매금융 간 産銀 웃음꽃 활짝

산업은행이 개인금융 시장 확대 방침을 밝힌 후 출시하는 상품마다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은 다이렉트뱅킹(KDBdirect) 출범 10일만에 1500명이 넘는 고객이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이렉트 뱅킹은 무점포 온라인 은행을 표방하는 새로운 은행거래 시스템으로 방문 전담 직원이 고객을 찾아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창구를 찾아가지 않아도 은행거래를 할 수 있다.

다이렉트 뱅킹 전용 상품으로 함께 내놓은 '하이 정기예금'은 수시 입출금식 계좌로는 파격적인 연3.5%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산은 개인금융본부 임경택 부행장은 "하루에 60건 정도 예상했는데 200건 이상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주식은 하기 두렵고 은행 예금금리는 낮아 고민하던 2000만~3000만원 이상 자금을 가진 틈새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개인금융상품 판매실적 고공행진은 가장 먼저 출시한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기원 정기예금에서 시작됐다.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판매한 이 상품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결정될 경우 기본금리에 0.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줬다. 1000억원 이내일 경우 연4.25%, 1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연4.30%를 기본금리로 설정해 최대 연4.50%의 금리를 제공했다. 당초 1000억원대의 수신을 예상했지만 이를 뛰어넘는 2314억원의 판매실적을 냈다.

이어서 출시한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 대회 성공개최 기원 정기예금도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연4.50%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8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판매한 결과 4690억원의 수신고를 올렸다.

또한 최근 내놓은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원) 코리아그랑프리 성공개최 기원 정기예금은 2000억원이 넘게 판매되면 최고 연4.3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19일부터 14일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10일 현재 1922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임경택 부행장은 "산은은 전국 점포가 59개밖에 없기 때문에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절감한 수익을 고객들에게 높은 금리로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

금감원 "SLS 워크아웃 의혹 없다"

SLS조선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은 없었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은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직접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100% 가까운 동의를 얻어 개시된 워크아웃 이후 채권단은 SLS조선에 선박금융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최근 산업은행(주채권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흥국생명 등 SLS조선의 채권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 회사 워크아웃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조사하고 11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SLS조선이 지난 2009년 12월 10일 산은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직접적 원인은 대출금 연체가 쌓여 부도 직전 상황까지 몰리면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의 질의에 "이 회장이 2009년 12월17일 산은에 찾아와 주식·경영권 포기각서에 자필 서명하고 관련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자 채권금융기관 협의를 거쳐 워크아웃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은은 이 회장 자신의 손으로 주식·경영권 포기각서에 서명했다는 촬영 증거물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재인 기자 kji@

"가계대출 일률적 규제 적절한 정책 아니다"

금융硏 서정호 연구위원

가계대출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연구위원은 11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보고서에서 2006~2010년 예금은행의 전월 대비 가계대출 증감률이 0.6%를 넘은 것은 총 22회로 전체(60개월)의 36.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정호 연구위원은 "가계대출이 계절성이 있어 같은 증가율로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필요에 따라 단기적 급증에 대비해 총량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라도 수준 설정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재인 기자 kji@



‘KB굿잡’ 구인·구직 연결 효과 ‘굿’

▌청년취업 팔걷고 나선 KB금융지주

KB금융지주가 청년 취업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가 문제로 자리 잡은 청년실업 해소에 일조하겠다는 취지다.

KB금융은 일자리 연결 프로그램인 ‘KB굿잡’을 올해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말 KB굿잡을 통해 구직을 희망한 개인회원은 1만300명, 구인기업은 6630곳인 만큼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KB굿잡은 일반적으로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집중됐던 취업의 기회를 고졸출신 구직자들에게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는 고졸 취업 준비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학력보다는 실력이 우선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금융권 최초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KB금융지주는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자리연결프로그램인 ‘KB굿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KB굿잡 중견·중소기업 취업 박람회’를 개최해 5000여명의 구직자가 참가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고졸 구직자에 취업 기회 확대
교과부와 업무협약 직접 채용도
지난주 중견·중기 취업 박람회
200여 기업·5000여명 참가 성황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8명을 국민은행에 채용하는 등 고졸 취업생들의 금융권 진출의 문을 열어주기도 했다.

연장선으로 KB굿잡 사이트 내에 특성화고 특별전용관을 마련했다. 교과부는 KB굿잡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학교별 우수인재(상위10% 졸업생)를 KB굿잡 인재추천관에 등록한 후 기업체에 제공키로 했으며 국민은행은 참여기업에 금리혜택, 경영컨설팅, 채용지원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양질의 구인기업체 확보를 위해 자체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수 중견·중소기업, 우수 코스닥·벤처기업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 이 시스템의 이용대상은 특성화고 학생과 구인기업체 담당자이며, KB굿잡 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아울러 KB금융은 지난 6일과 7일 이틀동안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1 KB굿잡 중견·중소기업취업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등 34개 특성화고 재학생 2000여명을 포함해 구직자 5000여 명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구인기업으로는 남동공단, 반월·시화 산업단지 공단 등에 위치한 중견·중소기업 200여 곳이 참가해 총 1000여명의 신입사원 채용에 나섰다.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산업현장 견학도 제공되기도 했다.

구매 선을 중국으로 넓혀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산업자재 구매대행전문 기업 ‘산유’도 중국현지사정에 밝은 인력이 필요하던 찰나 취업박람회 개최 소식을 접하고 참여하게된 케이스다. 그 결과, 산유는 모 기업 주재원으로 중국에 3년을 거주했던 중국어 전공자를 채용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산유 MRO사업부문 배병관 부장은 “지금까지 각종 구인공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은 많았지만 회사에 맞는 인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충원을 못했다”며 “이번 취업박람회는 목적 자체가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연결로 참여한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가 이미 어느 정도 일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인재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취업박람회에서는 구직자들에게 성공CEO초청 특강, 면접체험관, 지문 인·적성검사, UCC이력서 촬영, 아이패드 커리처쳐 등 다채로운 취업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도 했다.

최군철 KB굿잡 팀장은 “지난 1월 출범한 일자리 연결 프로젝트인 KB굿잡을 통해 구직자·구인기업이 일자리와 인재를 찾는 것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며 “이번 취업 박람회로 KB굿잡의 일자리 연결 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금융당국 가계대출 규제하고 있는데…

외환은행 특판대출 왜?

“당국 눈치 덜 보는 외국계라 가능”
파업으로 떨어진 영업력 만회 분석도
은행 측 “특판예금 함께해 문제없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특판(특별판매) 대출은 꿈에도 못 꾼다. 특판 대출을 했다가는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

한 시중은행의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부터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금리를 깎아주는 특판 대출은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다. 자칫하다간 정부 정책에 전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시중은행의 이 같은 기조와 달리 외환은행은 최근 특판 대출 상품을 선보였다. 은행권에서는 짐짓 놀라면서도 “외국계 은행이니깐 가능하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 10일 5000억원 한도의 ‘예스(Yes)안심 전환형 모기지론’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10일 현재 5년제 고정금리 기준으로 최저 4.85%~ 최고 5.18% 수준이다.

같은 조건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4.95%~5.5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고객에겐 구미가 당기는 상품이다.

외환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확대 노력은 시중은행이 4분기에 가계대출을 자제하겠다는 기조와도 상반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은 지난 7월 당국의 경고에도 고배당을 실시했을 정도의 당국의 눈치를 상대적으로 덜 보는 외국계은행이기 때문에 특판 대출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환은행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파업으로 영업력이 많이 훼손된 점도 대출 확대에 적극 나선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특판 예금도 함께하는 만큼 큰 문제될 거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 전자동시에 따르면 외환은행의 올 상반기 예대율(대출채권/예수부채)은 107.88%로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의 약관 심사에서 별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 가계대출 추이를 유의해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은행원 그들은 누구인가 ② 예전 같지않은 자부심

한땐 최고 신랑감이었는데…

“신랑감 후보로 은행원이 명함을 내밀수나 있겠습니까.”

최근 결혼을 앞둔 은행원들의 자조적인 말이다. 다소 과장된 것도 사실이지만 요즘 은행원의 사회적 위상을 나타내는데 이만큼 딱 떨어지는 말도 없을 듯 하다.

신한은행의 C 차장은 올해로 은행경력 15년째다. 당시 취업전선에 나설 때만 해도 은행원에 대한 인기가 높았다. 고소득을 보장받는 가장 안정된 직장으로 단정한 화이트칼러의 대명사였기 때문이다. 특히 일류대 출신들이 은행으로 몰려드는 것은 당연해 평균 입사시험 경쟁률은 100대 1이었다.

특히 벌어들이는 돈도 많았다. C 차장이 입행후 받아든 첫 월급봉투에는 70만원이 담겨 있었다. 월급만으로도 당시 중상위수준이었다. 하지만 격월로 보너스가 나와 일반 대기업 직장인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아갔다. 신랑감 1순위가 충분했다. 급여도 많고 안정성 있고, 복장도 말끔했으니 말이다.

지난해 2월 신한은행에 대졸 공채로 입사한 K 행원. 그는 스스로 ‘불운의 세대’라고 부른다. K 행원의 통장에 매달 찍히는 돈은 166만원. 1990년 이후 인력확보 경쟁을 벌였던 대기업 직원의 초임과 비교해도 절반 가량이 적다. K모 행원은 “은행원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 줄 알아서 티도 못 낸다”고 한숨 섞인 걱정을 했다. 은행원이 더 이상 고소득층이 아니게 됐다는 말이다.



2008년 잡셰어링 도입후
초임 대기업의 절반으로
우수인력 ‘썰물’ 사기 ‘뚝’
금융위기·부실사태 여파
직업에 대한 긍지도 저하

K 행원이 취업전선에 섰을 때는 정부가 청년인턴 채용을 늘린다며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을 도입한 때였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중은행 신입행원의 임금 20%를 깎았다. 이후 당시 임금을 깎았던 대기업 직원의 임금은 회복됐지만 신입행원의 임금은 원상회복되지 못했다.

결혼정보회사의 한 커플매니저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은행원이 공무원 다음으로 인기가 좋은 직업이었다”며 “그러나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직에 자리를 내주더니 지금은 더욱 인기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은행원의 위상이 급강하했던 것도 이때부터다.

여기에다 은행원의 업무는 늘어나고 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경비절감이 필요했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사람을 줄였다. 지난 2007년 시중은행의 대리 이하 행원급은 2007년 3만8784명에서 3만7853명(2010년 6월 말 기준)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말 국민은행은 3200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절대적 업무량은 오히려 늘어나는데 일할 수 있는 행원은 줄어드니 바빠지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결국 우수한 은행원들도 썰물처럼 은행을 빠져나갈 정도로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도 이해가 갈 만하다.

그렇다고 은행원의 사회적 위치가 형편없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전체 은행권 평균 급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1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한국씨티은행은 1인당 월 평균 617만원을 받았다. 신한·국민·SC제일·우리·외환은행은 500만원대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건 하나은행으로 월 평균 급여가 417만원이었다. 문제는 은행원의 자부심이 저하되는 데 있다. 금융이란 전문분야가 더욱 복잡해지고 중요해지지만 어느 순간 긍지도 인재도 사라져 버리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세계 주요 은행의 도산 위기,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상황에서 은행원의 자부심마저 사라진다면 우리나라 은행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수밖에 없다. 안경주 기자 ahnkj@

관리용장부와 회계장부를
매일! 한번에! 동시에!

“회계, 올해부터는 제대로 해보시죠”
회계 아웃소싱, 연매출 100억 이상의 회사만 하는줄 알았는데 30억대의 우리 회사도 된답니다.

이런건 안합니다!
■ 비싼 ERP사서 교육훈련에 서버관리까지
– 제대로 사용하고는 있는지 ……
– 입력된 Data는 맞는지 ……
– 유지 • 보수비용은 적정한지 ……
■ 회계 • 세무경력사원 고임금에 봅아서
– 잘 가르쳐 놓으면 그만두고 또 가르치고 ……
– 전문성 검증은 ……
– 업무 연속성은 ……
■ 영수증 • 문서를 회사 밖으로 보내놓고
– 회계장부를 손꼽아 기다리고 ……
– 1년에 한번 장부 받고 ……
■ 결국 일은 우리가 다 해 놓고
– 신고하자고 또 맡기고 ……
– 시간 쓰고 돈쓰고 ……

“회계전문가가 인터넷으로 매일 회사에 출근합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다음날이면 실적이 확인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 매티가 제공하는 ERP로 현장에서 기본문서를 작성하기만 합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 – 입금보고서 작성
– 세금계산서 발행 – 거래명세표 작성
– 수주보고서 – 급여대장
– 구매발주서 – 구매입고보고서
– 생산보고서 – 자재불출보고서 등
■ 일일 실적을 매일 확인합니다.
– 익일 아침이면 4대일보가 보고되며 핸드폰으로 알람을 드립니다.
• 자금일보 • 판매일보 • 구매일보 • 생산일보 • SMS문자 알람
■ 관리용 장부가 매일 자동으로 만들어 집니다.
– 이젠 만드느라 애쓰지 말고 언제든지 불러내서 활용하기만 하세요.
• 현금출납부 • 외상관리대장 • 어음관리대장 • 수불부 • 수주관리대장 등
■ 회계장부와 관련신고는 전문가가 알아서 매일 처리 합니다.
– 관련법규 검토와 업무지식은 전문가들이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한글로 치세요 회계 아웃소싱
http://www.matikorea.co.kr MATI Korea Co.,Ltd./ Since 1998
여기 회계아웃소싱 전문기업 ‘매티’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검증된 회계 아웃소싱 전문기업
(주) 매티코리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8-4 호정프리자 6F
TEL : 02) 6293-0514
FAX : 02) 6293-0519

대기업, 성적 좋은 자회사 덕 '톡톡'

CJ·LG·한화·SK 등 자회사 가치 상승으로 시장 재평가

최근 자회사의 가치 상승으로 CJ, LG, 한화 등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상장 자회사들 뿐만 아니라, 증시 입성을 앞둔 비상장회사들의 기업가치로 기업레벨의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가장 먼저 CJ그룹은 지난 8월 말 삼성생명 지분 3.2%를 CJ제일제당과 CJ오쇼핑에, CJ창업투자지분 90%는 씨앤아이레저산업에 전액 매각했다. 이는 코앞으로 다가왔던 공정거래법 위반과 과징금 부담을 털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점은 무엇보다 이같은 유동성 확보를 통해 향후 대한통운 인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삼성생명 지분매각 5440억원, CJ창투매각 99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대한통운에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대한통운에 대한 시너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상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인수조달 금액 자체에 큰 무리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CJ는 자회사인 CJ제일제당의 바이오사업부분 성장성과 삼성에버랜드의 상장 가능성 역시 긍정적이다. 현재 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카드가 에버랜드의 지분 25.6% 중 20.6%를 내년 4월까지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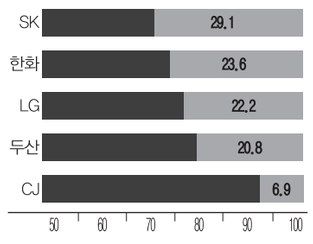
만약 이를 통해 에버랜드가 상장을 추진할 경우, 현재 2.35%(5만8823주)를 가지고 있는 CJ의 에버랜드 지분가치는 약 12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LG의 경우 실트론과 LG CNS 등이 중요한 비상장사이다. 실트론의 경우 금년 상장을 추진했지만 연기가 된 상황이며, 내년 상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LG CNS는 LG그룹의 가장 큰 성장포인트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인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내년부터 시작될 IT서비스 산업의 빅 사이클 수혜에 힘입어 향후 SI(시스템통합)시장은 고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LG CNS의 내년도 실적은 올해보다 10% 이상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 역시 제조부문 중심의 자체사업 성장이 기대된다. 정대로 대우증권 연구원은 "한화그룹의 현재 제조사업의 매출 비중은 자체사업 중 약 20%지만, 영업이익 기여도는 약 60% 이상을 차지한다"며 "한화의 자체사업은 점차 매출 성장과 더불어 수익성 개선을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요지주회사들의 비상장사와 상장사 비중 (단위: %)



SK역시 현재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원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SK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상장자회사들(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C의 컨센서스 사용)만 추정해도 1조 50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기덕 기자 kiduk@

국민연금 날개단 금융주 '꿈틀'

KB금융·신한지주 지분 늘려 최대주주로
"장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 영향" 기대감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이 금융주에 대한 투자확대에 나섰다는 소식 때문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KB금융 지분을 6.12%로 늘렸다. 이에 국민연금은 네덜란드계 은행인 ING Bank N.Y(5.02%)를 밀어내고 최대주주가 됐다.

신한지주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다. 신한지주 지분을 기존 6.08%에서 7.09%로 확대한 것. 국민연금은 이번 지분 확대로 BNP파리바 S.A.(6.35%)를 제치고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금융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증시 비중의 4% 가량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가 됐다는 소식이 이들 종목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초 연기금 매수가 집중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바 있으며 전날에도 국민연금이 5% 이상 신규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상장사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다.

에스엠과 베이직하우스, 네오위즈게임, 현진소재, 종근당바이오, JCE등이 급등세로 장을 마감했다.

KB금융과 신한지주의 경우 국민연금 지분 매입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로 마감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금융주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 최근처럼 대외 환경이 악화될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 우려 등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연금과 같은 안정적인 투자자가 유입될 경우 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분확대가 주가 상승으로 바로 연결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주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자 국민연금이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도 국민연금이 금융주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나섰지만 대부분 단순 투자목적 성격이었던 만큼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은행업종 주가 추이 (단위: 원)



국민연금기금 주요 금융지주 지분율

종목	지분율
신한금융지주	7.09%
KB금융지주	6.12%
하나금융지주	8.33%
우리금융지주	4.69%

*자료=금감원 전자공시
*2011. 10월 현재

〈머니마켓펀드〉

단기상품 MMF 하룻새 3조 유입

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로 하룻새 3조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됐다. 대외 불확실성에 국내 증시가 '갈 지(之)'자 행보를 이어가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재투자 타이밍을 노리고 단기자금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MMF로 3조872억원이 들어왔다. 지난 5일부터 순유입세가 지속되며 사흘간 몰린 돈은 5조8810억원에 달한다. 이에 총 설정액은 62조1029억원으로 늘어났다. MMF 설정액이 62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23일(62조2827억원) 이후 5개월여만의 일이다.

MMF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주체는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이 속한 기관이다. 실제 기관은 지난달 30일부터 닷새연속 '순유입' 행보를 이어가며 5조881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MMF에 넣었다. 국내 증시가 출렁이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일단 위기 국면에서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대한과학 코스닥 상장기념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KRX)사옥 종합홍보관에서 대한과학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원식 코스닥협회 부회장, 진수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서은택 대한과학 대표이사, 정태영 대우증권 IB본부장.

한·미 原電 협력강화… 원자력 관련주 들썩

남아공·체코 등 증설 계획도 한 몫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주춤하던 원자력 관련주들이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아공, 체코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증설 계획을 가시화하면서 글로벌 원전시장이 해빙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의 원자력 관련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병화 현대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원전사고 후의 글로벌 원전시장의 움직임은 과거 체르노빌과 스리마일 사고와 판이하게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과거 원전 수요의 대부분이 선진국 위주였던 것에 반해 최근의 잠재수요자가 대부분 산업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간의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방안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원자력 분야의 사실상 국제적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美기계공학회(ASME)와 오는 12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원자력표준 공동워크샵'을 개최하고 양국의 원자력 관련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채용 기자 mywish73@

"증시 바닥쳤다" 증권가 낙관론 솔솔~

유럽 위기 공조·美 고용지표 양호
증권가 보고서 부정적 전망 사라져

8월 이후 국내증시를 짓눌렀던 미국의 경기침체와 유럽의 재정위기가 해결기미를 보이면서 증권가에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공조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미국 경제지표들도 양호한 편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성급한 낙관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 주식시장은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지표 부진 등으로 비관론이 지배했다. 증권사들의 보고서에서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살얼음판'과 같은 부정적 표현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정상의 은행 지원 합의에서 나타난 유럽의 공조움직임과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 등으로 분위기는 반전되기 시작했다.

11일 우리투자증권 강현철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그리스 재정위기만 주시해왔지만 미국 경기가 변곡점에 들어선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뉴욕 월가의 시위가 공화당을 압박해 부양책이 통과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미국이 연내 이중침체(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은 아주 작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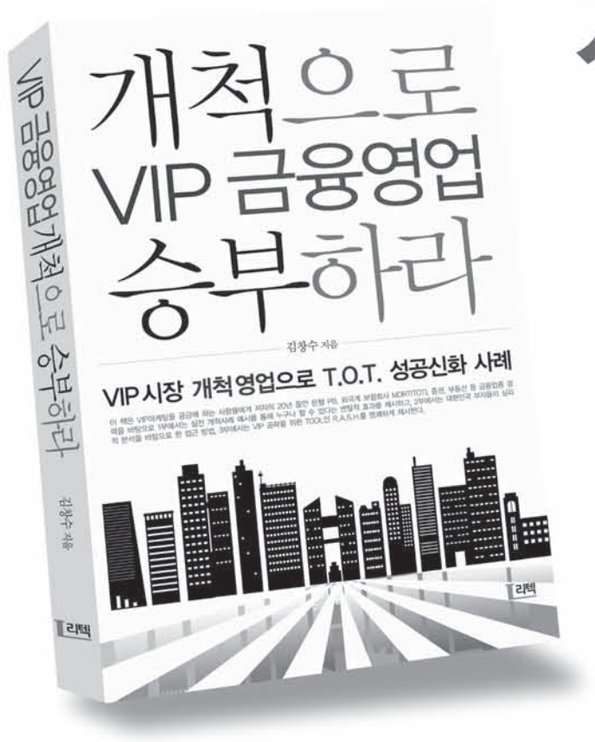
이어 "그리스를 포함한 유로존 국가들의 연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가능성도 작아졌다. 코스피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수준인 1590~1650을 밑돌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부양책으로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올거라는 설명이다.

토러스투자증권 오태동 연구원도 "유럽 정책당국이 재정위기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고 경제지표도 시장 눈높이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 비중 확대를 주문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미국 경제지표가 개선돼 더블딥 가능성은 작아졌지만, 유럽 재정위기 해소 과정은 잡음을 낼 공산이 크다"며 "긴축 위험이 여전한 신흥시장 경제지표도 시장에 실망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기자 jh@

저자! 독자들의 물음에 답하라!



저자 김창수 | 값 13,000원 | 도서출판 리텍
문의 TEL 02-2051-0311 email rash1@naver.com

일반독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성공공식 **R. A. S. H.** 는 무엇일까?"
정말 **혼을 담은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 것일까?

금융 관련인(PB FP FC LP 등)

VIP영업개척으로 **MDRT(T.O.T.)**달성 가능할까?
부자들은 **장기성 금융상품**을 왜 좋아할까?
부자들이 **CEO PLAN**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금융 리더들

직원 스스로 움직일수 있는 **모티베이션 수단**은?
가망고객이 없어서 고민하는 직원들의 해결 방법은?
리쿠르팅시 금융영업을 망설이는 후보자에 대한 대책은?
새로운 판매채널 **Social Finance**란? **금융집단지성** 도래 영향은?

위의 독자들의 질문에 관하여 저자는 20년 동안 은행 PB, 외국계 보험회사 MDRT(T.O.T.), 증권, 부동산 등 금융업종 경력을 바탕으로 1부에서는 실전 개척사례 예시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멘탈적 효과를 제시하고, 2부에서는 대한민국 부자들의심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접근 방법, 3부에서는 VIP공략을 위한 TOOL인 R.A.S.H.를 명쾌하게 제시한다.

"더 싸게 사서 제값에 팔아드려요"

증권사 부서 탐방 VIP투자자문 전략기획팀

여러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가 종합 레스토랑이라면 투자자문사는 전문 음식점이다. 이곳에서도 역시 '손님은 왕'이지만 모든 손님의 입맛에 맞출 수는 없다. 박영수 VIP투자자문 전략기획팀장은 이를 '작은 설렁탕집'이라고 표현했다. "스테이크를 원하면 다른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설렁탕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최고의 설렁탕을 대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보였다.

VIP투자자문의 VIP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Very Important Person이 아니다. 'Value Investment Pioneer'의 약자를 따서 '가치투자의 개척자'라는 의미를 담았다. 박 팀장은 "아직도 가치투자의 개념과 철학이 일반화되지 않았다"며 "일반적인 주식 투자 전략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라면 가치투자는 더 싸게 사서 제값에 팔겠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이 그랬듯, 시장에서 저평가된 가치주를 찾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산을 불려간다는 계획이다.

저평가주 찾아 투자 '가치투자' 전문

투자성향 안맞는 고객 단호히 거절

VIP사모펀드 연복리 18.35% 기록

글로벌 가치투자펀드 만들 계획 중



박영수 VIP투자자문 전략기획팀장(가운데)이 29일 서초구 반포동 사무실에서 팀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때문에 투자성향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져오더라도 "죄송하지만 고객님은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라는 말만 듣고 돌아가게 된다. 전략기획팀은 잠재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VIP투자자문의 투자철학에 맞지 않는 고객을 거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모든 고객과 대면상담을 하는 덕에 전국에 안 다녀본 곳이 없다고 한다. 진도에 있는 고객을 만나기 위해 5시간 넘게 버스를 타거나, 약속시간을 맞추기 위해 잡아탄 택시 요금이 5만원이 넘는 일도 새삼스럽지 않다.

일단 VIP투자자문과 인연을 맺은 고객을 관리하는 것도 전략기획팀의 업무다. 운용팀이 낸 성과를 분석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운용팀의 포트폴리오 회의도 주관한다. 고객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운용팀과 함께 기업 탐방도 함께 간다. 특히 투자 후보로 올린 종목뿐 아니라 경쟁사까지 모두 돌아볼 정도의 발품으로 유명하다.

박 팀장은 "개미들이 돈을 잃는 이유는 본인이 고른 종목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경기가 둔화되고, 환율 원자재 가격이 급변할 때 내가 투자한 종목은 어떻게 될까 충분히 고민했나 자문해 보라"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는 '가치의 손상'이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한다"며 "만약 손상이 있으면 골라내고, 장기적으로 낫다 싶으면 단기적 변동에는 투자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우리는 꿈을 팔고 있다"며 "우리의 꿈과 함께 고객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2003년 7월 금감원에 등록된 VIP사모펀드의 누적수익률은 10일 현재 298.19%, 연복리로 환산하면 18.35%다. 일임형 자문 고객의 재계약률은 90%가 넘는다.

높은 재계약률은 물론 감사하지만 그보다는 높은 수익률이 더 보람있다는 팀원들이다. 박 팀장은 "고객의 돈을 대신 관리하는 투자자문의 특성상 수익률이 높게 나와 고객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것 만큼 뿌듯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VIP투자자문은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박 팀장은 "앞으로 각 국가별로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 글로벌 가치투자 펀드를 만들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자동차 종목에서 현대차와 폭스바겐을 비교하고, 모바일 기기 업종에서 애플과 삼성전자와 구글을 비교해 가장 가치있는 투자처를 찾아내는 것이다. 전략기획팀원들은 "80살까지 '가치투자의 가치'를 고객들과 함께 즐기고 싶다"며 활짝 웃었다.

이다람 기자 zing@

변동장, 압축포트폴리오펀드에 관심을

Fun&Fund

15~30개 소수 종목 집중투자

일반펀드보다 위험 높지 않아

압축포트폴리오펀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펀드로 평균 60개에서 100개 이상의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기존펀드와는 달리 15개에서 30개 수준의 소수종목에 압축해 집중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런 형태의 펀드는 자문사의 랩어카운트 상품이 큰 인기를 끌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산운용사에서 본격적으로 출시한 것이 그 모태이다.

일반 주식형펀드는 많은 종목에 분산해 투자한다. 특히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등은 일정비율 만큼 기본적으로 투자하고 약 20~30%의 전략종목 투자를 통해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운용한다.

펀드매니저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시장과의 큰 괴리를 줄여 큰 부담없이 운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식형펀드들의 성과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성과를 내며 '시장대비 얼마만큼 상회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로 평가 받아 왔다.

물론 한 해에 신규로 출시되는 주식형펀드 상품은 수백가지가 넘는다. 그때 그때마다 테마에 맞춰 새로운 포장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 투자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앞서 말한 비슷한 전략 일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압축포트폴리오펀드는 기존의 이런 공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펀드다. 매니저가 진정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의미 있는 비중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 결과가 펀드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펀드매니저는 압축포트폴리오펀드 운용을 꺼려하기도 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압축포트폴리오펀드는 소수종목에 투자하는 만큼 너무 공격적이지 않은지, 공격적 성향의 투자자들에게나 적합한 펀드는 아닌지 의문을 갖는다. 하지만 압축포트폴리오펀드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주식형펀드에 비해 변동성이 월등히 높거나, 위험하다고만은 단정짓기 어렵다.

미국 E.Fama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포트폴리오내 투자종목 수가 13개 이상이면 종목수가 증가해도 위험의 감소 수준은 미미하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투자종목의 수가 아니라 업종의 분산인 것이다.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압축포토폴리오펀드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 보더라도 일반주식형펀드의 평균 수치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다.

생각보다 높지 않은 위험을 갖고 매니저가 진정으로 매력적이라고 판단하는 종목에 집중투자하는 펀드, 이것이 바로 필자가 압축포트폴리오펀드를 '진정으로 펀드다운 펀드'라고 말하는 이유다.

최근 글로벌 투자환경 악화가 국내에도 미쳐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관련 상품에 선뜻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미국의 유명한 주식투자자인 버나드 바룩이 이야기 했듯이 군중을 멀리하고 오히려 '실망과 공포'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펀드다운 펀드 압축포트폴리오펀드에 과감히 투자를 시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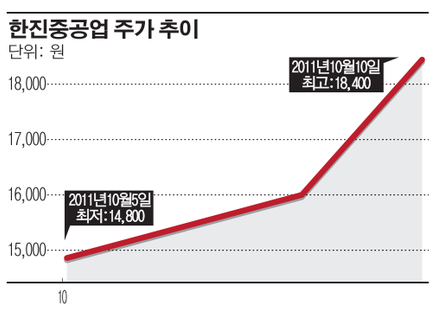


인 현 덕
동부자산운용
리테일영업 팀장

종목 레이더

노사갈등 봉합 기대감 상한가 직행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이 10일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1년간 갈등을 빚어온 노사갈등이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에 상한가로 직행했다.

하지만 장기간 부산 영도조선소 도크(dock)를 비워 경영부실이 불가피한 만큼 추가상승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이를 수용했다. 권고안은 해고노동자 94명에 대해 1년 이내 복직을 약속하고 재취업할 때까지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던 노사갈등의 해결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감에 한진중공업은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1만8400원을 기록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이며, 이 기간동안 주가는 23.4%나 급등했다.

하지만 장기간의 파업과 수주가뭄으로 그동안 배를 건조하는 곳간이 텅텅비었던 만큼 주가가 단기간에 낙폭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몇년째 개점휴업한 부산 영도조선소를 정상 가동할 수 있는 일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해고 근로자들을 재취업시키면 경영부실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게시판 한 관계자는 "조남호 회장이 정치권까지 나서자 결국 권고안을 수락하며 노조에 굴복하는 꼴이 됐다"며 "앞으로 노조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지면서 기업운영이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절대적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고, 이번 이벤트가 장단기적으로 수주재개 등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재원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번 국회중재로 노사분규 사태 해결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단기적으론 수주재개, 장기적으로는 수빅조선-일반 상선, 영도-특수선 이라는 역할 분배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기덕 기자 kiduk@



과천지식정보타운 지하철 역사 신설 추진

국토부 "경제성 충분" 판단…市 요구 수용
예비타당성조사 의뢰…타 보금자리 확산 주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지 내에 신규 지하철 역사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로서 타 보금자리지구에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국토부·LH·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8월 LH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 내 지하철 4호선 신규 역사 설치(역명 미정)를 위한 경제성 조사 차원에서 서울 A대학 공학연구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제타당성 조사에서 기존 선로 위에 신규 역사 설치 실현 가능성, 비용 대비 경제성 등을 파악해 사업추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비를 비롯해 역 이름, 준공시기 등 대부분 미정이나 사업비의 경우 기존 선로 위에 역사를 추가하는 난공사인 만큼 최대 2000억원 가까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현재 4호선 정부청사역과 인덕원역 사이가 3㎞가 넘는 데다 보금자리주택 입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과천시의 요구뿐만 아니라 보금자리가 5000가구 가까이 들어서는 만큼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며 "추가 역사 설치가 경제적인지 타당성 조사를 통한 판단한다. 사업비는 LH가 부담할지, 과천시와 함께 부담할지 미정"이라고 말했다.



근거도 충분하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의 경우 사업지 면적이 135만3000㎡으로 100만㎡이 넘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대상지가 되기 때문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택지개발 때 수립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의 경우 도심에서 15~17㎞ 안팎에 들어서는 만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도 "과천은 강남 서초와 또 다르다. 인덕원과 청사역 사이가 멀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천지구 내 지하철 역사 신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타 지구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지 관심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실제로 강동구는 지하철 9호선의 연장선의 설치를 요구하는 등 대중교통 추가 설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보금자리 사업 초기 밀어붙이는 분위기에서 최근에는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는 등 한 발짝 물러서고 있다. 타 지구에도 확산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

성남고등 보금자리 3960가구 공급

12월 중 사업승인 받기로

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이 확정됐다. 앞으로 이곳에는 396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성남고등지구(56만9000㎡)에 보금자리주택 3006가구를 포함해 총 3960가구(1만692명)를 공급하기 위한 지구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공분양(60㎡이하, 60~85㎡)은 1304가구, 10년임대·분납 또는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는 761가구,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가 941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공공임대, 장기임대 2개 블록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차별화된 디자인 특화단지로 개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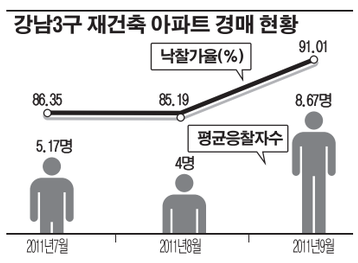
민간분양(60㎡이하, 60~85㎡ 혼합블록) 1개 블록은 시범사업으로 원형지 선수공급방식을 도입해서 공급한다.

원형지 형태의 토지를 민간에게 미리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사업시행자(LH)가 택지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민간업계도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단독주택용지 일부에서 듀플렉스 홈(일명 땅콩주택) 건축을 권장한다.

듀플렉스 홈이란 하나의 토지에 건물은 하나이지만 좌우로 분리되는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2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주택을 말한다. 이는 독립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임대를 주거나, 마당(정원)을 확보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은 가족들을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근 청계산역, 판교역(신분당선) 등 인근의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하고, 지구내 버스정류장 8곳을 배치하는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



강남권 재건축 회복?
지난달 낙찰가율 93%

서울 일반 아파트 경매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경매시장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경매는 총 6건이 진행돼 3건이 낙찰됐다. 평균 낙찰가율은 93.0%로 전월대비 7.8%p올랐다. 평균 응찰자수도 8.7명으로 전월보다 4.7명이나 늘었다.

지난 7월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는 11건 경매가 진행돼 6건이 낙찰돼 55.0%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평균 5.1명이 응찰에 참여해 낙찰가율 86.0%였다. 이어 8월에는 평균 낙찰가율 85.2%, 평균 응찰자수 4명을 기록하며 소폭 하락했으나 9월에 들어서면서 평균응찰자 수는 8.7명으로 두 배 이상 몰려 낙찰가율을 93.0%대로 끌어올렸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투자자들이 재건축 집값이 더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입찰자들이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미정 기자 lmj@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해도 너무해"

거래가격 상관없이 0.9%
보증금 2억 주택 60만원
오피스텔은 무려 180만원
소비자들 불만 폭발 직전

부동산 임대차 중개수수료 비교

주택		오피스텔	
거래가액	요율	거래가액	요율
5000만원~1억원 미만	0.5% 이내(20만원 한도)	구분없음	0.9% 이내
5000만원~1억원 미만	0.4% 이내(30만원 한도)		
1억원~3억원 미만	0.3% 이내		
3억원 이상	0.8% 이내		

※출처:서울시

#서울시 강남구에 오피스텔을 소유한 최연성(40)씨는 최근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인을 구했지만 중개수수료를 너무 많이 지불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다. 최씨는 중개업자에게 "주택과 다를 바 없는 오피스텔이 왜 이리 중개수수료가 비싸냐"고 따져 물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중개업자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상가·빌딩 등 상업용 건물과 동일한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된다"며 "다음 거래시에도 우리 사무소를 꾸준히 찾아주면 금액을 깎아주겠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의 높은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소유자와 중개업자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피스텔은 매매·임대차 계약시 일반주택의 약 2~3배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내도록 규정돼 있어 계약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상(서울시 기준) 아파트 등 주택 임대차의 경우 거래가격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5%(20만원 한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30만원 한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0.3% , '3억원 이상'은 0.8% 이내 등으로 중개수수료가 거래가격별로 세분화돼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천편일률적으로 0.9% 이내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예컨대 보증금 2억원의 주택 임대차 계약시에는 수수료가 60만원 이내에서 결정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그 차이가 최대 3배에 달한다.

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택의 경우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만 0.9% 이내에서 중개수수료가 결정되고 나머지는 거래가격별로 0.4~0.6% 선에서 결정되나, 오피스텔은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0.9% 이내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문제는 간혹 최대 상한요율을 마치 통상적인 수수료인양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중개업소들이 존재하고, 의뢰인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들 중개업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서울시 마포구 B공인 관계자는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수수료를 비싸게 받는다고 소문이 나면 문 닫아야 한다"며 "오피스텔 수수료를 0.8~0.9%까지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 0.6~0.7% 선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개업소간 비교를 통해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찾는 게 현재로선 최선책"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중개협회 관계자는 "오히려 중개업자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하고도 의뢰인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다"며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daniel@



현대산업개발, 고덕아이파크 잔여분 공급

현대산업개발은 1142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인 '고덕 아이파크'잔여가구를 분양중이다.

옛 고덕 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상 12~20층 14개동 전용면적 59~177㎡의 다양한 주택형으로 이뤄졌다. 특화된 설계는 물론 단지 내 최고 수준의 입주민 커뮤니티시설 뿐만 아니라, 교통·교육·생활편의시설 등 주거환경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거실과 침실이 남향 위주로 배치돼 있으며, 방과 거실을 전면에 배치한 3베이 이상의 평면 구조로 채광과 통풍은 물론 개방감이 좋다. 각 침실에는 베란다가 있어 활용 공간이 널찍하다.

단지 내 주차장은 모두 지하로 배치했다. 승용차의 대형화에 따라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주차장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집으로 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입주민의 건강과 취미 생활을 위한 풍부한 커뮤니티 센터 아이파크 클럽에는 대형 휘트니스 센터와 실내 골프연습장 등을 갖췄다.

고덕 아이파크는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으며 올림픽대로와 천호대로, 암사대교를 이용해 잠실·강남권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대형 할인마트인 이마트(명일점)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며, 현대백화점(천호점)과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등도 가깝다. 샘터공원, 방죽공원 등 크고 작은 근린공원들도 주변에 있어 주거여건이 쾌적하다.

주변에 묘곡초, 배재중, 배재고(자율형 사립고), 광문고, 한명고, 한명외고, 명일여고 등 명문학군이 위치하고 있다. 문의 02-441-1999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동영상 DVD"
2011년 완전개정판, 합격율 99%!!
2011년 10월 23일은 '22회 공인중개사 시험 예정일' 입니다.
2011년 완전개정판 강의를 수록한 '신바람 공인중개사 동영상 강의 DVD' 그동안 신바람 공인중개사 시리즈로 공부하여 합격한 여러 선배 중개사님이 보증한 동영상 DVD입니다!
믿고 선택하여 공부하면 나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308,000원
198,000원
Full Set 가격
(교재별도)
점찬 판매중!
피부미용사 동영상 강의
198,000원 (교재별도)
Set 구성
▣ 부동산학 개론 (DVD 3장/42강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DVD 3장/42강좌)
▣ 중개법 및 중개실무 (DVD 3장/42강좌)
▣ 부동산 공법 (DVD 3장/42강좌)
▣ 부동산 세법 (DVD 3장/42강좌)
▣ 부동산 공시법 (DVD 3장/42강좌)
1 기본강좌를 3번 이상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필요에 따라 출제비율을 보고 강약을 조절한다.
3 기본 강좌를 한번 더 반복 청취한다.
4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출제 경향 및 시험에 여러문제들이 나오는지 미리 공부한다.
5 요점정리 강의, 문제풀이 강의 등으로 마지막 점검한다.
※ 검색창에 신바람 공인중개사 동영상 강의 DVD 를 치세요!
※신바람 공인중개사 동영상 강의 DVD 2차 Set 198,000원(교재별도)을 구매하신 분에 한하여 공인중개사 동영상 강의 DVD 1차 Set(110,000원)+21회 기출문제 동영상 강의 DVD(45,000원)을 무료로 드립니다.(선착순 500명 한)
39,600원x5개월 (카드 5개월 무이자 할부)
상담문의
24시간 365일 콜 080-588-0011
|주| 나래블루미디어 인터넷 동영상(공무원, 자격증, 검정고시 강의)
www.predu.co.kr/통신 판매업 2011-서울 양천-00134
인터넷 판매처 인터파크 YES24.COM AUCTION GMARKET 알라딘 KYOBO TECHNODVD movie4989 ozdvd.co.kr BANDI & LUNI'S E-MART mall.com
"세계 최고의 CD/DVD/BD 복제방지 전문 솔루션"
Protection
(주)나래블루미디어
복제방지 CD-R, DVD-R
Safe-Rom™
Safe-Rom은 복제방지 솔루션입니다
Safe-Rom은 귀사의 소중한 컨텐츠를 무단복제로 부터 보호하고 탁월한 호환성과 안전성으로 귀사의 자산을 안심하고 지킵니다
Safe-Rom의 개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면의 독특한 불량트랙과 이를 확인하는 PC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제방지가 적용된 CD-R/DVD-R
사용자가 작접 손쉽게 복제방지 CD/DVD/BD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Safe-Rom"을 만나 보세요!!
www.safe-rom.com (주)나래블루미디어

수험생 논술준비 겹쳐 '허둥지둥' 학부모 벌써 전형료·등록금 걱정

▌수능 D-30 이모저모

#고3 수험생을 둔 회사원 이시현(49·가명)씨는 지난 8월과 9월 동안 아들의 각 대학 수시 전형료로만 70만원을 지출했다. 이씨의 아들은 수능 이후 수시 2차 전형 등에도 너댓 군데 더 지원할 계획이다. 2차와 3차 전형에 정시 모집까지 합치면 전형료만으로 50만원 이상 더 쓸 수밖에 없다. 이씨는 이제 대학생 학부모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 전형료·맞춤논술…학부모 허리 '휘청'= 현재 대학별 수시 및 정시 지원 전형료는 10만원 안팎이다. 수시 전형은 일정에 따라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어 지난 해에는 무려 61곳에 지원한 수험생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작년에 비해 대입 수시 응시자가 30%가량 늘어난 만큼 올해는 대학의 전형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회 박보환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181곳이 대입 전형료로만 2295억원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사교육비 지출도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다른 과목보다 훨씬 비싸지만 수시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수험생들은 비싼 가격도 마다하지 않는다. 서울 목동의 한 논술학원 강사는 "8월부터 지금까지 모든 강의가 꽉 찼다"며 "이곳을 말고도 대형학원은 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에서 금지하고 있는 야간 강의 개설을 오히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3에서 대학1년생까지 최소 금액은…= 우리나라 고교생 한 명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6만5000원으로 1년에 318만원의 수준이다. 자녀가 둘이라면 636만원, 셋이면 954만원이다. 교과부 통계인 만큼 실제 사교육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형료와 수시대비 사교육비가 더해진다. 지난해 학생들은 전형료로 평균 약 40만원에 가까운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 3곳의 전형료를 각 10만원으로 잡으면 약70만원이 된다.

올해 국내 4년제 사립대학들의 평균 등록금은 768만8000원이다. 신입생은 등록금 외에 100만원 안팎의 입학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진학하는 대학이 집에서 멀다면 월평균 약50만원의 자취비용이 추가된다.

이 경우 1000만원 수준인 보증금의 기회비용도 날아간다. 마지막으로 최소한 월 50만원에 달하는 생활비와 교재비 등은 더하면 이를 합산하면 단순계산으로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직접 비용만 2528만8000원에 달한다.

◇바빠진 수험생 '시간이 모자라다' = 답답한 것은 학부모만이 아니다. 수험생들도 수능에 임박해 바빠진 수시 일정 때문에 어디에 비중을 둬야 할 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고3 수험생 정은별(18·가명)양은 목표로 삼은 대학 11곳 가운데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4곳이 같은 날 논술고사가 겹쳤다. 정양은 "수능은 수능대로 수시논술은 논술대로 집중을 할 수 없다"며 "미리 시험 시간까지 알려주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시모집의 문이 좁아진 탓에 한 두문제만 실수해도 등급이 바뀔 수 있는 상위권 학생들은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묻지마' 지원 근절대책 나와야 = 교육계 전문가들은 지금 현상이 수시 과열 경쟁으로 빚어진 혼선인 만큼 수시 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한 방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송현섭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는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너무 커서 최소한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실제 수시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지원 횟수가 평균 3.7회 정도라는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지원 회수를 5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g@



어머니의 기도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1일 오전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서울 봉은사를 찾아 수능 합격을 기원하는 불공을 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수험생 건강관리 이렇게!

- **평소 수분과 비타민 자주 섭취해 감기 예방해야**
  감기는 수험생들에게 공공의 적. 사워는 미지근한 물에, 아침저녁으로 찬 공기 피하고 비타민과 단백질을 섭취해 면역력을 강화할 것.
- **'과유불급' 수면시간, 식사량 조절**
  적어도 5시간 이상은 자고 수능 당일에 맞춰 생활. 불면증에 해로운 커피, 녹차 멀리하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도 도움.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스트레스 줄여야**
  '장 트러블' 증세로 수능 망치는 수험생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원인. 스트레칭, 산책, 음악 감상 등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유도할 것.
- **생리전증후군, 아로마 마사지나 온열찜질로 완화**
  장시간 의자에 앉아있기, 불규칙적인 식사, 아침거르기, 수면부족 등은 생리통을 악화시키는 습관. 생리통이 심할 경우 핫팩으로 온열찜질을 해주면 통증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두뇌 활성화 돕는 건강식 충분히 섭취**
  기억력 향상과 시력 개선에 효과적인 오메가3가 함유된 등푸른 생선 섭취. 특히 가을철 꽁치에 영양분이 높다. 눈이 피로하다면 굴을 먹으면 좋다.



이윤재 피죤 회장 사전영장 방침

경찰, 청부폭행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이은욱(55) 전 사장을 폭행할 것을 지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윤재(77) 피죤 회장에 대해 이날중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김모(50) 피죤 이사를 통해 조직 폭력배들에게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광주 폭력조직 무등산파 조직원 오모(41)씨와 오씨의 지시를 받고 이전 사장을 폭행한 오씨의 무등산파 후배 3명을 도망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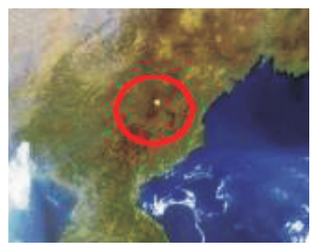
경찰은 지난 5일, 10일 두 차례에 걸친 이 회장 소환 조사, 이 회장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이 회장의 범행에 관한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와 조직 폭력배 3명은 경찰에 체포돼 최근 구속됐다. 청부폭행 대가로 김 이사로부터 3억원을 건네받은 오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권한을 남용하고 회사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사장에 취임한 지 4개월 된 이 전 사장을 해임했고 이에 불복한 이 전 사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및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신의 집으로 귀가 중이던 전 사장은 괴한 3명으로부터 폭행당했다. 황윤주 기자 hyj@

'눈덮인 백두산' 천리안위성 관측



기상청은 지난 8일 백두산에 눈이 쌓인 모습이 천리안위성 영상에서 관측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해양부와 기상청이 천리안위성으로 관측한 것으로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성센터가 공동으로 분석한 것이다.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가 8일 오전 11시15분께 관측한 1km 해상도의 천리안위성 기상탑재체 가시영상에서 눈 쌓인 백두산 지역과 중심의 천지 부분이 확인됐다.

천리안위성 기상탑재체는 한반도 지역에 대해서 1시간에 최대 8회까지 관측이 가능하므로 준 실시간으로 기상현상을 감시할 수 있다. 적설영역은 가시영상의 동영상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구름과 구별된다.

또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성센터에서 수신해 처리한 이날 오전 11시16분께 천리안 위성의 해양탑재체(GOCI) 칼라합성영상에도 지난 3일에 관측한 영상에 비해 백두산 영역의 적설이 선명하게 확인되며 백두산 중심의 천지가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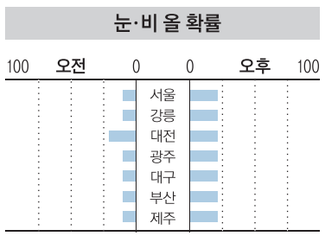
내일의 날씨 (최저/최고) ☀ 해뜸 06:37 해짐 18:00 ☽ 달뜸 17:46 달짐 06:37



오후 흐림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후 오후부터 구름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7도, 낮 최고기온은 19~25도가 되겠고 바다의 물결은 0.5~2.0m로 일겠다.

눈·비 올 확률



※ 자료 : 기상청

車 번호판 선택폭 2개→10개로 특성화고 정원외 특별전형 축소

국토부 내주부터 실시

앞으로 자동차 번호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현재 2개중에서 고르게 돼 있는 자동차 번호의 선택폭이 10개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7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소유자들은 자동차 번호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번호 2개(홀·짝수)를 확인해 골랐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뒷 2자리 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향한 제도개혁의 방안"이라며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번호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등록관청에서 사망자 가족에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기로 했다. 김성배 기자 sbkim@

2013~2014학년도 3%로 2015학년도에는 1.5%로

2013학년도부터 대학 입시에서 특성화고 출신 학생을 위한 정원외 특별전형 규모가 줄어든다. 또 전문대도 '대학교'명칭을 사용하게 되며 간호과는 4년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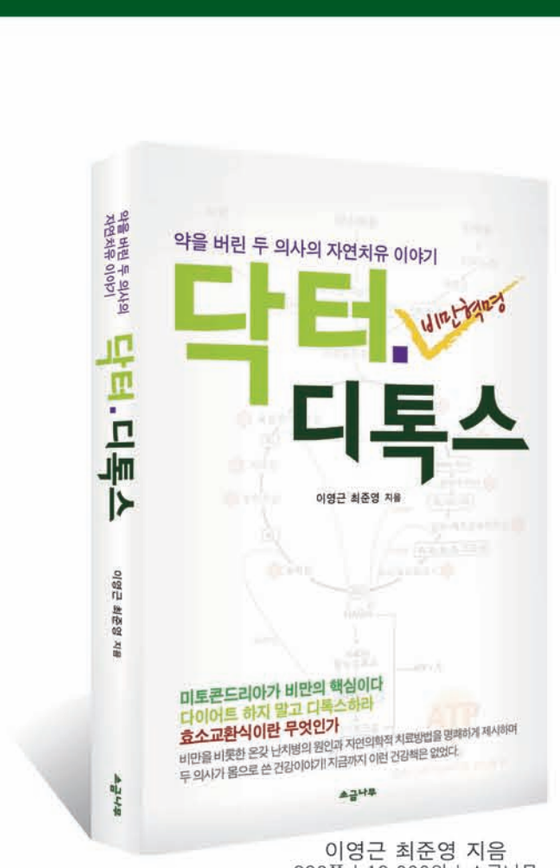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은 현행 5%에서 2013~2014학년도에 3%로 줄어들고 2015년도에는 1.5%로 줄어든다.

하지만 마이스터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대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의 명칭을 '대학'으로 한정했지만 내달부터 정관만 변경하면 '대학' 또는 '대학교' 가운데 선호하는 명칭을 교명에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대에 수업연한이 4년제인 간호과와 산업체 재직 경력이 없어도 입학해 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각각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박태진 기자 tjpippo@



이영근 최준영 지음
392쪽 | 13,000원 | 소금나무

약을 버린 두 의사의 자연치유 이야기

닥터 디톡스

다이어트 하지 말고 디톡스하라!

비만을 비롯한 고혈압, 당뇨, 암 등 모든 질병의 치유는 디톡스로부터 시작된다
약을 처방하지 않고 효소식품으로 몸의 독소를 빼내며 통합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실천하는 자연치유의원
현대의학과 자연의학의 통합적 관점에서 건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책

의학박사 이영근 장내세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효소식품을 개발해 본인이 12kg감량 후 비만디톡스 프로그램과 건강기능식품의 접목에 매진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강남의 아이러브자연치유의원/비만센타에서 연구와 진료활동을 하고 있다.
의학박사 최준영 차의과학대학원에서 대체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차의과학대학 대체의학대학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대한보완통합의학회 총괄간사 및 학술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아이러브자연치유의원 원장으로 있다.

소금나무 전화 02)525-0035

창간 1주년 특별기고

저축銀, 서민금융 본래 모습 되찾는다



주 용 식
저축은행중앙회장

프리미엄 석간 경제신문 '이투데이'의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경제 산업 분야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온 이투데이 임직원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투데이는 오프라인 지면을 통해 보다 분석적인 기사를 제공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온라인으로 보다 발빠르게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1년의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투데이가 'No.1'이 아니라 'Only 1'을 지향하는 경제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깊이 있는 문제 분석과 대안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토양을 보다 비옥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언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정부, 기업,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소개하면서 경제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상호 소통을 이끌어내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 미국 경기 장기침체 등 최근처럼 요동치는 경제 상황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등으로 예금자들의 불안이 팽배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설득해야 할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三寸之舌彊於百萬之師(삼촌지설강어백만지사).' 세 치의 혀가 백만 군사보다 강하다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말을 조심하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언론은 대중을 움직이고 대중 심리는 시장을 움직입니다.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대중심리가 과도하게 안일할 때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나치게 불안할 때는 안심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의 참 기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당대출… 방만경영… 불건전한 관행으로 국민에 실망만 안겨 뼈 깎는 구조조정 통해 신뢰받는 은행 거듭날 것"

중요한 것은 병세가 얼마나 심하냐가 아니라 그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입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감정적인 불안감을 떨쳐내고 이성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투데이가 어디로 갈지 몰라 허둥대는 시장에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예금자,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부 관료들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매체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금융시장이 이투데이에 갖는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고 단단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빠르면서 정확하다는 독자들의 평판이 이투데이가 'Only 1'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언론이 그렇듯 금융도 고객의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저희 저축은행업계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게 사실입니다.

일부 저축은행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꼴쳐왔던 부당한 경영 방식이 정도경영을 하고 있는 다른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현재의 모습이 개인적으로 다소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들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절차탁마(切磋琢磨)하지 못한 업계의 자세에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저축은행업계는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감독당국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 불건전한 관행을 타파하고 정도경영의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업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정립하고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지역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투데이가 앞으로 더욱더 전진하는 모습을 항상 바라보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저축은행업계가 과오를 씻고 새롭게 일어서는 모습에도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기부는 순이익 떼어내 기부하는 것"

'경주 최부자' 종손 최염 중앙종친회장
내년 백산무역 세운 할아버지 자서전 출간

최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성장의 과실을 소외계층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경주 최부자 일가가 재조명받고 있다.

10일 서울 종로구 운니동 종친회 사무실서 만난 최부자 가문의 종손 최염(79) 경주최씨 중앙종친회장은 "회사의 순이익 중 일부를 떼서 기부하는 것이 진정한 기부" 라며 재벌들의 기부에 대해 지적했다.

경주 최씨 집안이 부자가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회장의 10대조인 최국선씨는 소작을 주고 장리(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쳐서 받는 것) 등으로 재산을 늘려나갔다.

농사를 직파법에서 이앙법으로 과감히 전환한 것도 곳간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다.

최 씨는 빌려준 곡식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자 처음엔 임차인들이 괘씸했지만 이웃들이 굶어죽는 광경을 보고 '혼자 부자로 지내도 마음은 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에 최 씨는 장리문서를 불태우고 소작료를 70%에서 50%으로 낮췄다. 최 회장은"이후 최부자가 논을 사면 모든 소작인들이 박수를 쳤다" 며 "부를 비우니 더 큰 부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할아버지인 최준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에 가담하며 가문을 더욱 빛냈다.



최염 경주최씨 중앙종친회장

그는 "할아버지께서 만석꾼을 포기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대기 위해 백산 무역을 설립한 것이 완전한 기부였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최 회장은 현재 할아버지를 대신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서전을 집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출간될 예정이다.

최 부잣집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 집안을 다스리는 제가(齊家)의 가훈 '육훈(六訓)'과 자신의 몸을 닦는 수신(修身)의 가훈 '육연(六然)'이다.

육연은 자처초연(自處超然·스스로 초연하게 지낸다), 대인애연(對人靄然·남에게는 온화하게 대한다), 무사징연(無事澄然·일이 없을 때는 마음을 맑게 가진다), 유사감연(有事敢然·유사시에는 용감하게 대처한다), 득의담연(得意淡然·뜻을 얻었을 때는 담담하게 행동한다), 실의태연(失意泰然·실의에 빠졌을 때는 태연하게 행동한다) 등이다.

육훈은 '만석 이상 하지마라, 흉년에 논을 사지마라, 진사 이상 하지마라,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도록 하라, 며느리가 들어오면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혀라, 과객을 후하게 대하라' 등이다.

경주 최부자 집안이 300년간 소외계층의 지지 속에 부와 명예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정아름 기자 jar43@

"한국 규제 더 풀고 물류 개선해야"

발레리오 신임 EU상의 회장



장 뤽 발레리오 신임 주한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한국과 EU 기업이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이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물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레리오 회장은 10일 서울 국도호텔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더 많은 EU 자본을 유치하려면 금융 서비스의 완벽한 자유화·지적재산권 보호 강화·국제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각 정부 담당자가 정책을 이행하고 해석하는 수준에 제약이 있다"고 언급했다.

발레리오 회장은 특히 "한국은 물류 분야에서는 비용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제적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한국 내 EU 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서는 "한국과 EU는 이미 매우 역동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FTA를 통해 더욱 강력한 경제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윤석금 회장 등 '기후변화 리더상' 수상

기후변화센터는 10일 창립 3주년 후원의 밤 행사에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등 5명에게'제1회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를 시상했다. 왼쪽부터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박영필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김기호 서울대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소장, 이장무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윤석금 회장, 조성식 포스코파워 대표, 최열 환경재단 대표.

밸류투자자문 대표 김강수씨



밸류투자자문은 10일 신임 대표이사에 김강수(52·사진) 전 한국금융투자협회 이사를 선임했다. 김 대표이사는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홍보실장, 메리츠증권 이사를 거쳐 한국증권업협회 이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이사, (주)인포트인베스트먼트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국립과천과학관장 최은철씨



국립과천과학관은 10일 제3대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에 최은철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사진〉을 선임했다. 최 신임 관장은 기술고시 16회 출신으로 부산대에서 전기공학 학·석사, 영국 브리스톨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기술협력1과장, 대통령비서실, 우주기술개발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달의 엔지니어상 장관식씨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0일 나노캠텍㈜ 장관식(42·사진) 연구소장을 '이달의 엔지니어상' 10월 수상자로 선정했다. 장 소장은 유기전도성 고분자(전기를 통하는 플라스틱)를 이용한 부품·소재 개발 전문 엔지니어로, 정전기를 막는 '대전(帶電) 방지용' IT 기기 재료 등의 국산화를 이끈 주인공이다.

인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시설투명성향상인권보호TF 팀장 장호연

◆조달청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조달교육담당관 송왕면 △전자조달국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 김대수 △구매사업국 자재장비과장 이순재 ◇과장급 승진 △국제물자국 외자기기팀장 오세홍 △인천지방청 자재구매과장 한윤자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정혜웅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장 이석준 △기획조정관실 인권상담센터장 김대철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장 조영호 △조사국 장애차별조사2과장 유인덕

◆식품의약품안전청 △대변인 김진석 △식품안전국 수입식품과장 홍헌우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정책과장 유무영 △〃 의약품관리과장 김성호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장 임종현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장 김관성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장 김성만 △〃 식품안전관리과장 양창숙 △〃 의료제품안전과장 신준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권수 △〃 유해물질분석과장 강호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최재순 △〃 유해물질분석과장 박건상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김상봉 △〃 유해물질분석과장 윤미옥

◆문화재청 ◇과장급 △정책총괄과장 강경환 △운영지원과장 김홍동 △보존정책과장 김원기 △천연기념물과장 도중필

◆SBS·SBS미디어홀딩스·SBS플러스 ◇SBS △이사 제작본부장 박정훈 △이사대우 방송지원본부장 김희남 △기획실 부국장급 기획팀장 이홍근 △" 부장급 심의팀장 유인수 △방송지원본부 부장급 인사팀장 천인식 ◇SBS 미디어홀딩스 △부장급 경영지원팀장 이동희 ◇SBS플러스 △채널사업실장 정환식

◆한전산업개발 〈전보〉 ◇처장(본사) △기획 김인덕 △발전 김윤태 △연구개발 김명갑 ◇실장(본사) △발전기술 조규산 △민자발전사업추진 이정호 △영업운영 이병수 ◇지사장(배전지사) △서울 윤정선 ◇지점장(배전지점) △동부 전병하 △강서 조영철 △여주 윤봉길 △아산 황호영 ◇처장(발전사업처) △삼천포 권용준 ◇운영실장(발전사업처) △보령 최민현 △태안 이용규 △당진 박봉식 ◇소장(발전사업소) △호남 김홍식 △서천 윤태산 △울산 최우용 △여수 최환호 △남제주 이광호 〈파견〉 ◇한산기전 △사장 조현수

◆한국발명진흥회 ◇팀장급 전보 △인재개발본부 산업인력양성팀장 백인홍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팀장 홍성일 △성과관리TF팀장 김용규 △경영기획본부 운영지원팀장 이두성 △경영기획본부 전략기획팀장 한정무 △사업지원본부 발명진흥팀장 유태수 △경영기획본부 정보화지원TF팀장 김운선 △인재개발본부 교육기획팀장 송상엽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상임이사 이원준

◆서원대 △인사관리팀장 이성용 △홍보협력팀장 이원식 △기획예산팀장 최경진 △구매관리팀장 이병노 △교수학습팀장 윤기준 △학생생활관 운영관리팀장 윤갑수 △학생활동지원팀장 이용희 △교수지원팀장 주선구 △총무팀장 윤 탄 △교육지원팀장 김태현 △취업지원팀장 임준혁 △국제교류팀장 최순열 △여성커리어개발팀장 장동균 △연구협력팀장 겸 기업지원팀장 임연혁 △학생서비스팀장 겸 장애학생지원센터팀장 전형일 △건설관리팀장 김선수

◆전북 완주군 ◇4급 △기획감사실장 홍길표 ◇5급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장 이상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임용환 △동상면장 이재문 △민원봉사과장 유형수

부음

▲박용석(법무법인 광장 공동대표 변호사, 前 대검찰청 차장검사), 운석(신동아건설 홍보담당임원)씨 부친상 = 10일 오후 7시30분,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3일 오전 8시 02-3410-3151

▲이양희(전 국회의원)씨 모친상 = 10일 오후 1시, 대전 성모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12일 오전 10시. 018-222-9499

▲박수진(헤럴드경제 사회부 기자)씨 외조모상 = 10일 오후 5시, 인천장례식장 특실, 발인 12일 오후 2시30분, 032-552-0404

▲김동숙(㈜코베아 회장)씨 별세, 상현(㈜코베아 이사)·상욱(㈜비전코베아 이사)씨 부친상 = 10일 오전 10시45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2일 오전 6시30분 02-2072-2091, 010-9042-4970

▲오현숙(전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실장)씨 별세 = 10일 오전 6시, 강북삼성병원 분향실 3호실, 발인 12일 오전 9시 02-2001-1093

▲장덕진(공정거래위원회 국장·국방대학원 교육 파견) 인찬(사업)씨 부친상, 임도연(우리은행 차장)씨 빙부상 = 10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 02-3410-6916

▲최태열(대한축구협회 부회장)씨 모친상, 박경임(매일온천 헬스클럽 대표이사)씨 시모상 = 10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02-3010-2231

▲이운재(프로축구 전남 선수)씨 부친상 = 10일 오후,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12일 043-269-6969

▲사공술(전 국제신문 기자)씨 별세, 김영아(연산중 교사)씨 남편상 = 9일 오후 5시, 부산영락공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2일 오전 10시. 051-790-5000, 010-7260-0021

▲윤영원(한국일보 광고국 차장) 영일(자영업)씨 모친상 = 10일 오전 3시40분, 강동 경희대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2일 오전 5시30분 02-440-8800

▲최대양(대교 근무) 승(자영업) 영(NICE홀딩스 부사장) 선희씨 모친상, 오규영(현대건설 차장)씨 빙모상, 10일 오전2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2일 오전8시 02-3010-2232

▲신재식(네모전기) 연식(회사원) 화준(시티신문 편집부기자)씨 부친상 = 10일 오전 0시5분, 춘천장례식장 103호, 발인 12일 오전8시, 019-224-5949

▲김진영(강원도민일보 고성주재기자)씨 별세 = 10일 오전 9시10분, 강릉아산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12일 오전 7시. 033-610-5983

▲조희태(울산신문 전 대표이사) 빙모상, 정두은(국제신문 사회2부 차장) 모친상, 장혁(탤런트) 조모상 = 10일 오전 7시, 울산영락원 201호. 발인 12일 오전 7시. 010-3574-5865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편집인 김상우 편집국장 김종현 광고국장 김진택
정치경제부 (02)799-2655 증권부 (02)799-2658 금융부 (02)799-2665
산업1부 (02)799-2664 산업2부 (02)799-2662 국제부 (02)799-2650
사회생활부 (02)799-2661 여론독자부 (02)799-2657 사진팀 (02)799-2633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스포츠문화부 (02)799-2669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03 / 260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6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0-7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 센터빌딩 6F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2012 여수세계박람회
공식후원은행



+



IBK기업은행!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이라는 이름에
「기업」이란 글자가 들어 있어,

아직도
기업은행을 「기업」만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학생, 주부, 군인, 근로자, 회사원 등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서비스

‘자연’이 집안에 쏙~ 마음이 밝아져요

주거 공간도 ‘에코 힐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자연을 통해 바쁜 삶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한다. 그래서 요즘 화두는 자연을 통한 치유다. 자연(Ecology)과 치유(Healing)의 합성어로 자연을 통한 치유를 의미하는 에코힐링(Eco-healing)이 어느새 우리 집안에도 들어왔다. 가정에서 자연의 삶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에코 힐링(Eco-Healing)’ 주거공간이 각광받고 있다. 바쁜 시간을 쪼개 밖으로 나갈수 없는 현대인들이 집안의 에코힐링이 안성맞춤이다.


유해 중금속을 포함하지 않고 기존 PVC의 경제성과 단열성을 유지하는 친환경 ABS 창호.

친환경 벽지·창호 등
정신적 안정감 선사
실내정원·수족관 등
자연 통한 치유 효과



■유해물질이 없는 자연닮은 건자재부터= 에코힐링의 첫 번째 입문조건은 가정 내 유해물질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특히 바닥재나 창호 등 집을 구성하는 건자재는 의외로 많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건자재부터 친환경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에코힐링의 첫걸음이다.

디자인은 물론 소재도 엄밀히 따져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집 안 분위기를 좌우하는 벽지나 바닥재의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친환경 소재의 제품을 선택한다. 여기에 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기하학적인 패턴보다는 자연친화적인 패턴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벽지의 경우에는 최근 벽지 자체에 게르마늄 등이 첨가돼 집안의 나쁜 냄새와 세균 등을 제거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

플라스틱 PVC 소재의 창호도 친환경 ABS 창호로 교체해 볼 만하다. 유해 중금속을 일체 포함하지 않았지만 기존 PVC의 경제성과 단열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무엇보다 천편일률적인 흰색의 디자인에서 탈피, 개인의 취향과 정신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컬러 구현도 가능하다.

금호석유화학의 건자재 브랜드 휴그린 관계자는 “원목 그대로의 소재로 창호를 제작하는 것이 친환경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내구성 문제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ABS 창호가 이를 대신할 친환경 창호 소재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자연을 집 안으로 ‘신비로운 분위기에는 수족관’= 정원을 집 안으로 옮겨 놓은 실내정원 형태도 에코힐링을 위해 많이 시도되고 있는 방법이다. 실제로 실내정원 대여업체도 함께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집의 규모나 설치 장소에 따라 맞춤형으로 실내정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동이 가능해 실내에서 실외로는 물론 심지어 이사 시에도 들고 갈 수 있다. 대여비 이외에 매달 3만원 내외의 관리비를 내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관리해 준다. 원석을 비롯해 자연목, 미니 정자까지 집의 규모나 개인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관리 등의 소홀로 식물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교체도 가능하다. 대여비는 30만원 선에서 120만원 선까지 다양하다.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수족관도 추천한다. 최근에는 단순히 물고기 기르기 위주였던 수조나 어항이 한층 인테리어 요소로 업그레이드 돼 선보이고 있다. 열대어는 물론 최근에는 인조해파리



를 이용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해파리수족관 등 다양하게 구비돼 있어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식물 제대로 효과 보려면 배치에 신경써야= 인테리어 효과도 좋지만 이왕이면 집안 구조의 특성, 가족의 성향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창문이 없어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는 습도를 올릴 수 있도록 물에서 자라는 식물을 키우는 ‘수경재배’가 권장된다. 수경재배를 위해 담아놓은 물이 증발하면서 천연가습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물옥잠이나 수련 등이 수경식물에 속하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물만 갈아주면 될 뿐,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않아 편하다.

침실이나 TV, 컴퓨터 앞에는 전자파를 흡수하고 밤에 산소를 배출하는 선인장, 호접란, 산세베리아 같은 다육식물이 좋다. 실제로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쇄 공간에 식물을 놓았을 때 포름알데히드 2ppm이 5시간 후 3분의 1 수준인 0.7ppm까지 감소했다.

공부방에는 음이온이 많이 발생하고 이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뛰어나며,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물질을 배출하는 식물을 둔다. 권장 식물로는 팔손이나무, 개운죽, 로즈마리 등이 있다.

거실은 온 가족이 사용하는 주요 활동 공간이다. 따라서 그 어떤 공간보다 공기정화 기능이 뛰어나야 하며, 공간도 넓기 때문에 식물의 크기도 1m 정도는 돼야 한다. 거실에 좋은 공기정화 식물로는 아레카야자, 인도고무나무, 드라세나, 디펜바키아 등이 있다.

이선애 기자 lsa@

알레르기 있는 아이 방 ‘녹차 가구’로 꾸며볼까

보루네오가구 ‘큐브’ 녹차마감재 사용

에코힐링은 가구업계에서도 화제다. 친환경상품 진흥원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친환경 상품에 대한 관심도는 82.2%로 제품 구매에 있어 친환경 여부는 상품 구매 시 중요한 선택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흔히 원목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이에 기능성을 더한 신소재가 가구로 만들어져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보루네오가구는 국내업체 최초로 녹차를 사용한 친환경가구 표면재를 개발했다. 녹차 잎으로 장롱 속 곰팡이를 제거한다는 생활 속 정보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하동 녹차 연구소와의 업무 제휴한 것이 성과를 거뒀다.

녹차를 이용한 표면재는 기존 녹차의 성분 가운데,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카데킨이 갖고 있는 항알레르기, 항균, 항바이러스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가구에 사용되는 원자재에서부터,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오염이 없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환경 친화적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제품을 개발해 온 보루네오가구는 녹차마감재를 학생용가구 큐브(Qube) 제품부터 적용하여 차츰 모든 제품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보루네오가구는 2007년부터 기존에 친환경 가구 표면재로 활용되던 식물성 오일 도료보다 한층 우수한 표면재의 개발에 착수해 2008년 옻을 활용한 친환경 가구 표면재를 개발했다.

가구의 대량 생산 시스템에 맞춰 자체 개발된 옻 마감재는 새가구 냄새를 없애며, 항균 능력 및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흡수하게 하는 등 최고급 친환경 표면재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보루네오가구의 건식 무늬목 제품은 포름알데이드가 방출되지 않은 소재다. 보루네오가구는 독성 물질이 방출되는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열을 가해 접착 시키는 LPM 도장 기법 등을 통해 가구를 생산해 호평을 받았다.

강구귀 기자 kk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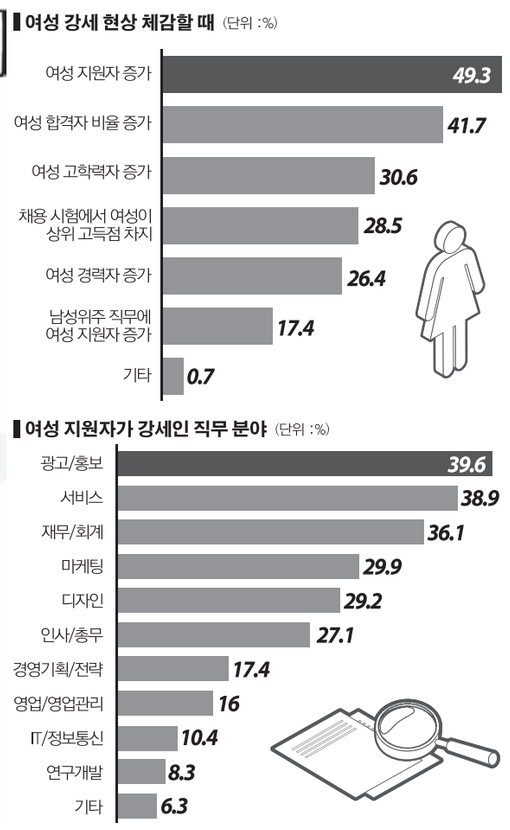




여성임원 100명중 4명…아직 '유리천장' 깨기엔 역부족

지난 8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내 여성임원들과 오찬을 가진 소식이 화제가 됐다. 이는 직장 내에서의 여성역할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 이건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여성임원들이 사장이 돼야 하고 그래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며, 여성들의 직장 내 역할확대를 강조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계를 막론하고 우먼파워가 거세다. 이는 산업계까지 확대되면서 직장 내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오랫동안 가려진 여성들의 다양한 잠재력이 재평가 받으면서 신선한 활력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직장내 우먼파워 어디까지 왔나

◇직장가의 우먼파워= 직장가에서도 여자들의 능력은 뒤쳐지지 않는다. 여성들만이 가진 특유의 장점이 남자 못지 않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게 산업계의 평가다.

여성들은 기업 채용시 스펙 부분에서 남성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취업전문업체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여성의 장점으로 '스펙'을 꼽았으며, 그 중 학점(36.6%. 복수응답)의 우수성이 단연 강조됐다. 어학능력(36%), 업무관련 지식(35.5%), 외국어 회화 능력(23.7%) 부문에서도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뛰어난 '성'으로 인정받고 있다.

스펙을 제외한 부분에서도 여성의 꼼꼼한 성격(70%, 복수응답)을 기업에서는 높이 사고 있었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 채용을 진행한 192개 기업들은 우수한 지원자가 많은 성별에 무려 55.2%가 '여성'이라고 답했다.

합격자의 남녀 비율에서도 여성 합격자가 증가했다고 답한 기업이 44.8%나 됐다. 남성 합격자가 더 많이 증가했다는 대답(20.3%)보다 2배 이상 많은 셈이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여성의 강세현상을 더 많이 체감하고 있었다.

외국계 광고회사에 다니는 김수형(31)씨는 "기업의 전략에 있어서 이성에만 기초를 두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화를 위한 다각도의 해석과 분석, 이성과 감성을 겸비한 유연성이 필요한 시대인 만큼 감성과 꼼꼼함, 논리력을 골고루 갖춘 여성들이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내에서 직원의 임신·출산 등을 보장하는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상사 눈치가 보여서(44.1%)',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37.5%)' 라고 답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유리천장이 깨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美 15.7%, 노르웨이 39%…따라가기 멀어
우수한 스펙·꼼꼼한 성격·논리력 등 강점
여성인력위한 장기비전·인프라 확충 시급

◇ '능력은 있는데'…갈길 먼 우먼파워 = 이같은 잠재력과 능력 발휘, 사회진출의 증가로 여성의 유리천장은 마치 급속도로 깨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직 뿌리깊은 남성위주 사회 문화로 여성들은 견고한 진입장벽과 끊임없이 충돌한다.

가장 대표적인 장벽이 바로 출산과 육아라는 모성의 역할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대한민국 워킹맘 실태 보고서'에서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둔 직장여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가장 큰 고충은 다름 아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42.4%)'이었다.

출산과 육아의 한계에 여성들의 능력은 제대로 된 평가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기회 이전에 눈치부터 보기 일쑤다. 자유로운 모성의 역할은 여성에게 그저 요원한 꿈이다.

이같은 장벽에 국내에서는 여성인력이 임원으로 진출하는 길도 쉽지 않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대기업의 임원급 직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4.7%. 노르웨이 여성 임원 비율이 39.5%이고 미국 역시 15.7%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는 그야말로 기록적인 수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993년 신경영 선언 이후 여성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지만 삼성에서 조차 여성의 임원 승진은 쉽지 않다. 삼성 내 직원 4명 중 1명은 여성. 그러나 임원은 전체의 1.9% 수준이다. 이에 이건희 회장은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성도 사장까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반기문 유엔(UN)사무총장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기업의 여성인력의 채용 확대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 총장은 지난 8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가진 강연에서 "여성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지속가능성장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성에 대한 투자가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라고 말했다. 반 총장은 미국 포천의 500대 기업 실적 분석결과, 여성이 중역으로 있는 숫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매출이 크다는 자료를 인용,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위 향상을 피력했다.

한 대기업에 재직중인 신혜선(30)양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제도가 다양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남성위주의 문화가 견고한 이상 출산·육아는 여전히 큰 부담이고 이 산을 넘어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여성이 한숨을 짓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먼 파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성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동시에 여성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인프라 확충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신 씨는 강조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두바퀴로 달리며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살리죠"

fun fun 동아리
LH 자전거동호회

"자전거 동호회원들은 매년 수백 그루의 소나무를 심고 있어요."

매달 20일간 매일 5㎞씩 자동차로 이동하면 1년에 120ℓ의 휘발유를 연소시킨다. 자전거로 이동했다면 4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는 게 산림청의 분석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전거동호회 회원은 106명이다. 이들은 1년에 400여 그루 이상의 소나무를 심는 셈이다.

LH 자전거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건호 국토주택정보처장은 소문난 자전거 라이딩 전도사다. 그는 강남에서 본사까지 왕복 50㎞를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신동철 제주지역본부장은 자전거의 모든 부품의 가격대비 성능을 알고 최적의 구입가격을 제시할 정도로 자전거 마니아다.

또한 부회장을 함께 역임하고 있는 녹색도시사업1처 허정문 부장은 부인과 주말마다 한강 등을 자전거로 즐긴다.

심사평가처 제안서 심사를 담당하는 정희준 과장과 국토해양부에 파견 중인 오세창 과장은 총무로서 각종 행사 준비와 동호회 살림을 꾸려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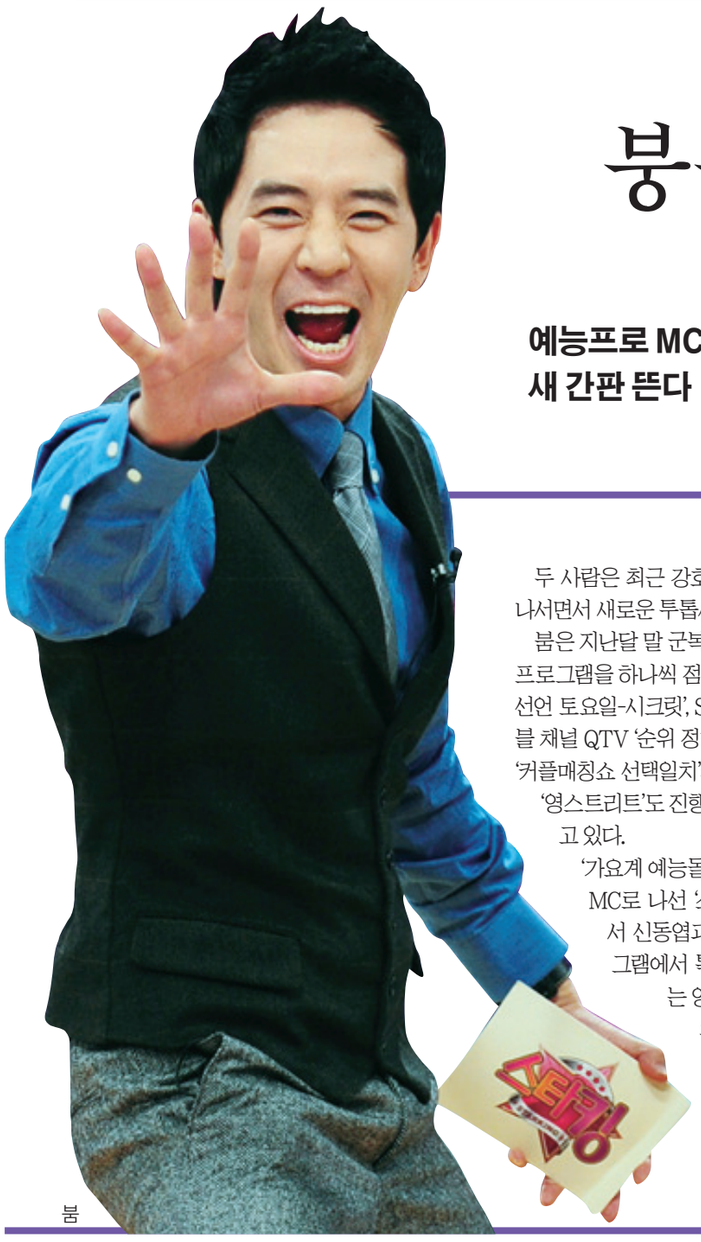
총무인사처 김덕종 계장은 동호회에서 '짐승'으로 불린다. 산 속 등산로길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오르는 짐승 같은 체력과 기술의 소유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자전거 고수다. 그는 자전거 관련,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전거 분해와 조립, 라이딩 기술 강의를 진행하면서 동호회 기술고문을 맡고 있다.

무엇보다 뜨거운 동료애가 가장 큰 자랑거리다. 정희준 총무는 "장거리 라이딩을 하다 보면 체력이 약한 사람은 처지기 시작한다"며 "이들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자전거 구력이 높은 동호인이 선두와 후미, 중간에서 이들을 이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가지 못하면 동료가 기다린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며 끝까지 완주하게 되고 그 때 뜨거운 동료애가 가슴에 넘치게 된다"고 회고했다.

김경원 기자 kwkim@



붕붕 나는 붐… 톡톡 튀는 이특…


붐


이특

예능프로 MC 새 간판 뜬다

기존 방송가 예능 프로그램을 지배해온 '특급MC' 체재가 변화하고 있다. 지난달 9일 탈세 관련 논란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강호동이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하면서 이 같은 변화는 감지돼 왔다. 현재 방송가 MC계는 유재석의 1강에 맞서 신인 MC군단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두주자로 방송인 붐과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 리더 이특이 있다.

붐·이특 '스타킹' 등서 동분서주
이승기 '강심장' 단독진행 호평
김병만·정형돈도 특급MC 후보

두 사람은 최근 강호동이 하차한 SBS '놀라운 스타킹'의 MC로 나서면서 새로운 투톱시스템을 형성했다.

붐은 지난달 말 군복무를 마침과 동시에 '물 만난 고기'처럼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고 있다. 현재 그는 KBS 2TV '자유선언 토요일-시크릿', SBS '케이팝 스타' '놀라운 대회 스타킹', 케이블 채널 QTV '순위 정하는 여자', tvN '화성인 엑스파일', KBS JOY '커플매칭쇼 선택일치'의 MC로 활약 중이다. SBS 라디오 파워FM '영스트리트'도 진행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인기를 끌고 있다.

'가요계 예능돌' 이특의 활약도 눈여겨 볼만 하다. 붐과 함께 MC로 나선 '스타킹' 외에 케이블채널 E채널'최강커플'에서 신동엽과 함께 MC로 나서고 있으며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톡톡 튀는 예능감을 뽐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영화 '써니'를 통해 스타덤에 오른 배우 강소라와 함께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 새커플로 합류했다.

신동엽은 이특에 대해 "상당히 재치 있는 후배다. 프로그램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정말 타고난 예능인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국민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을 통해 예능계를 접수한 가수 이승기도 발군의 순발력으로 MC계의 한자리를 차지했다. 강호동과 함께 투톱으로 진행해온 SBS '강심장'의 단독MC로 나선 것. '강심장'은 방송과 가요, 영화계 스타들이 동원되는 토크 배틀쇼로, 매회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기프로그램이다.

방송계 관계자들은 이승기를 두고 '유재석-강호동'의 뒤를 이을 특급MC 후보 1순위로 거론하고 있다.

KBS 2TV '개그콘서트-달인'으로 국민 개그맨에 오른 김병만도 주목 받는 MC 후보다.

김병만은 10년간 '달인'을 꾸준히 이어가는 성실함과 예능감으로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얻고 있다. SBS '김연아의 키스 앤 크라이'에서는 아이스댄싱 연습을 하다 발목 부상을 당해 진통제를 맞으면서도 훈련에 임하는 등 투혼을 보여줘 감동까지 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병만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방송과 그의 자전적 에세이'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를 내며 다방면의 활약을 준비 중이다.

MBC '무한도전'을 통해 색다른 캐릭터를 구축해온 정형돈도 케이블 채널 tvN '재미있는 TV롤러코스터', MBC에브리원 '주간 아이돌'등에서 MC로 활약 중이다. 정형돈은 스타일프로그램 XTM '옴므 3.0'에서도 패션의 맥을 짚는 진행자로서의 면모도 선보일 예정이다.

방송가의 마당쇠로 통하는 지상렬도 눈길을 끄는 MC 후보군이다. 지상렬은 MBC'우리들의 일밤-바람에 실려'와 ' 나가수'에서 활약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는 MBC'세바퀴'에서도 고정게스트로 활약하며 입담을 과시하는 등, 공중파와 케이블을 넘나들며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 노홍철, 박명수, 이수근 등이 각 예능프로그램에서 꾸준히 MC로서의 능력을 선보이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



천정명·박민영 첫만남부터 '찰떡'

내일 첫방 KBS '영광의 재인'
야구선수·간호조무사 역할
실제 병원 응급실서 첫 호흡



배우 천정명과 박민영이 KBS 새 수목극 '영광의 재인'에서 폭풍같은 운명으로 뭉친다.

천정명과 박민영은 오는 12일 첫 방송되는 KBS 새 수목드라마 '영광의 재인'(극본 강은경, 연출 이정섭, 이은진/제작 김종학프로덕션)에서 잘나가는 4번 타자였지만 2군으로 떨어지며 인생의 고난을 겪는 야구 선수 김영광과 가슴이 따뜻하고 쾌활발랄한 간호조무사 윤재인 역을 맡았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응급실에서 이뤄졌다. 야구 경기 도중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온 김영광(천정명)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상태에서 홀로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고, 윤재인이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것. 김영광은 윤재인을 초점 없는 눈으로, 윤재인은 그런 김영광을 쳐다보던 중 본의 아닌 사고로 인해 '덥석 포옹'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그 후 이어진 김영광의 당혹스런 에피소드는 윤재인의 살신성인을 더욱 빛나게 할 예정이다.

지난달 9일 대구의 한 병원에서 진행된 촬영에서 천정명과 박민영은 첫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고 완벽한 호흡으로 촬영을 이어나갔다. 새벽까지 이어진 응급실 촬영에서도 두 사람은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촬영을 해나가며 스태프들의 찬사를 받았다.

무엇보다 천정명은 부상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김영광의 모습을 100% 빙의된 채 연기해냈다. 천정명은 몸이 아픈 장면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섞은 용액을 직접 먹었는가하면, 통증이 심해 눈조차 뜰 수 없는 모습을 완벽하게 표현해냈다.

이날 촬영은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 실제 병원 응급실에서 진행됐다. 환자들이 구급차에 실려 들어오고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등 생생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이 이뤄져 더욱 리얼한 장면이 완성되었다는 귀띔이다.

천정명과 박민영은 촬영장에서 감독과 함께 한 장면 한 장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장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열혈모드를 펼쳐내 촬영장 분위기를 달궜다.

제작사 김종학 프로덕션 측은 "천정명과 박민영이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이며 '영재 커플'로서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며 "천정명과 박민영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는 미묘한 감정을 실감나게 연기해내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앞으로 실타래처럼 엮이게 될 두 사람의 운명을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한편 '영광의 재인'은 2군 야구선수 출신에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세상의 4번 타자이고 싶은 '순수 자뻑남' 김영광과 천성이 밝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절대 긍정녀' 윤재인이 자신들의 운명을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인생에 관한 감사와 행복의 법칙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옥주 기자 gracebyok@

정엽 두번째 정규앨범 오늘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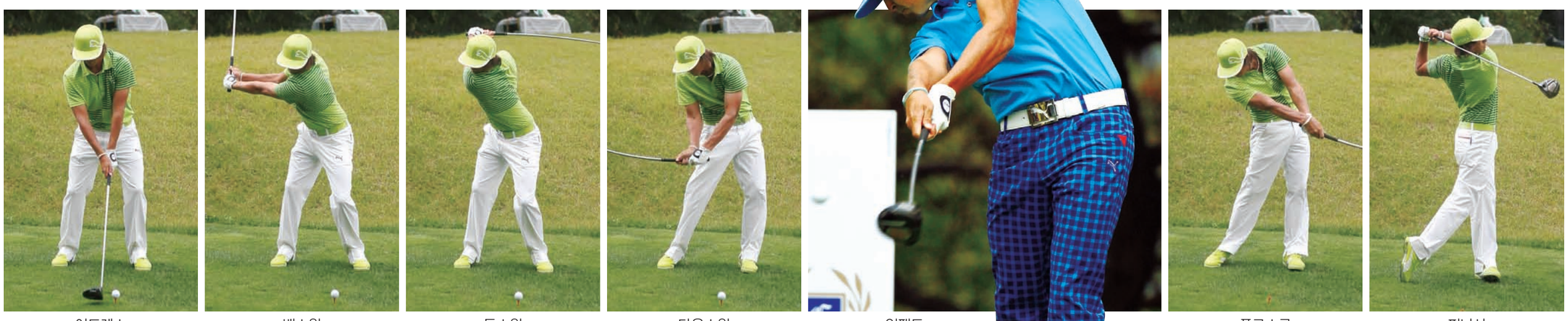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엽(사진)이 두번째 정규 솔로 앨범을 11일 자정 공개했다. 'Part I', 'Part II' 두 장의 앨범으로 나뉘어 발매된 이번 앨범은 각각의 앨범에 두 가지의 다른 감성이 실려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선을 보이는 'Part I : Me'는 극단적인 슬픔의 감성만으로 꾸며졌으며, 흐려진 초점,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한 앨범 커버의 사진들을 통해 외롭고 슬픈 감성 음악에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이어 발매될 두 번째 파트의 음반은 보다 밝아진 감성을 담아냈다.

정엽의 소속사 산타뮤직에 따르면 "전형적인 틀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표현해 내는 극적인 슬픔이 돋보이며, 타이틀곡은 정엽과 에코브릿지가 함께 만든 '눈물나'로 결정했다. 또 이번 앨범에는 싱어송라이터 윤종신이 작곡가로 참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솔로 앨범 발매와 더불어 네 번째 단독 콘서트 준비에도 여념이 없는 정엽. 'K.I.S.S'로 명명된 정엽의 콘서트는 오는 14~16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 22~23일 부산 KBS홀, 29~30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gracebyok@



어드레스 백스윙 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폴로스루 피니시

377야드… 톱스윙때 체중 80% 오른쪽에

한국오픈 우승 파울러의 장타 비결

'그린패션의 아이돌' 리키 파울러. 23세다. 지난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데뷔하자마자 톡톡 튀는 컬러풀한 패션과 파워 넘치는 스윙으로 인기 스타 대열에 합류했다.

미국과 유럽 대륙의 골프 대항전인 2010 라이더컵 멤버로 선발돼 멋진 경기를 펼쳤고, PGA 투어 신인왕까지 차지했다.

다만, 그는 올 시즌까지 우승과는 인연이 멀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서 처음 와 9일 충남 천안 우정힐스CC에서 끝난 코오롱 제54회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프로데뷔 첫 승을 국제대회에서 한 것이다.

그는 주니어시절 엘리트 코스를 밟은 다른 정상급 선수들과는 조금 다르다.

강렬한 스포츠를 좋아해 3살때 배운 익스트림 스포츠 모터바이크에 심취했다. 그러다가 15세 때 다리가 부러졌다. 이후 골프에 본격 입문했다.

지난해 루키시절을 지낸 그는 올 시즌 드라이버 평균 거리 299.7야드를 날렸다. 랭킹 25위다.

그가 마음 놓고 때린 드라이버 거리는 377야드다. 이런 장타력으로 그는 208만 4681달러를 벌어들여 상금랭킹 36위에 올라있다.

이번 한국오픈 최종일 18번 홀(파5)에서 비록 그린앞 해저드에 빠졌지만 세컨드 샷에서 아이언을 잡을 정도로 장타력을 과시했다.

그의 스윙 특징은 유연성이 뛰어난데다 어깨턴이 좋다. 요가선수를 방불케할 정도로 톱 스윙에서 110도 이상 돌아가 있다.

특별히 노력한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라는 그의 말에서 유연성이 타고난 것 같다.

물론 아직 나이가 있다. 하지만 골프로 단련된 그의 또래들보다 확실히 턴이 잘 된다.

다음은 최근 골프다이제스트에서 리키 파울러가 자신의 드라이버 스윙을 분석한 내용이다.

그는 키가 고작 175cm밖에 안된다. 그럼에도 파워 드라이버를 구사한다. 스윙은 가장 단순하게 한다.

어드레스에서 볼은 왼발쪽에 놓인다. 머리는 볼보다 뒤에 있다. 스탠스는 넓게 잡고 있다.

테이크백과 백스윙은 천천히 하지만 팔에 긴장이 느껴질 정도로 하지는 않는다.

톱스윙에서 체중의 70~80%까지 오른쪽에 있다. 완벽한 어깨턴으로 머리는 더욱 오른쪽에 있다.

컨디션이 좋은 날은 머리가 더 멀리 오른쪽으로 간다.

이것은 가속할 수 있는 파워를 제공하는데 문제는 타이밍이다.

다운스윙때는 최대한 파워를 내기위해 공격적으로 한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임팩트 구간에서 팔뚝으로 회전하게 된다. 그러면 볼이 빗나간다.

다운스윙에서 폴로스루, 피니시까지 생각은 하나만 한다.

몸을 목표방향으로 움직인다. 믿음을 갖고 체중을 전부 왼쪽으로 보낸다.

안성찬 기자 golfahn@

닥터 김영구의 골프건강

'걸퍼족' 기미 걱정 끝

〈Girl+Golfer〉

요즘 필드에 나가보면 부쩍 젊은 여성들이 많이 보인다. 이들을 일컫는 '걸퍼(Girl+Golfer)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그러나 끝까지 즐거운 라운딩이 되기 위해서는 장시간 야외활동으로 인한 피부의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걸퍼족은 피부노화가 급격히 진행되기 시기이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흔히 봄·여름철에 비해 가을·겨울에는 자외선 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자외선은 사계절 내내 주의해야 한다. 필드에서는 과도한 양의 자외선은 다양한 색소침착과 자칫하면 나이에 맞지 않는 기미까지 유발할 수 있다.

기미는 볼과 입 근처, 눈 주위와 이마에 좌우대칭으로 생긴다.

젊은 나이에 기미가 생길 경우 처음에는 설마하며 지나치기 쉬운데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주변으로 서서히 퍼져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기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 자외선차단제는 적어도 자외선차단지수 30이상의 제품을

평소 선크림 자주 발라주고
챙이 큰 모자·우산 효과적

바른다. 라운딩 메이크업은 건조한 부분을 빼고 이마, 코, 등을 중심으로 자외선 차단효과가 있는 팩트를 덧발라 주면 효과적이다.

또한 챙이 7.5cm 이상의 모자나 우산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하기 20~30분 전에 발라야 하고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는 2~3시간에 한 번씩 자외선 차단제를 덧발라 피부를 보호한다.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 비타민C, E 함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 주고 비타민C 가 든 화장품도 발라 피부의 면역력을 높여 놓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골프 후 얼굴피부에 거뭇거뭇한 기미나 색소가 생겼다면 초기에 피부과를 찾아 본인의 피부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는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루메니스원, 젠틀맥스, 레블라이트 등 여러 레이저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기미치료'가 효과적이다. 과거에는 골프를 쉬는 겨울에 치료를 많이 받았으나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골프를 즐기는 시즌에도 치료가 가능하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 피부가 좋은 사람은 드물다고 하지만 골프로 단련된 체력과 함께 빛나는 피부도 지키는 '걸퍼족'이 되길 바란다.

연세스타피부과 원장

캐슬렉스서울GC '녹색경영' 눈에띄네

승용차 1대에 3명이상 탑승
연습장·사우나 등 50% 할인

사조그룹에서 운영하는 캐슬렉스서울GC(대표이사 최세환·경기 하남)가 이산화탄소(Co2)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 가입자에게 그린피를 할인해준다.

캐슬렉스서울은 1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CO2 줄이기의 일환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입장객 중 승용차 1대에 3인이상 함께 탑승할 경우에 골프문화센타 캐슬렉스 이성대의 주중, 주말 50% 할인권을 제공한다. 연습장 타석 및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성대는 메너드 드라이빙 레인지 및 체력단련장, 사우나, 퍼팅장, 어프러치와 벙커 연습장, 마사지숍, 미용실, 골프용품숍, 골프의류숍, 바베큐가든, 사조식품관, 골프아카데미운영, 레스토랑을 갖춘 종합 레저시설이다.

또한 캐슬렉스서울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홈페이지(www.castlex-seoul.com)에 신규로 가입한 모든 회원에게 그린피 1만원의 할인해주기로 했다.



사이버 회원에 가입하면 캐슬렉스의 모든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향후 다채다양한 이벤트 운영시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회원은 입장시 프론트 체크인을 통해 즉석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입장 횟수에는 상관없이 기간내 항상 적용된다.

사조그룹은 캐슬렉스 서울, 제주, 칭따오 등 3개 골프장과 골프문화센터 이성대를 운영 중이다.

안성찬 기자 golfahn@

골프 뉴스

엑스골프, VIP고객 초청 골프행사

국내 최대 골프예약서비스 엑스골프(www.xgolf.com)에서 싱글 몰트 위스키 맥캘란과 함께 엑스골프 VIP고객 초청 골프행사를 연다.

31일에 경기도 안성의 명문 골프장 PCC에서 진행된다. 티타임은 사전에 예약 가능하다. 선착순 78팀. 참가비용은 1인 17만 9000원으로 18홀 그린피와 카트비 포함돼 있다.

맥캘란 스릭슨 볼 및 장갑세트, 엑스골프 1년 가입권 등 참가자 전원에게 10만원 상당의 푸짐한 사은품을 증정한다.

푸마골프, 파울러 우승기념 할인행사

푸마골프는 이번 리키 파울러(23·미국)의 첫 우승을 기념해 전 품목 20%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행사기간은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푸마골프 매장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www.golf.puma.co.kr 또는 070-7018-0880 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한강 자전거길-양수리(북한강 철교)

남한강 자전거길 개통

1,692km의 아름다운 자전거길이 있는 나라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어디를 가도
상쾌한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나라



서울 한강과 여주 이포보를 연결하는 ㅇㅇ km

가슴에서 가슴으로 흐른다

NAVER +Mobile 4대강

여주보와 강천보는 '친환경 첨단보' 입니다

- 첨단 설계와 시스템으로 물부족 해결 및 홍수피해 예방
- 자연형 어도 등 생태하천 조성으로 친환경.웰빙 수변공간 조성
- 소수력 발전소를 통해 무공해 청정에너지 생산.공급

여주보와 강천보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로 탄생하였습니다

- 앙부일구와 자격루를 형상화하여 세종대왕의 지혜를 계승한 여주보(525m)
- 황포돛배과 여주군의 군조인 백로의 비상하는 모습을 본뜬 강천보(403m)

초대합니다 '한강 새물결, 여주.강천보 통합개방 축제 한마당'

- 일시 : 10월15일(토) 13:00~18:00
- 장소 : 강천보 통합관리센터 앞 특설 행사장
- 내용 : 자전거 대장정, 여강길 걷기, 도자기만들기 체험 등